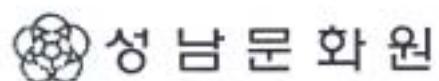


國譯 靜堂遺稿

吾宗坦
靜堂遺稿跋
王人明直篤
而其早年志向晚來
人靜遺稿一

靜堂遺稿序
人有兄弟而境遇相和
福中至樂而自古人之有
乎家室之內夫婦相得善
說皆足以資養則其為娶
好氣節所行者不能無得



성남문화원

추모시

모닥불 혼이었네

한 춘 섬
(시조시인)

앞 뒤 풀 속삭이는 离生 앞 서성이며,
눈물의 濡 틈으로 꽃송이 피웠어요
침줄기 마티마디로 영원한 그리매.

간 冬至 雪寒風에 새 봄을 기다리고
홍진한 사랑 줄기 가슴 속 덜었어요
소복의 그 손길마다 흰 목련꽃 솟아송이.

꾀꼬리 봄꾀꼬리 하나 뿐인 世上살이
언제나 웃 어쁜 뜻 웃소래로 예민 가슴
끌내는 銀河 나무터 노 저으신 님이아라.

가을 밤 거리가때 젖대 출린 뜻향내도
누구도 기억 못할 외길 따라 사셨기에
푸른 산 떠 받든 숨결 姜靜一堂 순결이네.

붉은 꽃 예민 맵시 모닥불 魂이었네
청계산 계봉능선 전달해도 산가 실어
못다한 사랑 모두고 향긋 괴워 웃습니다.

'98 성남문학인 작품선집(1998. 6. 20)

靜一堂集 重刊序

既有道學，自道學文章，自文章之辨矣。不有道學之文章，文章之文章之別乎？夫道學文章兼備之難易得者，雖丈夫而自幼至老不釋手卷，而說理論氣，有名稱於當時尚或然，況在在閨內微讀而暗誦，以所習不使外人有知之婦人也？近有金友之言曰：煥茲得見一文集，乃尹坦齋，名光演，字明直之配靜一堂姜氏所著也。其所云爲之所記錄如是如是。而其行于世之未廣，甚所可憾。予聞之，不知將何所而得詳其如何也。適於宋友之家，有一局¹⁾而示予曰：此靜一堂集也。云已經刊而今不見其刊本。此而可不傳乎？雖欲重之，柰非基冕所圖，何乃見之。向來所聞，只是大略說而已矣。嗚乎！所謂道學文章，或不備於名於世之云云者，以得之於固窮實踐，而韜晦²⁾其能之。姜孺人靜一堂，靜一堂之德之文之，見載於本稿者，人莫不起欽。如其所稱道之諸詩文，出於其同時，或見之熟，或聞之詳者，亦可爲證百世而有據矣。但當日如不無良有司在其位，胡不舉狀漸德立爲閨門之表範，使天下後世得聞靜一堂之風乎？是可嗟也。此稿之存也，孰不有不過爲一鬻³⁾於其著述之多，而歸於烏有⁴⁾之餘之。惜哉！然以是而其平生精力云等，全鼎可得以推之，亦一幸也。刊而壽之，非儒者事而何？於是用活字刊之，刊之遂以誰讓而曰：豈哲坤力之所能致也者，金友也。然則此刊之在今日，亦已有待也歟。予於敘事之役，以寓贊歎之意，而不辭其託名之爲榮也。

丙寅，端陽節⁵⁾，延安金昌碩序。

1) 국(局)；권(卷)과 통용.

2) 도회(韜晦)；자주나 학문 등을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 것.

3) 헌(鬻)；자연 고기.

4) 오음(烏有)；사물이 물에 타거나 해서 아무 것도 없이 된 것.

5) 난양절(端午節)；음력 5월 5일, 단오절.

<정일당집> 중간(重刊) 서문

도학(道學)이 있은 뒤에야 자연 도학의 문장이 생기고 그래서 문장의 구별이 생겨나는 것이지, 원래 도학을 위한 문장과 문장을 위한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도학과 문장을 겸비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비록 창부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이기(理氣)를 논해 그 이름이 당대에 알려질 정도는 되어야 후 가능할 지 모를진대, 하물며 규방에서 은밀히 읽어 암송하며, 배워 익힌 것을 외인이 알지도 못하게 해야 할 부인의 경우이겠는가? 최근 친구 김씨가 말하기를, 주목 같은 문집 하나를 보았는데, 이름이 광연이요 자는 명적인 윤탄제의 아내 정일당 강씨가 지은 것이라 했다. 그는 이것저것 기록된 내용을 말하고서는, 그것이 세상에 널리 읽히지 못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어디서 그 책을 구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친구 송씨 집에 들렀을 때, 송씨는 나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며 그것이 바로 정일당의 문집이라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미 간행됐으나 지금은 간행본을 구해 보기 어려우니 이렇게 그대로 단절시켜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비록 다시 간행하고 싶으나 뜻만 앞설 뿐이니 어찌 구해 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문은 단지 개략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 소위 도학문장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름이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람조차도 갖추기 어려운 것인데, 퍼나는 노력으로 그것을 체득하고서 또 얻은 바를 잡추어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바로 강정일당 부인이로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정일당의

덕과 학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수그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도를 내세운 그의 여러 시문들은 그 전문의 성숙함이나 상세함에 있어 가히 백세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당시 훌륭한 유사(有司)라도 있었더라면 어찌 그 정숙한 덕을 기려 규문의 모범으로 삼아 후세인으로 하여금 정일당의 풍모를 익히 알게 하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애석한 노릇이로다! 여기 남아 있는 글들은 그 수많은 저술 중 불과 한 편인데 불과하여, 다 없어지고 남은 몇 편에 불과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써 그 평생의 정력이나 온전한 모습을 유험해 볼 수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책을 발간하여 오래 보존하는 일이야 유자(儒者)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활자를 사용해 간행하게 되었다. 다 간행하고 나서 양보하여 말하기를, 어찌 석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김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이것을 발간하는 테 일조가 되었다 할 수 있겠다. 나는 서문을 쓰는 역할을 맡아 찬탄의 뜻을 덧붙이면서 내 이름을 붙이는 영예를 사양하지 못했다.

병인년(1867년) 단오절, 연안 김창식이 서문을 쓴다.

<舊本> 靜一堂遺稿序

夫人有兄弟而種饒相和⁶，有朋友而鍾呂相合⁷，是皆人倫中至樂。而自古之人有此樂者，絕難得而或有之。況乎家室之內，夫婦相得簪珥之警⁸，不絕於齒間茶飯之說，皆足以資益，則其爲樂何如也？吾宗坦園明直甫少好氣節，所行者不能无得失，自勝冠稍稍嚮道，遂就正於剛齋先生門，固窮讀書篤志勸行，余嘗重之。年來其窮益甚，又喪其肺體⁹，身計之淒寥¹⁰，殆人所不堪，猶尚益奮勵，不渝初志，余益異之。忽一日抽出一小冊子，題曰靜一堂遺稿。泣謂余曰，“此吾亡妻所著，文字之收拾於巾箱¹¹中者，嘗自謂文章非婦人事，未或出於藏，其人雖沒，不欲傷平日志。然亦終有所不忍湮沒者。其爲詩絕少而要，皆學者自警之言，其文又非華靡藻飾，无非懼懲於不佞身心上，論學則主誠敬，論工課則斷乎有慧識妙悟，而其用功之淺深，見處之精粗，爲其夫者亦未能盡知，然而使其夫浸浸然變其氣質，從師就友，能免於大罪過者，皆婦人賜也”。余竦然聞之，始焉擊節¹²興歎，終焉歛膝¹³起敬而曰，“噫，余之於子，重之異之者，其有驗矣。其有資於簪珥之警，茶飯之益也。是尤

6) 훈지상합(鍾呂相和): 훈(鍾)은 높으로 구워 뱀은 파리이며 '지(謙)'는 대나무로 만든 파리로서, 힘은 훈을 봉고 아무는 지를 봉어 서로 조화된 소리를 낸다는 것으로 청예간의 화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7) 종려상합(鍾呂相合): 종(鍾)은 종(鐘)과 통용, 종(鐘)은 활종(黃鐘), 려(呂)는 남려(南呂)로서 황종은 오성(五聲)의 첫 음으로 궁(宮), 남려(南呂)는 끝 음으로 우(羽)임. 따라서 종려상합이란 첫 음과 끝 음을 서로 맞춘다는 것으로 천구간의 화합이나 협색을 가리킴。

8) 簪珥之警(簪珥之警): 관에 꽂아 눈아뜨려 귀를 장식하는 옥. 따라서 관이지경이란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충고나 경계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함。

9) 肺體(肺體): 배우자.

10) 淒寥(淒寥): 찡찡하고 냉 비다.

11) 전상(巾箱): 비단으로 걸을 한 상자.

12) 격절(擊節): 무릎을 치다.

13) 염술(歛膝): 무릎을 단정히 해서 앉다.

豈不絕異矣乎？”古昔哲婦賢媛之名於後世者，或以孝烈德行言語一節之美，斂膝人耳目。何限而至於義理之精解，學力之深造，如此卷者，豈易得於閨閣之內也。其視兄弟之聯芳，朋友之唱酬¹⁴⁾，其難易得失，果何如也？明直之圖，所以不朽。永祚貽後之韜範，惡得已乎？明直甫¹⁵⁾，以余有同人之好，要一言以識之。不敢自外竊，不揆僭妄，而樂爲之書。時，崇禎紀元後¹⁶⁾四，甲午九月，戊子，通政大夫，前大司諫，坡平尹濟弘識。

구본(舊本) <정일당유고> 서문

무릇 사람이란 형제가 있으면 서로 화합하고 친구가 있으면 서로 협력하니, 이는 모두 인류의 자극함으로서 예로부터 이 즐거움을 얻은 자는 아주 드물었다. 하물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타일러 경계하고 그것을 비극한 일상생활 속에까지 지속시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문중의 단원 명직은 어릴 때부터 기개와 절개가 있었다. 행하는 바가 모두 옳을 수는 없었지만, 관례를 받은 후부터는 점차 도를 지향하기 시작해 마침내 강재 선생 문하에 나아가 힘을 다해 독서하고 뜻을

14) 창수(唱酬): 시가나 문장 등을 서로 주고받음.

15) 보(甫): 관례를 하고 자(字)를 지을 때 자에 붙이는 글자, 일반적으로 남자의 미칭.

16) 숭경기원후(崇禎紀元後); 숭경은 중국 명나라 마지막 임금 사종(思宗) 장렬제(莊烈帝)의 애호. 특히 조선 후기에 청나라 연호 쓰기를 꺼려 '숭경기원후'라 썼음.

키우며 몸가짐을 바로 잡았으니, 나는 일찍이 그것을 귀중히 여겼다. 근래 더욱 궁핍해지고 거기다 배우자까지 잃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사는 것이 처량하고 허전할 것인데도 도리어 더욱 분발해 처음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다. 하루는 돌연 소맷자락에서 『절일당유고』라는 조그만 책자를 끄집어 내더니 읊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죽은 저의 처가 지은 것으로, 비단상자 속에 들어 있던 것을 수습한 것입니다. 일찍이 저의 처는 문장을 짓는 것은 부인이 할 일이 아니라 하면서 꺼내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처는 죽었지만 평소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대로 없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시는 짧지만 요점이 들어 있으며, 모두 배우는 자의 스스로 경계하는 말입니다. 문장에는 화려한 수식이 없고, 심신을 결실히 가다듬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학문을 논함에는 성경(誠敬)을 위주로 하고, 공부를 논함에는 치혜롭고 오묘한 깨달음이 있으며, 그 실천의 깊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은 남편인 저까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기질을 서서히 변화시켜 스승을 따르고 친구를 사귀게 하여 큰 죄와 혀물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모두 아내의 덕이었습니다." 나는 숙연히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릎을 치며 탄식하다가 마침내는 무릎을 단정히 하여 예를 갖추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를 그토록 기이하게 생각한 것도 일리가 있었네 그려, 꿰시에도 끝임없는 아내의 경계와 조언이 있었구먼! 그러나 어찌 기이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리?" 후세에 이름을 남긴 이전의 명석하고 어진 부인들은 혹 흐나 정절, 덕행이나 문장 중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속연하게 했는데, 이것이 어찌 의리와 학문에 정통하다 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런 책이 어찌 규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는가? 더구나 형제간의 화목과 친구간의 교류에 대해서까지 시각이 미쳤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명직이 발간하고자 하는 책은 불후의 것으로 영원히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니 어찌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는가? 명직은 나와 뜻을 같이 하여 한 마디로 서로를 알 수 있어, 감히 내용을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않고 즐겁게 책으로 엮었다.

승정기원후 4년, 갑오년(1835) 9월 무자일, 통정대부 전 대사간 파평 윤제홍이 쓴다.

목 차

副

敬次尊고只一堂韻	/ 존경하는 지일당 시어머님 시에 답합니다.....	23
只一堂 (原韻)	/ 지일당의 원래 시	25
始課	/ 글 공부를 시작하여	26
見善童被撻	/ 서당 아이의 매맞음을 바라보며.....	27
山家	/ 산골 집.....	28
自勵	/ 스스로를 애蓐고제.....	29
性善	/ 근본이 착함이고나.....	30
呈夫子 (1)	/ 남편앞에 드리옵네.....	31
偶吟 (1)	/ 한가로이 시 읊어가며	32
夜坐 (1)	/ 밤에 홀로 앉아	33
坦闊	/ 탄원집 등에서.....	34
贈朴仲燦	/ 박중燦에게 드린 시	35
勉諸童	/ 여러 아이들을 일깨워 봄.....	36
呈夫子 (2)	/ 남편앞에 드리옵네(2)	37
元朝敬呈夫子	/ 설 아침에 남편께 드리옵네.....	38
除庭草	/ 뜨락 풀을 뽑고서	39
示誠生姪	/ 조카 성규를 펴아름	40
無題	/ 제목없음	42
主敬	/ 敬을 우러르고	43
聽秋蟬	/ 메미 소리를 듣고	44
拜孔夫子	/ 공자님 우러르고.....	45
客來	/ 내 집을 찾는 손님.....	46
坦闊前路通乎康莊	/ 면화가 보이는 내 집 탄원	47
謹次王易戒吸煙草韻	/ 담배피우기를 경계하신 시조부님께 답함.....	48
偶吟 (2)	/ 한가로이 시 읊어 가며.....	49
讓中庸	/ 중용을 읽은 후에	50
奉獻青翰子(李觀夏)	尊夫人回甲壽席 / 청한자님 회갑연에 바치는 글.....	51

贈安秀才(敬甲)兼示 高信義(廷진) / 한수재와 고신의께 드림	52
除夜偶作 / 설날 그믐날 읊고 나니	53
敬堅夫子行駕 / 길 미나는 남편에 드리는 시	55
除夕感吟 / 설당 그믐 밤	56
病後 / 병 앓고 나니	57
示同庚諸友 / 동갑 친구	58
謹次丈庵君謝詩韻 / 삼가 군단님 시에 답하여	59
謝海石金相公(截瓊) 惠臣新書 / 해석님이 주신 새 달력을 감사하며	60
奉寄宗人東伯(聲大) / 종인 둥백께 글 바침	61
誠敬吟 / '誠'과 '敬'을 담고 읊고 올네	62
示從保護鐵婦 / 종손되는 근진의 아내에게	63
坦園三草 / 한원 삼장을 짓고	64

銘

筆筒 / 필통	67
案 / 책상	68
硯匣 / 벼루	69
扇 / 부채	69
木鳥 / 나무 새	70

書·贊은 글

與姜就如(日會)書-代夫子作 / 강취여(일회)께 드림	71
與宗中書-代夫子作 / 문중에 드리는 글	73
與宗人光闇書-代夫子作 / 종인 광주께 드림	75
與宗人釜山之謙-代夫子作 / 부산의 종인 경께 드림	76
與豐川宗人澤霖-代夫子作 / 중천에 있는 종인 백령께 드림	78
上舅氏權烏齋(中寶)慰書(年條未考, 疑甲子季秋) / 외숙 권오재(중보)의 별세를 위로하는 글	79
上夫子書(庚寅冬) / 남편께 드리는 글	82

尺牘 · 편지

今朝一老饕	/ 오늘 아침 할머니 한 분이	84
俄者之間	/ 얼핏 들은 것 같은데.....	85
今將進瓶	/ 이제 진지를 차려 드릴테니.....	85
俄聞	/ 얼핏 들으니.....	85
李納庵(晉淵)	/ 이경암(진연)의	86
日昏不可行	/ 날이 저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87
今朝客去	/ 오늘 아침 손님이 떠나갈 때	88
日會衝寒早來 / 일회 오라버니가 추위를 무릅쓰고 일찍 찾아 왔습니다.....	88	
益齊(黃潤鐘)	/ 익제(황윤종)는	89
伏承下示	/ 이전에 이런 말씀을	89
我有實德	/ 나에게 팽된 덕이 있다면.....	91
君子處世	/ 군자가 세상을 살아갈에 있어.....	91
下示或說云云	/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93
婦人之嫉妬	/ 부인의 질투는.....	94
某富人	/ 저는 다른 사람이	94
李雅(薦英)之保族	/ 이아(시영)가 가족을 보호하고	95
李明夫(炳惠)	/ 이명부(병덕)는	95
父子一體也	/ 아버이와 자식은 한 몸으로서.....	96
深衣	/ 심의는	96
縗巾	/ 복건이	97
華冠着	/ 화관이란	97
戒懼	/ 경계하고 두려워 하는 것은.....	98
年前	/ 몇 해전.....	98
伏聞	/ 어땠는지요	99
黃正誥斐山(基天)	/ 황정언 능산(기천)	100
文中子之服	/ 문중자의 복장은	102
斐兒家	/ 어떤 아이 집은.....	102
人之有仁義	/ 사람에게 인의가 있는 것은	103
師者	/ 스승은.....	104
貧者士之分也	/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며	105
李某(炳道)井木	/ 이모(병도)가 나무위로 올라가니.....	105

不飲今三朝矣	/ 식흘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106
新涼入郊	/ 교외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니.....	107
眼患累日未愈	/ 안질이 떠칠째 낫지 않으셔서	108
下示	/ 일러주신 것은	108
金上舍	/ 김상사에게는.....	108
無所爲而爲者	/ 아무런 의도없이 행하는 자는	109
諺云	/ 속담에 이르기를	110
夫子舊言	/ 당신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112
門生家	/ 문하생 집에서	112
君子之爲道	/ 군자와 도는	113
允擊堂曰	/ 윤지당이 이르기를	114
尹宅賦	/ 윤태진과 학진은	114
陶庵詩曰	/ 도암의 시에	114
允擊堂曰	/ 윤지당이 이르기를	115
妾是一箇婦人	/ 저는 일개 여자로.....	115
從孫(謙鐵)之女	/ 종손(근진)의 딸 아이는.....	116
晝寢則氣昏忘寐 / 失智를 차면 기운이 혼미해지고 의지가 나빠져지며.....	117	
下教	/ 하신 말씀은	117
李承宣	/ 이승선의.....	117
夫子舊言	/ 당신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118
園中平穩臺	/ 정원의 평온대는	119
凡民俊秀	/ 무릇 백성들이 뛰어난 것은	119
族姪瀟英	/ 족질준영은.....	119
從舅東州公	/ 작은 아버님 동주공의.....	120
沈思津	/ 심은진은.....	120
下示	/ 보여주신.....	121
尹尚書	/ 문상서에서.....	121
下示一絕	/ 보여주신 한 구절.....	122
君子非禮不言	/ 군자는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	122
從夫子道而終始不違者 / 당신과 교유하면서도 시종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123	
海石金相公	/ 해석 김상공께서	123
先稿刊授	/ 풀아가신 아버님 유고를.....	124
洪曉馬云	/ 홍세마께서 말씀하시기를	125

別紙 · 작은 글

代夫子上師門 答金富平(榮)	/ 남편을 대신해 사문에 올린 편지 / 김부평(榮)에게 답한 편지 - 남편을 대신해	125 127
-------------------	--	------------

記 · 기록

先祖永隱公塋墓記 晚醒齋記 坦園記	/ 선조 영은공의 묘를 다시 세우며 / 만성재기 / 탄원기	128 130 133
-------------------------	--	-------------------

說 · 훈시 이야기

親說示李童子弗懋	/ 이불의 동자에게 바루의 설로 훈시함	135
----------	-----------------------	-----

題跋 · 주제있는 발문

書社牒後(代夫子作) 書外王父母遺事後(代夫子作)	/ 새첩을 쓰고 나서 / 돌아가신 외가 조부모께서 남긴 생전의 사적을 번역하고서	137 138
------------------------------	--	------------

末國譯 目錄 · 번역이 안된 목차

墓誌銘 (3)

行 獻 (3)

祭 文 (3)

銘 (5)

雜 著 (2)

拾遺

詩 (1)

尺 紙 (20)

附錄

行狀, 墓誌銘, 祭文(3), 詩文(1), 輓詩(14), 詩跋, 筆帖跋, 鄉村宋先生書略(2)
靜一堂書跋, 遺稿跋

詩

敬次¹⁾尊姑只一堂²⁾韻 (丁巳)

下學須教倫
慈幼且安老
直轡從此行
自是坦坦道

1. 차운(次韻): 남이 지은 시의 운을 따서 지은 시

2. 지일당(只一堂); 정일당(靜一堂)의 시어머니인 천안(天安) 전씨(全氏). 그녀의 집안 상판은 『강제문집(剛齋文集)』에 잘 나타나 있다<卷2, 19面>. 지일당은 정일당과 마찬가지로 조선조 학문과 시문에 높은 여유분인으로 이름이 높다. 이은상(李殷相) 선생은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성문각, 1970)이란 책에서, “학문이 높고 시문에 높으면 부인을 찾는다면 고구려 어왕(饅王), 신라의 설요(薛瑤)를 비롯하여 유희준(柳希春)의 부인 송씨, 광해군의 장모, 봉원부부인(蓬原府夫人) 정씨, 난설헌(難雪軒) 하씨, 영향당(影響堂) 한씨, 지일당 전씨, 정일당 강씨, 은지당(允黎堂) 임씨같은 이름난 부인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시

존경하는 지일당 시어머님의 시에 답합니다

정사년(1798년, 26세)

배움은 모를지기 윤리를 돈독히 하는 데서 시작되니,
어린이를 자애롭게 보살피고 노인을 편안히 모셔야겠지요.
고백을 곧추잡고 이 길을 끓아간다면,
이로부터 탄탄대로가 이어질 겁니다.

原韻

春來花正盛
歲去人漸老
歎息將何爲
只要一善道

지일당의 원래 시

봄이 와 꽃은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람은 늙어만 가는구나.
단식한들 이제 무엇하리,
단지 착한 길을 쫓고자 할 뿐이다.

始課

(戊午)

三十始課讀
於學迷西東
及今須努力
庶期古人同

글 공부를 시작하며

(무오년)

서른이 되어 글을 읽기 시작하니,
배움에 동서를 가리기 어렵네.
이제라도 모금지기 노력만 하면,
옛 사람 경지에 가까워지겠네.

見書童被撻

爾能謹而慎
過罪³⁾何處從
自今便有悔
誠心復正容

서당 아이의 매맞음을 바라보며

아이야, 근신하고 삼갈 수 있겠는가?
왜, 네가 매를 맞는가?
이제 뉘우침이 생기거든,
마음을 다해 바른 몸가짐을 회복하여라.

3.과과(過罪): 죄를 꾸짖다.

山家

山中君子宅
讀書對明窓
有客從遠至
柴門⁴⁾吠老鵠⁵⁾

산골 집

산 중의 군자 집에는,
밝은 창가에서 독서를 하네.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니,
사립문가 늙은 삼살개가 짖어대네.

4.시문(柴門); 사립문.
5.喘(牻); 삼살개.

自勵

休令好日月
遊浪斷送⁶⁾虛
宜鑑不學者
枯落歎窮廬

스스로를 깨닫고자

좋은 세월들을,
유랑하여 헛되이 보냈도다
배우지 않은 이를 거울삼았다면,
영락하는 집안 탄식 뿐이었겠지.

6) 난송(懶送): 아무렇게나 보냄.

性善

人性本皆善
盡之爲聖人
欲仁仁在此
明理以誠身

근본이 착합이고나

사람의 성품은 본래 모두 선해,
그것을 다하면 성인이 된다네.
어질게 행하려 하면 바로 거기에 인이 있으니,
이치를 밝혀 몸을 성실히 하세.

呈夫子

妾愧無才德
幼年學線針
真工須自勉
衣食莫關心

남편 앞에 드리옵네

저는 재덕이 없어 부끄럽지만,
어려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참 공부에 모름지기 힘쓰시고,
먹고 입는 것 개의치 마소서.

偶吟

我乏三年艾
沈痼苦未醫
及今猶不薈
他日悔何追

한가로이 시 읊어가며

나에게 삼년 묵은 쑥이 없어,
진물이 흐르는 상처를 아직 고치지 못했도다.
지금까지도 장만해 두지 않았으니,
훗날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夜坐

(癸未)

夜久群動息

庭空皓明

方寸⁷⁾清如洗

豁然見性情

밤에 홀로 앉아

개미년(1824년, 52세)

밤 깊어 온갖 것이 고요해지니,
빈 뜰엔 달빛이 새하얗다.
마음은 셋길 듯 맑아,
홀연 성(性)과 정(情)이 드러난다.

7. 사방 한 치의 넓이. 마음은 가슴 속 사방 한 치 내에 있다고 생각해 '마음'의 뜻으로도 사용됨.

坦園

(甲申)

坦園幽且靜
端合至人居
獨探千古籍
高臥數椽廬

탄원집 둘레에서

갑신년(1825년, 53세)

탄원이 그윽하고 고요해,
단아함이 지인이 거쳐기 알맞도다.
홀로 천고의 천적을 탐구하니,
높이 누운 서까래 몇 개가 초막을 지탱하네.

贈朴仲輅(秉殷)

代夫子作

志行雖貴勤
門路須尋正
可久終成功
爲山與鑿井

박중락(병은)에게 드린 시

남편을 대신해 지음

뜻을 행함에 비록 근면이 중요하나,
학문의 길은 모름지기 바음을 찾아야 한다네.
오래 지속한다면 마침내 성공해,
산이 되고 우물이 된 것이라네.

勉諸童

汝須勤讀書
毋失少壯時
豈徒記誦已
宜與聖賢期

여러 아이들을 일깨워 봄

너희는 모름지기 열심히 책을 읽어,
젊은 시절을 첫되어 보내지 말아라.
어찌 한갓 외어 읊조리기만 할텐가?
마땅히 성현과 같아지도록 해야지.

呈夫子(2)

昔從艮齋日
求道斷無他
于今三十載
造詣果如何

남편께 드리옵네(2)

옛부터 간재선생을 쫓아,
한결같이 도를 구하였나이다.
이제 삼십 년이 되었는데,
조예가 과연 어떠한지요?

元朝敬呈夫子

(庚寅)

人苟未聞道
不死亦非慶
惟將夫子訓
一心盡誠敬

설 아침에 남편께 드리옵네

경인년(1831년, 59세)

사람이 참으로 도를 듣지 못했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경사스러울 것이 없겠지요.
오직 공자의 가르침을 쫓아,
일심으로 성(誠)과 경(敬)을 다합시다.

除庭草

小鋤理荒穢
快雨⁸⁾灑塵埃
縱愧濂翁⁹⁾意
山茅舊逕開

뜨락 풀을 뽑고서

작은 호미로 무성한 잡초를 정리하니,
단비가 흙먼지를 적셔주네.
열옹의 뜻을 못내 부끄러워 하면서도,
산속 땅집으로 난 작은 길을 다시 열었네.

8. 가을 때 오는 비

9. 북송(北宋)의 학자 주돈이(周敦頤)를 기리침. 주희는 주돈이가, "자연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열옹의 뜻을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풀을 뽑아내고 길을 만드는 필자의 인위적, 비자연적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 볼 수 있다.

示誠圭姪

先生知爾孝
以爾承兄後
願爾事先生
一如事父母

조카 성규를 타이롭

선생께서 너의 효심을 알아,
너로서 형의 뒤를 잊게 했다네.
원컨대 너는 선생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한결같이 하게나.

壬午冬，夫子示余五絕一首，勉志業之進就，余未及
仰和矣。忽然昨夜夢中，追次前韻，既悟而猶記，遂錄以
存之。

壬辰即屬臘¹⁰⁾前三日

임오년(1822년, 50세) 겨울, 남편은 나에게 오언절구 한 수
를 보여주며 학문에 계속 힘쓰도록 독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시가 떠오르지 않았다. 훌연 어젯밤 꿈속에서 그 시에 대한
답시를 썼는데, 깨어나서도 뚜렷이 기억이 나길래 그것을 기
록하여 보존한다.

임진일은 임종 3일 전임

10. 속장(屬臘): 임종을 가리킴. 숨을 거두려는 사람 고에 새 숨을 끼어 호흡의 유후
를 알아본 대서 유래된 말임.

聽秋蟬

萬木迎秋氣
蟬聲亂夕陽
沈吟感物性
林下獨彷徨

매미 소리를 듣고

온 나무에 가을 기운이 서리니,
매미소리가 저녁 하늘에 어지럽다.
물성에 감응하여 나직히 읊조리며,
숲속을 흘로 방황한다.

仰孔夫子

大哉夫子德
滄海浩無邊
嗟爾測蠡者
安知納百川

공자님 우리 끄고

크도다, 공자의 덕이여!
막막한 바다처럼 끝이 없어라.
기껏 누에나 철 줄 아는 자가,
어찌 모든 강을 받아들임을 알리오?

客來

遠人慕夫子
云自北關¹²⁾來
家貧曷飲食
惟有酒三杯

내집을 찾는 손님

먼 데 사는 사람이 남편을 앙보하여,
말하기를 북관으로부터 찾아왔다고 하네.
집이 가난해 음식이 둉났으니,
오직 술 석잔이 전부라네.

12. 북관(北關): 한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통칭.

坦闊13)前路通乎康莊14)

哀哉叔季世15)
幾人遂迷程
坦坦吾家路
願言直嚮行

변화가 보이는 내 집 탄원

슬프도다 타락한 세상이여,
길을 잃어버린 자 그 얼마나던가!
넓고 평탄한 우리 집 길이,
원컨대 고삐를 바로잡고 가는 길이 되소서.

13.정일당이 살던 집, 남편 윤광연(尹光演)의 호가 탄재(坦齋)이므로 남편의 호를 따
탄원이라 했음.

14.강장(康莊): 변화한 거리. '강'은 오거리, '장'은 유통의 거리임.

15.숙계세(叔季世):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쇠퇴하여 말래가는 시대. 일반적으로 숙세
(叔世) 또는 숙계(叔季)라 함.

謹次王舅戒吸煙草韻

惡艸不宜吸
於古未聞名
矧余王舅訓
垂後甚分明

담배피우기를 경계하신 시조부님께 답함

나쁜 풀은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옛적에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도다.
하물며 우리 시조부님의 훈계가,
이처럼 분명히 후세에 이어지고 있음에라!

偶吟

斷斷先生志
唯期學古聖
有知行必踐
應物身先正

한가로이 시 읊어가며

변하지 않는 선생의 뜻이여!
오로지 옛 성인을 배우기 바랐네.
알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고,
사물에 음함에 몸을 먼저 바르게 하셨네.

학 소리가 맑아 자식이 화옹하고,
대나무가 푸르러 손자가 생겼도다.
세월을 화살과 같아 이제 회갑에 이르니,
손님과 친구들이 모두 잔을 권하도다.
남은 여생 아직 다하지 않아,
네 필 말이 끄는 수레가 타기를 기다리도다.

贈安秀才駿甲兼示高信義(廷楨)
代夫子作

聖道如大路
古今之所由
學問非別致
向上須探求
卷中指南術
歷歷在前修
勉哉駕直轡
道域借優遊

안수재(준갑)와 고신의(정진)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성인의 도는 큰 길과 같아,
옛과 지금이 그것으로 말미암도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해 모름지기 탐구하는 것이라네.
책 속에도 나침반이 있어,
뚜렷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네.
부지런하게나 고백을 바로잡고,
도의 경계에서 모두 유유자적하세나.

除夜偶作

古聖傳斯道
人人所共由
心月印寒水
精光烟千秋
相傳一敬字
關鍵孰能抽

鷲遠徒虛勞
力進須近求
終身宜自強
望道敢遲留

설달 그믐날 읊고 나니

옛 성인이 이 도(道)를 전해,
사람마다 모두 이것을 따른다.
마음의 달이 차가운 물에 새겨져,
정채로운 빛이 천추를 피어 오르는구나.
서로 전한 경(敬)자 하나,
누구라 이 빛장을 뽑을 수 있겠는가?
멀리서 찾으려 하면 헛수고에 불과하니,
모름지기 힘써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리.
종신토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하니,
도를 바라보면서 어찌 머뭇거릴 수 있으랴?

敬呈夫子行駕

清晨灑泣送君子
去去湖山應不忘
臨行唯有_{一言告}
世事循環如彼蒼

길 떠나는 남편에게 드리는 시

이른 새벽 눈물 뿌리며 당신을 보내니,
호수나 산 어디를 가든 잊지 마소서.
떠나기 전 오직 한 말씀만 드리오니,
세상사 둘고들이 푸른 하늘 같답니다.

除夕感吟

無爲虛送好光陰
五十一年明日是
中宵¹⁶⁾悲嘆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己

설달 그믐 밤

좋은 새월 하는 일 없이 보내,
내일이면 내 나이 한 살.
밤중에 슬퍼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남은 여생 오직 내 몸을 닦을 뿐이다.

16. 중宵(中宵): 한밤중.

謹次丈席¹⁸⁾譖灘¹⁹⁾詩韻

代夫子作

寧陵²⁰⁾追泣宋夫子²¹⁾
中夜悲歌當日詩
後生莊誦春秋義
感淚頻添白髮垂

삼가 군탄님 시에 답하여

남편을 대신해 지음

영릉에서 우암선생을 추모해 눈물 흘리고,
한밤 중에 그 슬픔을 노래하도다.
후생이 장엄히 춘추대의를 읊으니,
감격의 눈물이 어지라이 뺨발을 적시도다.

18.장식(丈席):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

19.군탄(混灘): 12지(十二支)의 신(申)을 달리 일컫는 말. 아마도 성이 신씨였던 것 같음.

20.조선 효종과 그 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의 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소재.

21.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킴. 우암은 효종과 관계가 깊음. 후임은 효종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사부였으며, 왕이 된 후 같이 복별계획을 추진했고, 죽어서도 효종묘(孝宗廟)에 배향(配享)되었음.

謝海石金相公²²⁾(載贊²³⁾)惠貺新曆

代夫子作, (丙戌)

冀英²⁴⁾陽生惠及鄰
山家從此記冬春
只憂時月悠悠過
誦服良箴²⁵⁾企日新

해석님이 주신 새 달력에 감사하며

남편을 대신해 지음, 병술년(1827년, 55세)

명협에 양기가 든아 은혜가 이웃에 미치니,
산촌 집에서 그것을 따라 봄 겨울을 기록한다.
단지 유유히 흐르는 세월이 걱정스러우니,
훌륭한 경계의 글을 암송하며 나날이 새롭기를 희한다.

22.상공(相公): 제상의 존칭.

23.김재한(金載贊): 조선 춘조 때의 문신. 호는 해석(海石).『정조실록』 판찬에 참여했고, 무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음. 순조묘정(廟庭)에 배향됨.

24.冀英(彌英): 요임금 때 조정의 풀에 난 상서로운 풀 이름. 초하루부터 매일 한 잎씩 나서 자라고 일 년새로부터 매일 한 잎씩 벌어져 그쯤에 이르렀으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고 함.

25.문체의 하나. 경제로 삼는 글.

奉寄宗人東伯(聲大)

代夫子作, 辛卯 正月, 捨遺

言議常存長者風
旬宣²⁶⁾東道誦治功
棠軒無事吟詩處
嶺月川雲似畫中

종인 동백(성대)께 글 바침

남편을 대신해 지음, 신유년(1802년, 30세) 정월, 빠진 것을
훗날 보충함

말에는 항시 장자의 기풍이 있고,
동방의 도가 두루 펼쳐짐에 그 다스림을 칭송하도다.
한가할 때 팔배나무 행랑에서 시를 읊으니,
산봉우리 달과 시내같은 구름이 한 폭의 그림 같도다.

²⁶⁾순신(旬宣): 사방을 두루 다스려 왕의 명령을 퍼는 것

誠敬吟

非誠曷有
非敬曷存
唯斯二者
入道之門

성과 경을 담고 올네

성(誠)이 아니면 무엇이 있겠으며,
경(敬)이 아니면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오직 이 둘만이,
도에 드는 문이라네.

示從孫謹鎮婦

(崔氏, 權氏)

貞慤首矣

順從務焉

是婦道也

爾須勉旃

종손되는 근진의 아내에게

(최씨, 권씨)

끈음과 정성을 유품으로 삼고,

순종을 임무로 삼게나.

이것이 부녀의 도라네.

자네는 모름지기 이것에 힘쓰게나.

坦園三章

代夫子作

林居谷飲
抱書自好
前修有心
庶幾窺奧
羣疑篩塞
孰從往叩
履茲中正
坦平其道

景仄虞淵
冰雪嵯峨²⁷⁾
秣馬脂여
前路云遐
僕弱難馭

27. 카아(嵯峨): 중국 설서성에 있는 산 이름. 산이 높고 험한 모양을 가리킴.

登頓于嗟
遭此晚暮
憂傷如何

鳥嚙求羣
魚泳逐隊
節舒陽和
其樂自在
胡爲索居
終罕朋輩
願言三益²⁸⁾
勤諫吾過

28.삼익(三益): 사익우(三益友), 즉 세 가지 이로운 뱃을 말함. 삼익우란 곧 청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가리킴.

단원 삽장을 짓고

남편을 대신해 지음

숲속에 살며 계곡 물을 마시고,
책을 껴안고 스스로 좋아한다.
이전의 닦음이 마음에 있어,
오묘한 경지를 넘겨다 볼만하다.
의문은 많으나 서적이 없으니,
누구를 쫓아가 물어볼꼬?
여기서 중정함을 실천하면서,
그 도를 넓고 평坦히 하리라.

햇살이 기운 황흔녁,
빙설에 묵힌 산이 높고 힘하다.
말을 먹이고 굴대에 기름을 치지만,
앞길은 구름처럼 멀고 멀다.
마부가 약해 마차를 몰기 어려우니,
그 힘든 오르막 내리막길이여!
늦으막에 이런 길을 만났으니,
근신과 걱정이 어떠하겠는가?

새는 지저귀며 무리를 찾고,
고기는 해엄쳐 대열을 쫓는다.
계절이 풀려 따뜻해지니,
그 즐거움이 자재롭다.

멀리 떨어져 홀로 있으니,
마침내 친구들도 뜯해졌다.
원컨대 세 가지 이로운 벗이 있어,
내 허물을 근신하고 경계했으면 한다네.

銘29)

筆笛

遠琴材皮
文房良友
贈篤不忘

29) 금식이나 기물(器物)에 새겨 그 사람의 공덕을 기려 후세 자손에게 보이거나, 경계의 글을 새겨 조식으로 만성하는 자료로 삼는 글.

蛩통

거문고로 적합치 못한 시령의 재질이나,
문방의 좋은 친구라네.
돈독한 마음으로 보내지 부디 잊지 말게나.

案

肘不離此
功以歲計
如對嚴師
終日敬畏

책상

팔꿈치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니,
그 꿈으로 한 평생을 도모하도다.
엄한 스승을 대하듯 하여,
종일 경외하도다.

硯匣

鈍爲體藏之密
須點檢無汗缺

벼루

둔탁하나 몸체를 은밀히 저장하니,
모름지기 결함이 없도록 점검하게나.

扇

月在手風滿袖

부채

달이 손에 있어 소매에 바람이 가득 차다.

짧은 글

강취여(일회)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아우분을 통해 직접 전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읽고 나서 새롭게 마음을 다듬고 행동을 삼가고 있으니 비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듣기로 최근 공복(功服)의 상(喪)을 당하셨다고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다 하니 단지 경악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황을 보아 제가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야 할텐데, 몸은 병들고 거기다 집사람까지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니 단지 한없이 걱정만 앞설 뿐입니다. 듣기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 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니 반드시 집안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보름지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공부에 취미를 잊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8촌 형제들(참봉인 성희와 운희)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평소 효성이 치극하고 신의가 두터워 범인과 크게 다르며, 위인이 절도가 있으니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 스승의 가르침을 구할 필요없이 아이로 하여금 이들 사이에서 가르침이 몸에 절로 배이게 한다면 어찌 가깝고도 편안하며 또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늦가을엔 봉기(奉企)라는 역왕(歷枉)의 철기가 있어 이 때가 되면 제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의가 아니나 집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했으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진 7월 19일

아우 드림

29) 모(某): 자기의 결정.

與宗中書

代夫子作

霜寒比緊，伏惟収體候³⁰⁾，萬衛伏訴。無任區區³¹⁾宗下，身恙經秋，尚不得快蘇。私問何狀就白，宗下家曾修本派譜牒。祖先事蹟及子孫名錄，十分詳細，經始有年矣。甲子歲，云恩津宗人，名允行者，來見屢次，自願於修單之任，故信而無疑矣。未幾³²⁾，持單本序文與若干單子而去。屢月後始聞之，則私自印出，故推見其所謂印本，則昭穆³³⁾紊亂，嫡庶混淆，其他註誤³⁴⁾，無所不至。此不過渠以鄉曲³⁵⁾無識者，滋生冒託之心，有此罔測之舉。今番詳役，又恐此人來蠱，致有見欺之弊。若然則宗中嚴斥勿受，且懲前罪至仰，至仰先事之慮，有不敢不然者，委此書告耳。餘不備³⁶⁾。伏惟愈下察。

甲戌 菊月³⁷⁾望日³⁸⁾，宗下某拜。

30) 체후(體候); 한부를 물을 때 쓰는 말.

31) 구구(區區); 작은 모양.

32) 미기(未幾); 오래지 않아.

33) 소목(昭穆); 종묘나 사적에 선주를 모시는 차례。시조(始祖)를 가운데 모시고, 그 원쪽 줄을 소(昭), 오른쪽 줄을 목(穆)이라 하는데, 2, 4, 6세를 소에, 3, 5, 7세를 목에 모실.

34) 채오(註誤); 속여서 미혹되게 씁.

35) 향곡(鄉曲); 시골, 백촌.

36) 불비(不備); 허지 끝에 쓰는 말로서 의미는 계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뜻임.

37) 국월(菊月); 음력 9월.

38) 망일(望日); 음력 15일.

문중에 드리는 글 남편을 대신해 지음

날씨가 점차 차가워집니다. 문중 여러 어른들께서도 다들 편안하신지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잘못됨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변변치 못한 이 몸은 아직 완쾌되지 못해 아픈 몸으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일찍이 본파의 족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사적과 자손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몇 년에 걸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년, 은진에 산다고 하는 윤행이라는 문중 사람이 몇 차례나 찾아와 명단을 정리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책의 서문과 명단 일부를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 들으니, 그 책을 자신이 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인쇄본이라는 것을 보았더니, 소목이 문관하고 책서가 뒤섞여 있었으며, 기타 사람을 속이고 미혹시킴이 구석구석 이르지 않은 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벼촌의 무식자에 불과한데도 제멋대로 자기 이름을 붙여 보려는 마음에서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족보를 만드는 일에 이 사람이 찾아가 혼방을 놓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중에서 엄하게 배척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죄도 엄하게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일을 엄하게 꾸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디 여러 어른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년(1815) 9월 15일(음력)
문중인 광연 올림

與宗人光周書

代夫子作

歲暮雪深，瞻往良勤。卽惟啓居清，重慰泝無已。宗末坯³⁹⁾塾，吟荷頓无好況，祇用自憐尊三世⁴⁰⁾文字，今始構呈，而不但非其人，而已體製蕪⁴¹⁾，拙不能發揮幽光，第⁴²⁾難於遠孤盛意⁴³⁾，有此僭妄之舉，竦愧交中，无以爲諭。餘病倩，不宜書儀，就希照亮。

乙亥 酉日⁴⁴⁾，宗末某拜。

종인(宗人) 광주께 드립

한 해도 저물어 눈이 쌓여만 갑니다. 한 해를 돌아가며 부지런히 노력하시어 깨끗이 살아가고 있으시겠지요? 무디 멸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 밤에 침거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3세의 문자만을 아끼고 존중해 이제 짹재구성해서 그 모습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질이 부족하고 몸도 성하지 못해 그 속에 숨어있는 빛을 제대로 드러낼

39) 배(坯): 배(坯)와 같은 뜻.

40) 삼세(三世): 조부, 부, 자의 삼대. 『춘추』에서는 나와 아버지의 세상<보는 바의 세상>, 조부 때 세상<들은 바의 세상>, 중조 고조 때의 세상<천해들은 바의 세상>을 가리키기도 함.

41) 짹재(製薦): 짹(製)은 풍재, 무(薦)는 어지러워질. 따라서 짹재란 몸이 병들어 초췌해진 것을 말함.

42) 계(第): 단지.

43) 성의(盛意): 고마운 뜻.

44) 날일(臘日): 둔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戊日).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태조 이후 둔지 이후 셋째 미일(未日)로 경했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고마우신 뜻을 차마 어기기 힘들어 이렇게
말령되어 시도를 해 보았지만 두렵고 부끄러워 무언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해 글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해년(1816) 날일 광연 을립.

與宗人釜山之謙

代夫子作

省禮⁴⁵。頃者⁴⁶半局⁴⁷晉晤⁴⁸。迄肅伏慰襄奉⁴⁹。問已過行。仰惟孝思
靡逮之痛。何以堪抑? 積日⁵⁰勞攘之。餘風日又此愆常哀。棣侍竟動
止⁵¹支衡。訴念不能暫弛。宗末宿病。垂感日事。呻⁵²夙悶苦。何諭下
詢禮疑歸考。尤翁⁵³說。則聞訃在亡月則只計月數。而行練詳⁵⁴於亡日。
又曰。喪服當從聞訃日。計之成服。雖後於聞訃。數月之後。亦不可據此
爲斷。先正說既如是明白。遂用似無疑矣。餘不備。疏儀。

45) 省禮(省禮): 예절을 줄인다는 뜻으로 상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46) 경자(頃者): 지난 번.

47) 반황(半局): 반나절.

48) 진오(晉晤): 가서 만나다.

49) 양봉(襄奉): 장례를 모실.

50) 적입(積日): 연일.

51) 동지(動止): 행동거지.

52) 신(呻): 끙끙거리다.

53) 우옹(尤翁): 우암 송시열.

54) 연상(練詳): 소상(小詳). 죽은 뒤 1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부산의 종인(宗人) 겸(謙)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번 반나절이나 짧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조문을 해야 하니 잠깐 사이 이미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러러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연일 애써 떨쳐보려 하지만 나날이 다시 되살아나 항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태연히 제사지내고 행동거지를 가다듬어 보려 하지만 잠시도 옛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고질병에다 일상사에 시달리다 보니 끙끙거리며 누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 어찌 물어보신 상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이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암 선생의 설에 의하면, 돌아가신 달에 부고를 들으면 단지 달수만 계산해 돌아가신 날에 소상(小祥)을 지내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상복은 마땅히 무고를 들은 날로부터 계산해 입어야 하며 비록 후에 무고를 들었을지라도, 설사 몇 달 뒤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옛 사람의 관점이 이처럼 명백하니 쫓아 따르는 테 의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총총 출입니다.

與豊川宗人澤霖

代夫子作

世換適半，信息仍阻。悵⁵⁵仰懷思，曷⁵⁶惟其已？此際漸熟，靜中動用，
諸節一向，憂重遠泝，不容區區。宗末宿病，頗作振刷⁵⁷，無期自顧，憫
憐每念。效宗氏相愛之誼，一次委進，穩敘情話，兼作名區，壯遊⁵⁸之
學，初擬今春發程矣，身恙馬瘧⁵⁹，此計竟違。更以秋冬閒遐期，而仲
秋科時，那中少年，如有入洛⁶⁰之便，相報動靜，如何？餘官遞甚速，
姑此不備，伏惟照亮。

풍천에 있는 종인(宗人) 택림께 드림

남편을 대신해 지음

해가 바뀌어 반이나 지났건만 그 동안 소식이 막혔으니, 냅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있어, 모든 철후가 한 방향으로 도도히
흘러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묵은 병이 자주 다시

55) 悵(悵): 슬퍼하다.

56) 曷(曷): 어찌 … 하지 않겠는가. “何不…”의 뜻과 같음.

57) 전쇄(振刷): 벌치고 일어남.

58) 장유(壯遊): 큰 뜻을 품고 멀리 노닐.

59) 도(瘧): 앓다.

60) 입락(入洛): 도읍으로 들어감. ‘락(洛)’은 후한(後漢)의 수도였던 낙양(洛陽)을 가르키는 것으로, 여기서 유대되어 일반적으로 입경(入京)의 의미로 사용됨.

들고 일어나 스스로 되돌아볼 틈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 문중 분들과의 친목을 위해 한 차례 찾아뵙고 정답을 나누며, 겸하여 이름난 곳을 찾아 노닐고 싶습니다. 처음엔 이번 봄쯤에 출발할까 생각했는데 몸도 아프고 말도 시름시름해 끝내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가을이나 겨울의 한가한 때로 미루었으니, 그 곳 소년 중 충주파시에 옹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관제(官遞) 시간이 촉박하여 이만 총총 줄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上舅氏權烏齋(中寶)慰書

年條未考, 疑甲子季秋

便稀路遠, 音候漠然。常用蒸鬱, 作冬就如回。伏承覆札, 始聞叔母主下世之報, 驚懼⁽¹⁾何言? 春秋殊不至篤老⁽²⁾, 幸時筋力亦云康旺, 私情冀望, 必躋遐壽⁽³⁾之域。豈意今者遽承凶音耶!

伏想, 叔主罹折⁽⁴⁾悲痛之懷, 必難寬抑, 兒小失恃呼號⁽⁵⁾之狀, 有若目睹, 尤覺慘毒, 不忍忘食息之間矣。雖欲專人啞⁽⁶⁾候, 以伸舅甥⁽⁷⁾至切之情, 而近來殘疾, 犹無暇日, 且拘於形勢之不逮, 若覲越人每切自訟,

61) 풍(憊): 서럽게 옳다.

62) 육묘(篤老): 몸서 나이가 많음.

63) 하수(遐壽): 오래 산다. (=遐年).

64) 좌절(摧折): 끊고 부리드란.

65) 호호(呼號): 부르짖음.

66) 언(恩): 위문하다. 좋은 사람에 대한 칭분을 '언(恩)'라 하고 산 사람에 대한 위로를 언(恩)이라 함.

67) 구생(舅甥): 외숙(外叔)과 생질(甥姪).

而不勝悲念之忱。夏初因致興，繼聞第二從喪報，慘矣慘矣！
以渠⁶⁸強壯完厚之質，以叔主慈諶深仁之德，未蒙其澤，有此夢外之變，
疊出於一暮⁶⁹之內，不知者壽也，亦理也。召禍之荐⁷⁰酷，胡至於斯。
連年遭變，雖家計之稍饒⁷¹者，似無宿庇之需，而况絕峽窮家，初終襄
禮⁷²，其何以及期拮据喪威之。餘凡百必無統緒，且叔主頻見，此不忍
見之境，自愛保重之道，應失其宜念。至於斯，節節悲結，而釅源矣。甥
女身病，漸痼外庭，亦以宿證，長時欠愆，其佗計活之觀，去而益甚。月
前遭兒餌侍下，情理何忍捉連。臺譽⁷³所懷，殊不止此，而書不敢盡。
伏祝氣體萬安，不備白。

외숙 권오재(중보)의 별세를 위로하는 글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갑자년(1806) 놀가을쯤일 것임

소식이 드문데다 길도 멀어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해 했습니다.
지난 겨울 쥐여 오라버니가 돌아왔을 때 보내주신 편지를 보았는데, 그 때 비로소 외숙께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놀림과 슬픔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고 평소 기력도 왕성하시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장수하시리라 여겼는데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줄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건대, 숙부님에 대한 비통한 감정은 억제하기 힘들 것이며, 아

68) 거(渠): 그, 그 사람, 기(其)의 뜻으로 사용됨.

69) 일기(一基): 일주년.

70) 천(荐): 기독하다.

71) 眥(饒): 너그함.

72) 양례(襄禮): 상례(喪禮).

73) 태미(泰美): 열심히 노력하는 모양, 달리는 모양.

이들이 울부짖는 모습도 눈에 선해 그 친답함이 참시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비록 위로의 말씀으로 생활간의 지극한 정을 표하고 싶어도, 근래 병이 다시 도져 거의 봄이 나질 않고, 거기다 형편도 여의치 않아 마치 월나라 사람이 자신을 매번 질책하는 것처럼 비통한 감을 누를 수 없습니다. 초여름에는 치홍을 통해 다시 둘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혹합니다! 정말로 참혹합니다!

그 건강하고 독실한 자질에다, 숙부님의 자상하고도 어지디 어진 덕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일 년도 안 되어 다시 이런 뜬밖의 참상을 당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요 또 하늘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참혹한 화가 어찌 이처럼 거듭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매해마다 변을 당하니 비록 가게가 너너하다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하물며 쫓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치르는 상례가 어찌 제 격식인들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도무지 두서가 없을 텐데 거기다 숙부님의 제사까지 같이 모셔야 하니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보중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슬픔이 마디마디 맺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저의 병도 점차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오랫동안 낫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기타 생활의 어려움은 잘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달포 전에 아이가 서럽게 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합니다만 글로는 감히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빕겠습니다. 이만 총총 출입니다.

上夫子書<庚寅 冬>

伏問，夜間憤候，比昨何如？自懷還次後，竊欲從頌有所仰述。而非但
賤疾纏駁，神精眩瞀，竊慮撻頓之餘，致有勞損，且鎮日客撓，未暇稟
質，今朝則身恙稍間，賓客已散，適有酒饌，恭俟晨靄後，仍為進饌，隨
卽拜陣矣。日已晌午，尚無沃盥之命，伏想，體內愆和，猶未復常。伏處
萬萬窃聞，今番箇門之行，受來非禮勿視聽言動者，將以刻揭書，室伏
切喜幸。此四句，孔聖所以答顏子，而顏子所以終身請事進於聖人者也。

且王舅府君⁷⁴⁾，嘗書此自勉，以教後人。伏願，夫子仰孔顏傳受之重，
念先世箴戒之至，承師門勉勵之意，日夜靡懈，常目在是。夫己者，吾心
所好不合，天理之謂禮者，天理之節文，必先明其何者禮何者非禮。然
後勇斷己私，一從天理，則可至於道矣。敢以此仰勉，餘在拜時續稟，不
備。

남편께 드리는 글

경인년(1831) 겨울

참가 물습니다. 간밤은 어떠했습니까? 어제보다 몸은 좀 나아진
것 같은가요? 제 생각에는 당신의 몸이 좀 나아지면 아파고 싶은
것을 글로 지어 보려고 했는데, 제 병이 다시 도져 어지러워 넘어
질 것 같은 데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거기다 온 종일 손님들
뒤치닥거리를 하다 보니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몸

74) 부군(府君): 죽은 바깥 조상에 대한 존칭.

도 한결 나아지고 손님도 다 돌아가신 테다 마침 술과 안주도 좋았고 해서 아침문안을 기다렸다가 상을 차려들고 들어가 당신을 마주 뵈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직 세수 준비를 하란 말씀도 없으시니, 생각건대 아직 품이 회복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이번에 선생님을 꿈고 오시면서 “비례물시청언동(非禮勿觀聽言動)”이란 글귀를 얻어 그것을 새겨 걸려고 한다 하니,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 구절은 안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으로서, 안자가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평생 힘 쓸 바가 무엇인가를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더욱이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서도 일찍이 이 구절로써 스스로 힘쓰시고 또 후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은 곱자께서 안자에게 전한 이 귀중한 말씀을 받들고, 선조께서 지극한 결계의 말씀으로 삼은 것을 생각하시고, 또 스승께서 힘 쓸 것을 당부하신 뜻을 이어, 빛낮으로 해이함이 없이 이것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무릇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과 합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리를 혜라고 하는 것은 천리의 절문(節文)이니, 반드시 먼저 어떤 것이 혜이고 어떤 것이 혜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사적인 마음을 과감히 끌고 오직 천리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히 이로써 당신께서 좀 더 힘쓸 것을 권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만날 때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尺牘

上夫子尺牘

今朝一老婆，來獻斗米斤肉。問其故，對曰，向出郊外，被敲於无相漢，適值夫子之過，泣訴馬前。夫子嚴辭諭之，遂得免焉。感恩實深，故獻此表誠云云。時間，外堂有客，不敢煩達。自內還授。則老婆執堅不肯，故謂之曰，“夫子嘗七日絕粒，而卻千金之賂，今豈受故之物乎？”老婆歎息，方持米肉還去耳。彼雖以誠意來獻，而我若受之，則有沾惠之嫌，故如是處之，未知如何。

편지

오늘 아침 할머니 한 분이 쌀과 고기를 들고 찾아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으니, 할머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마을 바깥으로 나가다가 무괴한에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당신이 지나가길래 말을 불들고 울면서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 무괴한을 엄한 어조로 타일렀는데, 그 덕분에 봉변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돼 쌀과 고기로 성의를 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때 마침 바깥채에 손님이 있는 기척이길래 감히 번거롭게 할 수 없어 제가 그걸 되돌려 주려 했더니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깥여론은 이전에 7일을 꼬박 굽고서도 천금의 재화를 거절했는데 이제 아찌 할머니가 가져온 것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탄식하면서 쌀과 고기를 갖고 되돌아갔습니다. 비록 성의를 표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지만, 제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은혜를 판 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俄者似聞，自城內還罵，歷入某家，果然否？此雖士夫家，今方賣酒，夫子之與客歷訪，固出偶然，而安知外人不謂沽飲也？古人詩云，“君子防未然，不處嫌疑間。”可不警惕耶？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성내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집에 들르곤 한다는데 과연 그런지요? 그 집은 비록 사대부 집안이지만 이제는 술도 판답니다. 당신이 손님과 함께 들른 것은 정말 우연이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술을 팔러 다닌다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 사람의 시에도,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니, 의심 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今將進飯，願不介意而盡之也。今日家衆，所食均贈，請無慮焉，設或不聽，君子不必屑屑於飯匙之間事也。

이제 전지를 차려 드릴 테니 원컨대 개의치 마시고 다 드십시오. 오늘 집안식구가 많으나 맥을 것이 넉넉히 돌아가니 부디 걱정하지 마소서. 설혹 넉넉치 못 하다 하더라도 군자가 기껏 먹는 것을 가지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俄聞，夫子責人，聲氣過厲，此非中道也。如是而設或正其人，已先不正，其可乎？願加審思。

얼핏 들으니, 당신이 사람을 나무랄 때 목소리가 너무 거칠군요. 그것은 종용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설혹 사람을 바로잡으려 한들 자신이 먼저 바르지 못하니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원컨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綱庵(晋淵), “存心不放，循理无違”八字，與洪洗馬(直弼)，“以實心，行實事”之語，相爲表裏，而李彞高(義勝)戒子書，“善莫大於改過。惡莫大於欺心。養福莫如寬。速禍莫如忿”四句，非但戒子而已，實君子所當警省者，顧夫子益自勉戒，余參議⁷⁵⁾(漢卿，號著庵)，李都正⁷⁶⁾(廷仁，號四事堂)，俱以八畫⁷⁷⁾長老，速地屢顯，此豈爲尋常顏分而然哉？愛夫子之學行，而有所期待也。顧修吾之實而副人之望。

이경암(진연)의 “存心不放，循理无違<마음을 보존하여 발종하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따라 어기지 않는다>”는 여덟 글자는 홍세마(직弼)의 “以實心，行實事<알찬 마음으로 실제적인 일을 행한다>”는 말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양화(의성)가 아들에게 경계하도록 한 “善莫大於改過，惡莫大於欺心，養福莫如寬，速禍莫如忿<선은 허물을 고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은 마음을 속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복을 기르는 데는 관용보다 더한 것이 없고, 화를 재촉하는 데는 성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이라는 네 구절은 비단 자식을 경계한 말일 뿐 아니라 실로 군자가 마땅히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바이니 원컨대 당신께선 더욱 스스로 경계

75) 육조(六曹)에 딸린 경상품 벼슬.

76) 도경(都正)；조선시대 종친부, 든령부, 춘현원의 경상품 당상관 벼슬.

77) 팔칠(八畫)；팔순.

하고 힘쓰소서. 유팅의(한휴, 호 저암), 이도정(정인, 호 사사당)은 모두 팔순의 노인들로서 면길을 마다 않고 자주 들려보는 것이 어찌 보통의 인사치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학문과 행실을 사랑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자신을 충실히 닦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소서.

日昏不可行。夫子何不思朴其齋(宗傳)言乎?

易曰，“節飲食酒”，是飲食中一大端。顧夫子節飲而慎德。俄以何事切責，某人或不幾於過中之責耶？聲色言語，君子尤當用功處。詩云“溫恭人，惟德之基”。夫子責人時，頗少溫和之氣，敢以仰告。

날이 저물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왜 박기제(종전)의 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역경』에 이르기를, “음식과 술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 하나의 큰 근본입니다. 원컨대 당신은 술을 절제해 만사에 신중히 대처하소서. 갑자기 무슨 일로 사람을 나무랄 때라도 혹 정도에 벗어난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말투는 군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바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을 공손히 대하는 것이 덕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나무랄 때 온화한 기색이 적은 것 같아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望須視所以，觀所由，察所安，如孔夫子之教，而徐徐參驗，庶可知矣。且夫求爲人師則妄矣。若格致誠正之功，日新於己，而自然及人，非我求之童蒙。求我則亦何嫌於好爲人師耶？愚見如是，請更剖示。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 감히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각기 취할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공윤식은 옛 성인의 후예로서 순수하고 성실한 자질이 있다”, “조인식은 송산(松山)의 후예로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다”, “박병은 소박하고 성실하며 옛 것을 풍시한다”, “임도철은 화평하고 즐거우며 윤리를 사랑한다”, “황호순은 추포(秋浦)와 지소(芝所)의 충효를 이어받았다”, “이경현은 귀천 직재(直齋) 도학의 후예이다”, “권도인, 강기영은 친인척이 훌륭하다”, “임달윤, 김옹수는 멀리서 찾아온 성의가 훌륭하다” 등입니다. 생각건대 당신께서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더라도 괜찮다 생각해 하물을 그냥 덮어두는 것은 아닌지요? 어찌 한 가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자혜로운 것이니, 그것은 상제도 어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의견이 성인에도 이르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름지기 그 까닭을 보고, 그 말미암은 바를 살피며, 그 편안해 하는 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대로 행하다 보면 서서히 얻는 바가 있어, 거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만약 격물致知(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의 공부가 나날이 세워진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내가 나서서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하기에 이른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이러하니 청컨대 더욱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我有實德，人雖不知，何損焉？我無實德，雖有虛譽，何益焉？有玉於此，人謂之石，而無損於玉。有石於此，人謂之玉，而無益於石。顯夫子務實德，上不愧于天，下不怍于地，無恤乎人之知不知也。

나에게 참된 덕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어찌 훼손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참된 덕이 없다면 비록 헛된 명예가 있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옥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돌멩이라 해도 옥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돌멩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옥이라 해도 돌멩이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원컨대 당신께서는 참된 덕을 기르는 데 힘써, 위로는 하늘에 부끄럼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부끄럼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것에는 개의치 마소서.

君子處世，消長之理，事物之變，所當推究者也。山天齋(金鑑⁸⁴)，相岳號)之易學，八年堂(沈處士⁸⁵)，櫟號)之數論，其義精，其說詳，苟能

84) 간역(監役): 간역관의 준말. 조선시대 선공감(膳工監)에 소속되어 도록이나 건축공사를 감독한 중구분 벼슬.

85) 치사(處士): 벼슬을 하지 않고 솔어사는 선비.

善學，則斯可知要矣。鵲山公(尹承旨⁸⁶)，濟弘號)詩韻清穩，青翰子(李監役，觀夏號)文辭贍博，夫陶情抒感，達意導志，是亦儒者之所不可無也。請於究會六經之暇，時時從事焉。權童子(用鋗)從兄(用稷)，弟之來，果有直針之教耶？來者固不當拒，況其父兄，有勤托自家⁸⁷，有實心者耶？且隨其人而教之，如洪三隱(義叟號)，趙子安(仁鋗)，有誠孝之心，則易教以事親之道。張仲深(潤)，有仁厚之姿，則易就其及人之善。舉此二者，餘皆可推矣。

글자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소장(消長)의 이치와 사물의 변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천재(김간역, 상악의 호)의 역학이나 팔년당(심처사 류의 호)의 수론(數論)은 뜻이 정차하고 설명이 상세해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산공(윤승지 제홍의 호)의 시는 맑고 평온하며, 청한자(이감역 관하의 호)의 문장은 네넉하고 해박합니다. 무릇 감정을 도야해 그것을 풀어내고, 올바른 생각으로 뜻을 이끄는 것 역시 유학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육경을 공부하면서 틈틈이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권돌자(용석)의 사촌형은 동생이 찾아오면 정수리에 침을 놓는 듯한 가르침을 행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야 거절할 수는 없겠지요. 하물며 그 부형이 삼가 자신에게 말겼고 또 성실한 마음도 갖추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의 짐짓이에 따라 가르쳐십시오. 예를 들어 홍삼은(의섭의 호), 조자안(인석)은 참된 효심이 있으므로 부모 섬기는 도를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며, 장중심(연)은 어질고 후덕함이 있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들어보면 나마지도 모두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86) 왕명을 전하던 벼슬.

87) 자가(自家); 자기.

下示或說云云，謹悉⁸⁸⁾蓋畫像與神主不同，不必宗子主之，爲子孫者，皆當守之。苟有德而人所瞻仰者，則門生後學，亦當奉安。而以時瞻謁，况其子孫乎？金富平，素以純孝之姿，出後於宗家，而不得主祀，於本生父，則終天之痛，無地可寓，故奉文忠公畫像於別齋，每於文忠碑辰，設茶禮省謁，以寓撫慕之誠。此實所謂，於情安，於義無損者也。

宋木川(欽成)，剛齋之胤，金上舍(炳雲)，漢湖之孫，屢次見訪，在夫子固當極意接待，而每緣艱乏，不能從心，豈勝歎咄，竊聞，兩賢竝端厚愬惻，請相對切偲以爲交勉之地，如何？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상화는 신주(神主)와는 다른 것이므로 장손이 주관할 필요가 없으며 자손된 자는 모두 응당 지나야 한다”고요. 진실로 덕을 갖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라면 문하의 제자나 후학들도 당연히 봉안하여 때가 되면 찾아뵈어야 하거늘, 하물며 자손된 자이겠습니까? 김부평은 평소 순수한 효심이 있었으나 증가의 서얼로 태어나 제사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충공의 초상화를 별채에 모셔놓고 제사 때마다 차례(茶禮)로써 성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정(情)에 편안하며, 의리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목진(홍성)은 강제의 후사이며, 김상사(병운)은 미호의 자손으로서 누차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극진히 대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매번 어렵고 궁핍해 어의치 못하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으니, 두 분은 모두 단정하고 후덕하며 마음이 너그립다 하니, 청컨대 간절하고 굳은 마음으로 사귀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88) 근실(謹悉): 편지에서 상대방의 소식 따위를 ‘삼가 알’이라는 뜻으로 쓰임.

婦人之嫉妒，甚者，至於亡人家，而絕人嗣。此不惟不識義理，亦不知利害也。夫之子即己之子。若子姓蕃衍，則爲幸何如哉？女宗言七法之道，曰，妒正爲首，淫僻，竊盜，長舌，驕侮，无子，惡病，皆在其後。然則罪莫大乎嫉妒矣。窃聞，夫子欲作女戒，以示子孫婦女，請編入妒忌一章，使讀者有所痛懲，而進於婦德如何。如何？

부인의 질투는 심한 경우 집안을 망하게 하고 후사를 끊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리를 알지 못해서일 뿐 아니라,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자식은 곧 자기 자식입니다. 자식이 많다면 그만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종(女宗)에서는 일곱 가지 범도를 말하는데, 그 중 질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음벽, 절도, 말이 많은 것, 교만하고 잘보는 것, 자식이 없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은 모두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질투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당신께서 여계(女戒)를 지어 집안 부녀자들에게 교훈으로 삼도록 하신다면요? 청천대 그 속에 투기의 장을 넣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심각히 그것을 깨닫게 하여 부덕을 기르게 했으면 하는데, 어찌나지요?

某富人，而勸酒三杯，无乃過歟。鈴原(尹參判 行直)老矣，渴澀間未及接待，似爲欠事。此雖小節，不可不量處也。

저는 다른 사람이 넉넉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 삼배를 권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지나쳤나 봅니다. 영원(윤참판 행직)은 연세가 많아

국만 가지고는 대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李雅(蕃英)之保族，守家，奉先，接賓，各有次第，果如下示。請益爲交勉，克成友道之美。

이아(시영)가 가족을 보호하고 칩안을 지키며,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과연 모두 가르쳐진 대로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청컨대 여기에 대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明夫(炳應)，居在鄉谷，雖傍無師友，而猶自篤學，每見其上夫子書，昧學之實。蕭然溢於辭，表殊甚欽歎。請盡意答之，使得益勉進就也。

이명부(병덕)는 시골 골짜기에 살면서, 주위에 스승이나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번 당신께 올린 편지를 볼 때마다 구절구절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쳐 흘러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상세히 답을 해 주시어 더욱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父子一體也。父當慈而子當孝。請夫子於欽圭，更加慈愛。弟子之於師，視之猶父。師之於弟子，視之猶子，古道也。請夫子雖泛愛，而擇其誠心向上者，可愛而篤教，俾有成就，如何？

어버이와 자식은 한 몸으로서, 어버이는 마땅히 자애롭고 자식은 마땅히 효성스러워야 합니다. 청컨대 흠큐에 대해 더욱 자애롭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스승을 어버이처럼 보며, 스승은 제자를 아들처럼 보는 것이 옛 도리입니다. 청컨대 비록 돈독히 사랑하신다 해도, 그 성실한 마음과 향상될 수 있는 바를 찾아 사랑으로 돌려해 주시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深衣^四，雖是通吉凶之服，而弔時，古有弔服，今有素服，則不必著黑緣彩帶而弔之。故剛齋先生，有此深衣弔哭，恐似未穩之教也。

심의는 비록 길사와 흠사에 모두 입는 옷이지만, 조문시 옛날에는 조복이, 지금은 소복이 있으므로 검은 단의에 색깔 있는 허리띠를 착용하고 조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강재선생께서는 심의를 입고 조곡(弔哭)하는 것이 평온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89) 심의(深衣)：이전에 높은 선비가 입던 웃옷，대개 흰 빼로 두루마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사를 들렸음。

幅巾，雖非古制，而朱子著于家禮，則臨祭之著，似愈於笠子⁹⁰也。綠衣，士妻之服，而其色純黑，忌祀時著此，似未穩。姑從魯庵（其齋一號）家，素綠衣之制，而但未有所考慮，如何？

복건이 비록 옛 제도는 아니지만 주자는 가례에서 이것을 쓰도록 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것을 쓰는 것이 갖을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단의는 선비의 차가 입는 옷으로 순흑색인데 기제사 때 이것을 입는 것은 평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종사촌인 노암(기재의 또 다른 호)의 집에서는 이전부터 단의를 입도록 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華冠者，言華人之冠也。古無是名。大明革世後，宮人之避亂來東者，著此冠，東人指以名之。然，考見禮十五而笄註，婦人無冠，以簪固其鬢而已。竊恐，冠之一字，似未安。請易以笄字，如何？

화관이란 화인의 관으로서 옛날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자 궁인들이 난을 피해 동쪽으로 오면서 이것을 쓰고 왔는데, 동쪽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불안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 15조의 비녀에 대한 주석에서는, 부인은 관이 없이 비녀로써 상투를 고정시킨다고 했는데, 저 생각은 '관(冠)'자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笄:비녀)'자로 고치는 것이 어떨까요?

⁹⁰ 임자(笠子): 갓.

戒懼。是未發時工夫，而慎之於已發。人不知已，獨知之際，最為緊要處。近日襄證轉甚，精神益耗，未及於忙工夫，而惟用力於此，不無微效。亦願夫子，實心體認。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공부로서 이미 드러났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나 스스로는 알고 있을 때가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최근 몸이 더욱 쇠약해지고 정신도 이전 같지 않아 다른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험험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참 마음으로 이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年前，李梧軒(參判，愚在)燕行⁹¹時，託子于夫子，夫子固辭。因推讓于老洲(吳進善，熙常)，日昨數十章甫，自鄉赴舉，聞夫子之名，相率贊見⁹²，且餞遺⁹³甚多。夫子堅讓不受右數事，果皆善處矣。一則吾無及人之德，而不可遽承盛託，一則未諳誠意之如何，不可遽受饋幣。此雖與前日仰達者，有若矛盾，而但於事理，有彼此之殊矣(前日仰達，指伏承下示條也)。

몇 해 전 이오현(참판, 우재)께서 사신으로 북경에 가면서 차식을 당신께 맡겼을 때, 당신은 한사코 사양하면서 노주(오진선, 회상)를 추천해 그에게 양보했습니다. 어제 수십 명의 선비들이 시끌에

91) 연행(燕行); 사신으로 중국 북경에 가는 것.

92) 지현(贊見); 선물을 가지고 가서 봉.

93) 궤유(餞遺); 거제 보내 줌.

서 올라왔는데, 당신의 이름을 듣고 예물을 들고 만나보려 했습니다. 또 그자 보내 준 예물도 아주 많았습니다. 당신께서 이들을 굳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연 모두 잘 처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 만한 덕이 없어 고마운 부탁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예물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모순되는 듯하지만, 사리를 따져본다면 이번 일과 전번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이전에 말씀드렸다는 것은 “복승하시(伏承下示)”조를 가리킴).

伏問。宵回怎度若何？風雪晶臘⁹⁴⁾，突冷如冰，恐致添患矣。月前，謹籠拾園栗棟，其大者升許，及切肉數片，持而來獻，故受置矣。今出而視之，栗則半爲鼠耗，肉則敗矣。刀括水洗，燉燼⁹⁵⁾于爐火，仍以紙價兩葉銅，沽酒而溫之以進。此物雖細，無忘所由來之艱如何。少若瘳飢旋，即開卷无或流失光陰。千万伏視，謹孫雖質勝而欠於中行，然，猶勝於文勝而減質矣。此兒，口有所諾，必踐其言。奉先守家，可恃此兒，而堂內无出其右者矣。幸望引而教之，使得成就焉。且此兒幼而失母，祖母又性嚴，常視夫子與我，猶其父母。十里江郊⁹⁶⁾，不避風雨寒暑，裹齧糗糧⁹⁷⁾，夙宵來侍，念其形容，番番零涕矣。此兒小或有過，詳細開諭，切勿外視，如何？

94) 비화(晶臘): 힘쓰는 모양.

95) 희신(燉燼): 타고 낸 음식.

96) 강교(江郊): 끝이 있는 교외.

97) 구름(糗糧): 말린 밥, 코드밥.

어제 저녁 병세는 어땠는지요? 눈바람이 휘몰아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에 혹 병세가 악화되지 않았나 걱정했습니다. 단포 전 근진이 과원(果園)에서 밥을 따, 그 중 알이 굽은 것 한 되쯤과 고기 몇 덩이를 가져왔길래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끼니 보니 밥은 반쯤이나 쥐가 쓸고 고기는 상해 있었습니다. 칼로 깎아내고 물로 씻은 뒤 화로에 구웠다가 종이값으로 받은 동전 두닢으로 술을 사다 태워서 같이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어렵게 마련된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출할 때 드시면 행여 책을 보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축하할 만한 것은, 근진이 비록 질(質)이 앞서 중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문(文)이 앞서 질(質)을 해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입으로 승낙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니,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지키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아이보다 더 나은 아이가 없습니다. 바라간대 이끌고 가르쳐 성취를 얻을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는 또 어려서 부모를 잃은 데다 할머니도 성격이 엄해 당신과 나를 항상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리 강변을 비바람과 즐고 더움을 피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말린 밥을 풀고 와 저녁까지 모시는데,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번번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이가 혹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상세히 일러주고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黃正言⁹⁸菱山(基天), 文詞之高妙, 余永春綺園(漢芝)篆隸之精熟, 果如下敍。而但夫子, 多病年晚, 經禮之學, 尚未融貫, 何暇學此邪? 惟望

98) 정언(正言); 조선조 사간원에 속한 벼슬. 정언은 두 명이었으며 품계는 정육
품이었음.

實心自勉，探赜六蘊之蘊奧，追步聖賢之闡域，夙夜孜孜，無負當年志，願千萬千萬。時弟(時會)早孤失學，然，能自力於奉先睦族，愛兒子如己子，誠心教導，不幸無年無兒，今似聞祈永求族子爲之后，此姪自來，誠心在此，竟能成之，奇幸奇幸！伏願，因徐一心(馨輔)便書探于上舍族兄(昌會)，從近詳聞，而教所后之兒，同於祈永，使之守家，千萬幸甚。

황정언 능산(기천) 문사(文詞)의 높고 철묘함과 유영춘 기원(한지)의 전서와 예서에 정통함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잣은 병자리에 나이도 많은 테다 경학과 예학에도 아직 통하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이 분들을 배우겠습니까? 바라건대 침마음으로 힘써 6서의 핵심을 장악하여 성현의 영역으로 쫓아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노력하시어 황년의 뜻을 버리지 않기를 천만 당부합니다. 시회 이후는 일찍이 공부할 기회를 놓쳤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조상을 모시고 친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형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 성실으로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불행히 아이가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이제 들으니 기영이 친족 중에서 후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왔다고 하니,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마침내 그것을 이루나 봅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일심(형보)이 상사인 족형(창회)에게 편지를 해서 주변의 아이들에 대해 상세히 묻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후사가 될만한 아이를 가르쳐서 기영처럼 집안을 지키게 했으며 정말 좋겠습니다.

文中子之服，儉而潔，今夫子之服，儉則儉矣，潔則未也，儉是夫子之德，至於垢汗而未潔⁹⁹⁾，綻裂而未補，妾之罪也，謹和灰初針以綻，敢請，花卉宜植於園中，而不宜植於內庭，移植于東巖月潭之間似好，而鳳仙花，所以染指甲者也，妾性不喜此，并為移出，如何？

문중자의 복장은 검소하면서도 깨끗한데, 지금 당신의 복장은 검소하긴 하지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검소한 것은 당신의 덕이지만, 때묻고 땀에 절어도 뺄지 못하고, 실밥이 타쳐도 깊지 못한 것은 저의 죄입니다. 삼가 깨끗이 뺄아 바느질 해 두겠습니다. 김희정하건대, 꽃은 정원에 심는 것이 마땅하며 내정에 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쪽 바위와 월담(月潭) 사이에 옮겨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선화는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인데, 저는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 같이 옮겨 심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某兒家，聞四不舉火，吾家則三不飲，此兒所齎不可受，況非其親之意，而棄私自持來？雖是升米分銅¹⁰⁰⁾之小，義則未安。若向來¹⁰¹⁾金童之餉，則雖是石米之多，與受既合情誼，又以親命爲之，不宜，辭也。義者，治之源也，利者，亂之樞也。聞或人日來外舍，多言利說，恐門生小子，習聞其言，浸淫然入於其中，夫子何不早遠此人？遠之之道，在乎不惡而嚴，當正衣冠尊寵視，了無非禮之言動，則彼自遠矣。

99) 한(汗)： 땀다.

100) 분동(分銅)： 천정의 한 편 거울판에 올려놓아 물건의 무게를 헤아리는 표준이 되는 수.

101) 향래(向來)： 지난번.

어떤 아이 짐은 듣기로 나흘째 불도 매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사흘째 밥을 못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가져온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 뜻도 아니고 아이 스스로 가져온 것이니 말입니다. 비록 되박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의리상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김씨네 아이가 가져왔을 때는 한 심이나 되는 많은 양이었지만, 주고받는 것이 정리에 합당하고 또 부모가 시킨 것이었기에 사양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의(義)는 다스림의 근원이고, 이(利)는 난(難)의 중추입니다. 듣기로 어떤 사람이 날마다 사랑채에 들러 이(利)를 말한다고 하는데, 문하의 아이들이 그런 말에 서서히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왜 그런 사람을 일찌감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멀리하는 방법은 미워하기보다는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의관을 청제하고 엄격히 바라보며, 예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멀어질 것입니다.

人之有仁義，猶四時之有春秋。言仁，禮在其中；言義，智在其中，恐不必疑。

사람에게 인의(仁義)가 있는 것은 사계절에 봄, 가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仁)을 말하면 예(禮)가 그 속에 있고, 의(義)를 말하면 지(智)가 그 속에 있으니,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師者，道之所在。與君父一體。尋師之行，與省親無異。則何可以牋疾停驛也？今病雖甚，未必死如夫子聞道。則雖死猶榮。巔趨駕¹⁰²或程焉。事親而私妻子，則孝不篤。事君而私妻子，則忠不盡。事師而私妻子，則學不誠。推之事事皆然。妾雖不敏，不顧夫子之私之也。假使夫子一有所私，而損於德業，則妾雖富貴寧逸，不若窮餓而死。請夫子勉之。每書字錄，呈直觸¹⁰³不遜。殊失妾婢之道。然而沈懼，軒丈（師東）嘗謂夫子有虛受之量，且妾嘗承隨事直言之數，故不敢不盡言耳。若問過而少或改，改或貳之。則終無由進德。請夫子益勉益勉。

스승은 도(道)가 있는 곳으로서 임금과 아버지와 일체입니다. 스승을 찾아 뵙는 것은 어버이를 뵙는 것과 다름없으니, 어찌 제 병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지금 병세가 심하긴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께서 도를 듣는다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도리어 영광이니. 원천대 급히 탈것을 준비시켜 길 미남 차비를 차리소서. 무모를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효(孝)가 돈독하지 못할 것이요, 임금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스승을 섬기면서 사사로이 처자를 생각한다면 배움이 성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루어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영리하진 못하지만, 당신께서 사사로이 생각해 주시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사사로이 생각하신다면 덕업에 방해가 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비록 제가 부귀와 편안함을 누릴지라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 굶어죽는 것보다 못하니, 청천대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2) 촉가(趣駕): 급히 탈것을 준비시킴.
103) 촉(觸): 면하다.

貧者士之分也，儉者物之本也。安分守本，而從吾所好，樂莫大焉。雖三公之貴，萬鍾之富，苟非其道，願勿掛念。不有孔夫子之言乎？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며, 겸소한 것은 사물의 근본입니다. 본분을 편안히 여기며 근본을 지키는 것은 내가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비록 삼공(三公)의 귀함이나 만종(萬鍾)의 부(富)라 하더라도 그 도가 아니라면 생각하지도 마소서.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롭지 못한 부(富)와 귀(貴)는 나에겐 뜬 구름과 같다”고요.

李某(炳道)升木，其妻警諫以爲失士夫之體。此甚欵歎，况大於此者哉？顧夫子有善忘善，无過思過，見善如己出，見惡如其病。君子不可无義理之勇，不可有血氣之怒。今聞，夫子責人，過於聲色。然則大有損於修身之道，請戒之。

이모(병도)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 그 처가 선비의 체모를 잊었다고 따끔히 간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찬탄할만한 것인데 하물며 이보다 더 큰 것이겠습니까? 원컨대 당신께서는 선한 일을 행해도 잊어버리고, 잘못이 없어도 허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을 보면 자신이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보면 자신의 병이라 생각하소서. 군자는 의리에 용감해야 하지만 현기의 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들으니 당신께서 사람을 나무라실 때 음성과 표정

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니 수신의 도에 크게 해로울 것 같습니다.
칭천대 경계하소서.

不炊¹⁰⁴⁾今三朝矣。書童適捲南瓜¹⁰⁵⁾蔓以歸。按得其實如季者數枚，切而爲羹，謀一沽酒，不得，只以羹獻，不任惶歎。德固不可一日而不修，學亦不可一日而不講，講學又莫先於讀書。竊聞夫子方讀易，而李銀河子(晚英)來留過冬，此自少經學之儕也，相與講磨甚好。願以日日討論者，錄于片紙，下示則幸甚。

사흘째 밥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동(書童)이 가서 호박넝쿨을 말아왔는데, 그 중 주먹만한 것을 몇 개 골라 썰어서 죽을 쑤었습니다. 술 한 잔을 구하려고 했으니 여의치 못해 죽만 올리게 되어 몹시도 안쓰립습니다. 진실로 덕이란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학문 역시 하루라도 닦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으로 독서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당신께서 이제 『역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이은하자(만영)께서 오셔 겨울 동안 묵었다 가셨다는군요. 그 분은 어려서부터 경학을 공부한 유학자로서 서로 같고 닦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대 날마다 토론한 것을 기록해 두시어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참으로 행운이겠습니다.

104) 炊(炊): 밥을 짓다.

105) 南瓜(南瓜): 호박.

新涼入郊，此正燈火可親之時也。望須接客應事，不得已之外，專意讀書焉。妾亦針線饋食之暇，中夜下帷之際，看字理會¹⁰⁶為計矣。向讀四書，而孟子下三篇，尚未訖¹⁰⁷然，不久當訖。擬自今冬，從夫子講易，而客若久留，則不可為矣。從近裁書于金洗馬(현)，許詩書大全借示，伏望。洪洗馬贈夫子詩云，“丹渥¹⁰⁸未成頭髮白，百年虛作丈夫身”，令人警惕。請夫子益懋¹⁰⁹新德，進進不已。

교외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니, 바로 등불을 켜고 책을 가까이 할 시기입니다. 모름지기 손님을 맞거나 하는 부득이한 일 외에는 독서에 전념하겠으면 합니다. 저 역시 바느질하고 밤하는 사이사이나 한밤중에 쌈을 내어 책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 동안 사서(四書)를 읽어 왔는데, 『맹자』 하면 제3편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곧 끝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당신께 『여경』을 좀 배웠으면 하는데, 손님이 오래 머무르신다면 어렵겠지요? 최근 김세마(현)께 글을 올렸더니 『시서대전(詩書大全)』을 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홍세마께서 당신께 주신 시에서 “불그스레한 윤기가 다하지도 않아 머리가 빡발이 되었으니, 장부의 한 평생 헛되이 보내고 말았도다”라고 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청컨대 당신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덕을 새롭게 함으로써, 중단 없이 나아가도록 하소서.

106) 이화(理會); 이해.

107) 풀(訖)마치다.

108) 단액(丹渥); 악단(渥丹). 얼굴빛이 붉고 윤기가 도는 것.

109) 무(懋); 힘쓰다.

眼患累日未瘳¹¹⁰，伏切悶虛，顱瞑目端坐，息卻閒思慮，平心下氣，存養方寸，則非但調病之方而已，亦於尊德性之功，似有益矣。

안질이 며칠째 낫지 않으셔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 생각을 거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운을 아래로 보내어,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 보소서. 이렇게 한다면 비단 병에도 좋을 뿐 아니라 덕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下示，“爲善最樂”，其言固甚大。但於事事物物上，必先推究其所以爲善之理。明知其當然，然後一於善，而實踐之，則可見最樂之效也。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즐겁다”고 일러주신 것은 참으로 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갖 사물을 대함에 있어 반드시 그것이 선이 되는 이치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연함을 밖에 안 뒤에 선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실천한다면, 최고의 즐거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金上舍(廳)，羣從兄弟，時時來顧，且乘軒之客，自遠委訪者亦多，固爲可感，然但盡吾爲主人之道，而遇卿大夫，卽以待卿大夫之禮。待之遇士，則以待士之禮。待之不以位勢之有無，有所輕重，則此心常正，而無

110) 쥬(瘳)：낫다.

侮辱之招矣。客之來見，以夫子有爲己之道也。性灝(宋質成，煥箕)曰，讀書窮理，自明其道而已。海石相公曰，爲忠孝，求道德，皆是自己分內事也。此皆格致之論。願以是草草自勉。而必體龍村先生誠敬之訓，終歸于至善，則豈不美哉？

김상사(로)에게는 여러 사촌 형제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또 가마를 타고 온 손님에다 멀리서 부탁하러 찾아온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도리를 다해, 경대부(卿大夫)는 경대부의 예로써, 선비는 선비의 예로써 대접합니다. 권세의 유무에 따라 절대에 경중의 차이를 두지 않아, 마음이 항상 바르고 모욕을 자초한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는 것은, 당신께서 오직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담(송찬성, 환기)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서를 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스스로 그 도를 밝히기 위함일 뿐”이라 했습니다. 해석 상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충효를 행하고 도덕을 구하는 것은 모두 자기 내면의 일일 뿐”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격물 치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원컨대 이로써 더욱 노력하시어, 오촌 선생의 성경(誠敬)에 대한 가르침을 반드시 체득해 마침내 지극한 선(善)에 이른다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無所爲而爲者，順天理之君子也；有所爲而爲者，順人欲之小人也。誠能反諸己而求之，明乎斯而由乎斯，則坦然夷塗，直轡無礙矣。

아무런 의도 없이 행하는 자는 천리에 순옹하는 군자요,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하는 자는 사육에 따르는 소인입니다. 참으로 둘이서 자기에게서 구해 스스로를 밝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면, 평탄한 길을 달리듯 고개를 바로 잡아도 아무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諺¹¹¹⁾云，三歲之心，八十猶在，此言氣質之難化也。氣質之高者，易與爲善，氣質之下者，難於入道。教人者，亦當隨其人之高下，而善導之也。親黨中，惟弟日會，自孩提¹¹²⁾時，有懷橘讓梨之事，課讀勤孜¹¹³⁾，不殆長者憂，及其長也，孝友敦睦，人無異辭。見解超卓，庶乎進就，不幸而夭，族姪勲永，容止¹¹⁴⁾安靜，且好讀書，頗有可望。外親中上舍從（國仁），弱不好弄，做讀專鵠，其文行可尚。謹鞠（用正）嘗見其爲人，則端厚和易¹¹⁵⁾，外沈內明，藝術不輕，智而不駁¹¹⁶⁾，敦乎倫而博乎文，守其家訓，棹¹¹⁷⁾有成規，當爲外族中第一人。黃生（鍾漢），雖未親見，而其在外堂¹¹⁸⁾，未嘗聞喧聒¹¹⁹⁾。食飲之餘，整而不亂，足跡不到果園中，侍坐聽講，竟日寂然，如無人，其心必无出入，當有成就。願夫子與若而人周旋，或相提誨，或相切磨，則庶有資益矣。

111) 諺(諺); 속담.

112) 태제(菩提); 어린아이.

113) 자(孜); 힘쓰다.

114) 용계(容止); 몸가짐, 모습.

115) 화이(和易); 은화롭고 까다롭지 않음.

116) 박(駁); 어긋나다.

117) 작(棹); 너그리움.

118) 외당(外堂); 사람이나 사람말.

119) 칭噪声(喧聒); 우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속담에 이르기를, “세 살 때 벼룻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은 기질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질이 훌륭한 사람은 쉽게 선을 행하고, 기질이 좋지 못한 자는 도(道)에 들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마땅히 그 기질의 고하에 따라 이끌어야 합니다. 친척 중 오라버니 일희만이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고, 과제를 부지런히 읽었으며, 어른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라서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부모께 효성스럽고 친구간에 우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견해가 다툴 때 탐을 발전이 있을 것 같았는데 불행히 효절하고 말았습니다. 조카인 훈영은 몸가짐이 안정되고 고요하며 독서를 좋아해, 앞으로의 성취가 크게 기대됩니다. 외친 중 상사(上舍) 종(國人)은 약한 자를 놀리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으니, 그 학문태도와 행위가 가상합니다. 의경(용첨)은 일찍이 그 사람됨을 보니 단정하고 두터우며, 온화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길은 침착하고 촉은 밝습니다. 또 제주가 있으나 경솔하지 않고, 지혜로우면서 어긋나지 않으며, 윤리에 돈독하며 배움이 넓습니다. 가훈을 지키면서 너그럽게 규범을 이루니, 외가 중에서 마땅히 제1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황생(종희)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사람체에 있음 때 일찍이 후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단정하여 호트러짐이 없었으며, 밥결음이 과원(果園) 쪽으로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옆에 앉아 칼의를 들었으며, 하루종일 조용한 것이 마치 사람이 없는 듯하니, 그 마음도 꽃시 아무런 동요가 없어 마땅히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당신께서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주선해 서로 이끌어 깨치거나 같고 낙제 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夫子嘗言，“求婚必於其類，取友必於勝己”。又曰，“金茂朱丈(載琬)，汎論人過失而曰，反而思之，則卻是說己病，聞來不勝警發也”。今某人爲失類之昏，而夫子不戒，近者相從，頗多損友。又或論人過失，似與前日所教不同，果何故耶？願聞其義。

당신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결혼 상대자는 반드시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친구는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김무주(재완) 어른께서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병폐를 말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훈미함에 빠져 주위 사람을 모두 잊을 판인데도 당신께서 경계의 말을 하지 않고 최근까지 상종하고 있으니, 우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논하는 것도 이전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은 듯하니, 무엇 때문인가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門生¹²⁰⁾家，或有饋獻¹²¹⁾，則必稟于夫子，而後辭受之。或有不請而直辭之者。屬於近日不請受者，有二。一則金元伯(孟淵)眼鏡，一則黃義卿(敬浩)饋肉也。兩生俱自幼來學，而金則誠悶眼昏，黃則誠念无懈，以親命而來。俱是情貌¹²²⁾，夫子似亦不辭，故不及請而受之，未知如何？

120) 문생(門生); 문하생.

121) 귀헌(饋獻); 음식이나 물건을 바치다.

122) 慮(貌); 주다.

문하생 집에서 혹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올 때는 반드시 당신께 알린 후 사양하거나 받아들이나, 어떤 때는 당신께 알리지 않고 바로 사양하기도 합니다. 근래 알리지 않고 받아들인 경우는 단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김원백(맹연)이 가져온 안경이요, 다른 하나는 황의경(경호)이 가져온 고기입니다. 두 학생은 모두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며, 김원백은 당신의 눈이 침침해진 것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고, 황의경은 반찬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부모의 명으로 들고 왔습니다. 모두 점에서 나온 것으로, 당신 역사 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받아 들였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君子之爲道，修己治人而已。日夜孜孜，猶恐不及。夫奚暇於閑思慮，閑言語閒酬應閒出入，以自損乎任重致遠之志哉。請夫子戒之勉之。人之壽夭窮達有命焉。爲父母者，信世俗之語，以教女子讀書爲大忌，故婢女往往全不識義理，甚可笑也。

군자의 도는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것일 뿐입니다. 밤낮 부지런히 노력해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한가한 생각이나 하고, 주거나 받거나 출입하면서, 멀고도 막중한 과업을 스스로 손상시킬 여유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더욱 경계하고 노력하소서. 사람의 수명이나 궁달(窮達)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이 세속을 말을 믿고 여자에게 책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크게 꺼려해 부녀자들이 왕왕 의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정말 가소로운 일입니다.

允摯堂曰，“孝者百行之源，既失於本源，則雖盡天下之賢能，餘不足道也”。又曰“未有不孝於親，而能盡忠於君者”。此誠確論。

윤지당이 이르기를, “효는 백행의 근원이다. 이미 그 근원을 잃었으면 천하의 현자와 능력 있는 자라도 도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진실로 변할 수 없는 말입니다.

尹宅鑑，鵝鑑，既與夫子爲同人¹²³⁾，而聞其質純實，又能贊見¹²⁴⁾，誠應可尚，宜隨其人之可及者而教之，則似無厭苦難行之患矣。

윤택진과 학진은 이미 당신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이들로서, 듣기로 그 바탕이 순수하고 성실하며, 또 선물을 들고 찾아뵈울 줄도 아니, 성의가 가상합니다. 그 미칠 수 있는 바에 따라 가르치신다면, 삶증을 내거나 행하려 하지 않거나 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陶庵詩曰，“壯年易失難重得，須作超凡入聖人”。陶庵教少年，猶以易失壯年爲戒，矧¹²⁵⁾失壯年者，豈可不下百倍之功乎？請夫子勉之。

123) 동인(同人): 어떤 일에 뜻을 같이하여 모이는 사람.

124) 지원(贊見): 선물을 가지고 가서 벤.

도암의 시에, “장년기는 허비하기 쉬우며 다시 얻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범인을 초월해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암이 소년들을 가르치면서도 도리어 장년기를 허비하기 쉽다고 경계했는데, 하물며 장년기를 이미 잃어버린 사람아야 어찌 백 배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당신께서는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允菴堂曰，“我雖婦人，而所受之性，初無男女之殊”，又曰，“婦人而不以任姒¹²⁶⁾自期者，皆自棄也”。然則雖婦人而能有爲，則亦可至於聖人未嘗。夫子以爲如何？

윤지당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야 대초 남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여자로서 태임과 태사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여자라도 노력한다면 역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妾是一箇婦人，身銷閨闥¹²⁷⁾，無間無識，猶於針線纏掃之隙，覽古經籍，

125) 산(矧): 하물며.

126) 인사(任姒); 태임(太任: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과 태사(太姒:주나라 무왕의 어머니).

127) 규단(閨闥): 여인의 방.

窮其理而求其行，思欲與前修同歸。短夫子以大丈夫，立心求道，從師取友，孳孳進益。則何所學而不能，何所講而不明，何所行而不達。由仁義，立中正，成聖成賢，誰能禦之。聖賢丈夫也，吾亦丈夫也。何畏而不爲哉？萬乞夫子，日新其德，必以聖賢爲期。

저는 일개 여자로 규방에 갇혀 있어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오히려 바느질과 빨래, 청소를 하는 사이사이에 옛 경전을 읽으며 그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하여, 옛 사람이 닦았던 경지에 다가서려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께서는 대장부로서 도에 뜻을 두고, 스승을 모시고 친구를 사귀면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으니, 어떤 배움인들 불가능하며, 어떤 강의인들 밟지 못하며, 어떤 실천인들 이루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 인의로 말미암고 중정(中正)을 세운다면 성인, 현인이 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현은 장부인데 나 역시 장부이니, 무엇이 두려워 성현이 될 수 없겠습니까? 제발 당신께서는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여 반드시 성현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從孫¹²⁸⁾(蓬嶺)之女，今四歲，穎悟有心地，苟隨事循循提，誨導之以誠正，則庶幾他日進就婦德矣。

종손(근친)의 딸아이는 올해 네 살인데, 깨치는 것이 빠르고 순순히 잘 따라옵니다. 성정(誠正)으로 이끈다면 이후 부덕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8) 종손(從孫): 형이나 아우의 손자.

書寢則氣昏志墮，多言則恐生誇異。過飲酒則戕性而喪德，多吸煙則損神而長傲，俱宜戒之。

낮잠을 자면 기운이 흔미해지고 의지가 나태해지며, 말이 많으면 원한이 생기고 비난이 일며, 과음하면 성품이 황폐화되고 덕을 잃으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정신이 손상되고 어른을 업신여기게 되니, 모두 경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下數，水能潤物，而黏石不潤。此似爲下愚而發然，如使聖人當之，則安知或因其一端而化之也？竊願不患其不潤，而患不能潤。

“물은 사물을 윤택하게 하지만, 절토나 돌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어리석을 사람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만약 선인이라면 어느 한 측면을 들어 그런 사람까지도 교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윤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윤택하게 할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李承宣(晋淵)，唐學荀¹²⁹疑，聞是與洪尚書(碗叟)講辨者，其義周詳，又其所著山野問答，淹博綜觀，可爲世用云，從近借示甚好耳。先祖愚

[129] 차(荀): 차자(荀子).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谷公, 訓子格言, 鶴谷族兄¹³⁰(昌會), 方付梓¹³¹而將分送于親戚云, 幸須託于三洲兄(元會), 受一秩以來。如何?

이승선(진연)의 『중용』 차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듣기로 흥삼서(석주)에게 반론한 것으로서 그 뜻이 두루 상세하며, 또 그가 지은 『산야문답(山野問答)』과 『엄박종책(淹博綜轍)』은 세상에 쓰일 만하다고 하니, 가까운 사일 내 빌려서 보여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조인 우곡공의 『훈자격언(訓子格言)』을 학곡의 족형(창회)에서 막 출판해 친척들에게 나누어 보낸다고 하니, 다행히 삼주형(원회)께 부탁할 수 있다면 한 걸을 얻어 올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찌신지요?

夫子嘗言, “德雖小宣, 惠報向賴”。崔上舍(漢綺)借乘, 得遂懷鄉宣城之行, 良非小德, 畢不思報邪?

당신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비록 작은 은덕이라도 거기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상사(한기)께 딸것을 빌려 마침내 그리워하던 고향 선성으로 갈 수 있었으니, 진실로 적은 은덕이 아닌데도 어찌 보답할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요?

130) 족형(族兄): 성과 본이 같은 암가로서, 상복을 입는 전통 안에 듣지 않는 형별이 되는 남자.

131) 부자(付梓): 출판.

園中平穩臺，李洗馬(度中)名之。其地準確不平，而名曰平穩，似有所取義，更逢時間之，如何？

정원의 평온대는 이세마(도중)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땅이 유통불통하고 자갈 투성이로 평온이라 했다고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만나시거든 한 번 이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凡民俊秀，三古¹³²⁾之所不棄也。今書童中，盧龜詳明，李巖敦厚，劉喆孝謹，皆可教也。請勿以卑幼而忽之。

무릇 백성들이 뛰어난 것은 삼고(三古)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서동(書童) 중 노귀는 상세하고 밝으며, 이암은 돈후하고, 유칠은 효성스럽고 근면하니 모두 가르친 만합니다. 청전 대 어리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族姪清永，待其從兄(允永)若同己。且睦于親戚，能承先父兄之篤行，甚可嘉也。

132) 삼고(三古): 고대를 세으로 나눈 삼고, 중고, 하고.

족질 준영은 사촌형(윤영)을 친형처럼 대하고 친척들과도 화목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의 독실한 실천을 이어받을 만하니, 매우 경하할 일입니다.

從舅東洲公，字畫正直，文軒叔(進仕，光義)筆法遺缺¹³³。今復¹³⁴中惟有數行，請分送于禮山叔(光學)，及族姪(滋勵)使之謹守，以存典刑焉。

작은 아버님 동주공의 글씨와 그림은 바르고 끝으며, 문현 아주버님(진사, 광의)의 필법은 힘차고 빠릅니다. 이제 상자 중에 몇 행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청천대 예산 아주버님(광학)과 족질(자훈)에게도 나누어 주어, 잘 간직해 모범을 삼도록 하소서.

沈恩津(文永)虛願可歎，任使牧(魯)，李郡守(馨秀)兩賢，及沈上舍(弘模)，連次見枉所講，何書所質，何義必多可聞，幸望錄示。

실은진(문영)은 하는 일 없이 들락거리곤 하니 탄식할 일입니다. 임사목(노), 이군수(형수) 두 분과 심상사(홍모)께서 연이어 들려 장의를 하신다는데, 어떤 책을 다루며, 또 어떤 말씀을 특히 많이 하시는지 기록했다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33) 주민(遺軼): 힘차고 빠름.

134) 혼(餽): 상자.

下示，李英陽丈(建胄)所教，條條皆是，深用欽歎。但夫祭妻子，讀祝一段，與先賢說有異同，盍於洪斯文(直弼)就質焉。

보여주신 이영양(건주) 어른의 가르침은 조목조목 모두 옳아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처자를 제사지낼 때 읽는 축문에 관한 것은 이전 분들의 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왜 흥사문(직필)에 물어보지 않으셨는지요?

尹尚書(光昔)來示，其是非吟(是非何日定，何人定是非，楚是非曰非，是非自有歸一，是一曰非，是非每相違，誰決是非訟，永罷是非疑)固爲可感。但詩中是非譯無指的，恐未可輒和，姑以拙辭。如何？

윤상서(광보)께서 오셔 보여주신 '시비를 옳은 시' <시비는 어떤 날 정해지며,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것인가?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비(非)라 한다면 시비로 절로 하나로 돌아가나, 옳은 것을 일단 그르다 하면 시비가 매번 서로 어긋나니, 누가 시비의 달음을 해결해 영원히 시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까?>는 참으로 공감이 가간 합니다만, 시(詩) 중 시비가 뒤섞여 가르치는 바가 뚜렷하지 않으니, 조화되지 못한 거친 표현이 아니가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下示一絕(孔顏吾顧學，任姒子攸期，志秉且相勉，況茲衰暮時)，莊誦無已，人莫不知人性之善，莫不知聖人之盡性，而苟不知如何性善，如何盡性，則所知者固非真知。又或有知而行之者，然立志不堅，作轍¹³⁵⁾無常，一日二日，年光流邁，竟未免幽莽¹³⁶⁾。此是嘗所惕然者，今承勉勵，敢不服膺？

보여주신 한 구절<공자, 안자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봐요. 임씨와 사씨는 그대가 기원해 온 바이니, 뜻한 일을 서로 독려해야 하거늘, 하물며 이처럼 왕흔기에 접어들어서라?>은 매우 장엄합니다. 사람은 인성이 선함을 알지 못함이 없고, 성인이 본심을 다함을 알지 못함이 없으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인성의 선함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본성을 다하는 것임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것은 진실로 참된 말이 아닙니다. 혹 알고서 행하더라도 뜻이 견실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으니, 하루 이틀 세월만 흘러, 끝내 거친고 서투름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일찍이 두려워했던 바이니, 이번 힘쓰도록 격려하신 뜻을 어찌 가슴속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君子非禮不言。怪力亂神，子所不語。近聞門下少輩，說利談怪，漫浪度日，何不嚴責，使之正容讀書？

군자는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 '괴력난신(怪力亂神)'을 공자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듣기로, 문학의 젊은 층들이 이

135) 轢(轍): 그치다.

136) 노망(幽莽): 거칠고 서투름.

의을 말하고 피이한 것들을 논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엄히 꾸짖어 바른 자세로 독서하도록 하지 않으시는지요?

從夫子游而終始不渝者，無多。此不可咎人，而當反求諸己矣。若言不忠信，行不篤敬，我無自修之實，則奚暇點檢他人。曾傳云，猶諸己而後求諸人，敢以是仰勉。

당신과 교유하면서도 시종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말에 중심과 신의가 없고 행동이 경(敬)에 독실하지 못하다면, 내가 스스로 닦지 못한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점검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증전(曾傳)」에 이르기를, “자신을 들이켜 본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라”고 했으니, 이로써 삼가 격려드리 는 바랍니다.

毒石金相公。嘗謂夫子曰，某在山亭，終日只對坦園。見屋上煙生，則想餽粥¹³⁷⁾之飲否，見學徒出入，則知教授之多少。此固出於相愛之意。然又安知非戒夫子以固窮樂道，萬學誨人也？每思其言，深覺感荷。先舅遺稿之營刊壽傳，誠出孝思，而紹述¹³⁸⁾言行，尤大於此。所嘗夙夜自勉，而文字胡刪¹³⁹⁾。家既窮窶¹⁴⁰⁾，未有強就，則姑為精寫數秩，以待事力 之稍裕，似無害於孝道矣。

137) 전죽(餽粥): 즉,

138) 소속(紹述): 앞사람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

139) 가월(胡刪): 판각.

140) 구(窶): 가난함.

해석 김상공께서 일찍이 당신께 말씀하시기를, “산 위의 정자에 앉아 종일 탄원 쪽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집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죽이라도 끓여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도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르치는 하는 것을 안다네”라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따뜻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빈낙도하면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라는 경계의 말씀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매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 무거운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고를 간행하는 것은 참으로 효심에서 나온 것이나, 앞사람의 일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니, 마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자를 새기는 것은 가정형편이 이런 지경이니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몇 걸만이라도 정성껏 베껴두어 여유가 생길 때를 기다린다면, 효도에 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先稿刊役，夫子必欲成之。而東伯(參判，聲大)，及西河倅(大諫，濟弘)，既有惠助親戚，知舊之出力者，頗多。今宜即速始役，不可遲延遷就。或至乾沒，自速大戾矣。

돌아가신 아버님 유고(遺稿)를 당신께서 반드시 간행하시려 하고, 또 동백(참판, 성대)과 서하졸(대간, 제홍) 등 도와주려는 친척이 있고, 옛부터 잘 아는 분들 중에도 힘을 돋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속히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이상 꾸물거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혹 기회를 잊어버린다면 스스로 빨리 하고 싶어도 일이 크게 어그러질 것입니다.

洪洗馬云，“以實心行實事”，今士友中能如是者，幾人？苟有實心實事，則必能終始如一，表裏相合，斯可以知其人矣。

홍세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마음으로 철저적인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친구분들 중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실로 참마음으로 철저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종일관할 수 있어 표리가 일치할 것이니, 이것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別紙

代父子上師門別紙

深衣，通吉凶之服，則弔哭亦當服深衣耶。(剛齋答曰，“深衣弔哭，恐似不穩，未見明據，何敢質言？”性潭答曰，“深衣之著，凡於吉凶，何所不可”。癸亥)

戒慎恐懼，朱子謂當存敬畏，則是通動靜言也。又以存養省察言，則戒懼似是專屬靜，如何看得面適從耶？(剛齋答，“戒懼對慎獨言，則固屬靜，而章句中當存二字，誠如來示，故沙溪先生，兼動靜看，而吾先予以爲，不可不分中，又有不可分者，須仔細體驗，方可見得”。戊辰)

작은 글

남편을 대신해 사문(師門)에 올린 별지

심의가 길흉사에 모두 입는 복장이라면 조곡시에도 당연히 심의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요? <강재께서 대답하시기를, “심의를 입고 조곡하는 것은 평온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 어찌 감히 단정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 성담께서 대답하시기를, “심의를 입는 것은 길흉사에 모두 가능한 것인데 어찌 안 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계해년(1804)>

계신공구(戒慎恐懼)에 대해 주자께서는 ‘항시 경외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동정(動靜)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또 존 양성찰(存養省察)로써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계신공구가 정(靜)에만 속한 것도 간은데,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지요? <강재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신공구를 신독(慎獨)에 대해 말하면 진실로 정(靜)에 속하나, 창구(章句) 중 ‘常存<항시 – 하는 것>’이란 두 글자는 바로 지적한 바와 같다. 이 때문에 사계선생은 동정을 겸한 것으로 보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나누지 않을 수 없으면서 나누어서는 안 되는 바가 있다고 하셨으니, 모름지기 자세히 체험해 본다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무진년(1809)>

答金富平(榮)別紙¹⁴¹⁾

代夫子作，丁亥

本生¹⁴²⁾喪葬¹⁴³⁾，前所後忌祭，使人代斂，只入哭而退。南溪說可考。
本生喪中，入所後廟服色。遂庵曰，孝巾¹⁴⁴⁾布深衣，陶菴云，孝巾加以
平涼¹⁴⁵⁾，子可遵而行也。
本生舅姑服大功，禮律同然，且有沙翁定論，恐當遵行。爲本生舅姑大
功，則當時服玉色衣裙，尤翁說有之。

김부평(영)께 답한 별지

남편을 대신해 지음, 정해년(1828)

남의 집 양아들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가보다 후사로 정해진 집의
제사가 우선이니，생가의 제사를 모실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 모
시게 하고，들어가 곡만하고 되장하니，남계의 설이 참고할 만합
니다。

생가에서 상을 담하면 후사로 정해진 집의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수암은 두건에 심의를 입는다고 했고，도암은 두건으로서 패랭이

141) 별지(別紙)；편지에 따로 덧붙이는 종이쪽.

142) 본생(本生)；본생가(本生家)의 준망. 양아들로 간 사람의 본디 어버이 집.

143) 상장(喪葬)；제사 지내는 일과 삼년상을 치르는 일.

144) 효巾(孝巾)；두건.

145) 평양(平涼)；폐행이，뜻개비로 뛰어 만든，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계가 쓰
던 것.

를 쓴다고 했으니, 그대로 쪘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생가 시부모의 상에는 대공의 복을 입습니다. 의례와 법이 모두 그러하며, 또 사용도 그렇게 주장했으니 달연히 이를 쪽아야 할 것입니다. 생가 시부모 상에 대공의 복을 입을 때는 평시에 입던 옥색 옷을 입는다는 우옹의 설도 있습니다.



(146)

先祖永隱公墓誌記

代夫子作

先祖敦寧府¹⁴⁷⁾都正¹⁴⁸⁾，贈吏曹判書，永隱公。先祖妣，贈貞夫人¹⁴⁹⁾，金氏。先祖妣，贈貞夫人，金氏。三位合祔¹⁵⁰⁾墓誌，在於，京畿，安城郡，東十里，加士面，九土谷，粉土山，東麓¹⁵¹⁾，辛坐之原。術士稱臥牛形，居民傳謂，尹某蹟而失傳者，四十有四年矣。正宗戊午，

146) 기(記)；사격과 경치를 적은 문서。

147) 돈녕부(敦寧府)；왕실과 가까운 친척 사이의 친선을 표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148) 도경(都正)；돈녕부의 정삼품·당상관 벼슬。

149) 조선시대 경이품, 종이풀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병자.

150) 합부(合祔)；합장。

151) 속(麓)；산기슭。

公之後配¹⁵²⁾親家¹⁵³⁾，後孫金麗淳，來告于光演曰，有委一文者，碎公墓碑而埋之，墓田¹⁵⁴⁾陳告¹⁵⁵⁾爲官屯田，光演往掘其埋處，果有碎碑四五段，合而觀之，則官衙¹⁵⁶⁾姓諱，及配位¹⁵⁷⁾姓氏，不差納諸譽臺，亦不差於是。光演始改莎¹⁵⁸⁾而享祀¹⁵⁹⁾之，且公墓下有三塚，考諸家乘¹⁶⁰⁾，公以下參判公(諱博，行¹⁶¹⁾掌令¹⁶²⁾)，進士公(諱克賢，曆掌樂正)，承旨公(諱在，莘洗馬縣令)，三世墓，皆曰上同，此固無疑，而姑不驗諸墳誌¹⁶³⁾，故未敢質言，以俟後日焉。十世孫，光演謹識。

기록

선조 영은공의 묘를 다시 세우며 남편을 대신해 지음

이조판서를 추증 받으신 선조 돈령부 도정 영은공, 정부인을 추증 받으신 선조비 김씨, 정부인을 추증 받으신 선조비 김씨, 이 세 분

152) 후배(後配); 후실.

153) 친가(親家); 친정.

154) 묘전(墓田); 묘지.

155) 진고(陳告); 즉 이야기하여 알렸다.

156) 관함(官衙); 관찰함.

157) 배위(配位); 남편과 아내가 모두 죽었을 경우 그 아내에 대한 경칭.

158) 사(莎); 사초(莎草), 무덤에 배를 임하는 것.

159) 향사(享祀); 제사.

160) 쟁(秉); 기록.

161) 행(行); 결관(兼官)의 이름. 대관(大官)이 소관(小官)을 행하는 경우 어떤 관(官)을 행(行)한다고 함.

162) 장령(掌令); 사헌부의 정사를 비슬.

163) 광지(墳誌); 죽은 사람의 성적이나 자손의 이름, 나고 죽은 때 등을 기록한 글. 사기판에 적거나 돌에 새겨 무덤 옆에 둔다.

을 합장한 묘지를 경기 안성군 동심리 가사면 구사곡 분토산 동쪽 산기슭 신좌의 들판에 세우다. 치관은 이 땅을 소가 드러누워 있는 형세라 했다.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은 아무개의 무덤이 사라진 것은 44년 전의 일이라 했다. 정종 무오년(1799), 공의 후실 친정집 후손인 김려순이 광연에게 와서 말하기를, “강일문이란 차가 공의 묘비를 부수어 파문에 버리고서는 묘자리가 판둔전이라고 떠들어댔다”고 했다. 광연이 가서 묻었다는 곳을 과 보니, 과연 조각난 비석 토막 너댓 개가 있었다. 조각을 맞추어 보니 고인의 직함과 이름 및 부인의 성씨가 용대(鶻臺)의 것과 다름 없었으며 또 상기 기록과 다름없었다. 광연은 다시 매를 덮고 손질하여 제사를 모셨다. 공의 무덤 아래쪽에도 무덤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여러 곳의 기록을 검토해 보니, 공의 무덤 아래쪽으로 첫 번째가 참판공(이름 부, 장령을 겸직), 다음이 진사공(이름 극현, 장악장을 추증), 그 다음이 승지공(이름 계, 신(莘)의 세마, 현령)이었다. 세 분의 묘가 상기와 같음은 진실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당장 광지(廣誌)에서 확인할 수 없어 감히 단정짓지 못하고 후일을 기다린다.

십세 손 광연이 삼가 씁.

晚醒齋記

代夫子作

吾儒之學，以敬爲主，而敬以誠心爲要，常自灑灌¹⁶⁴⁾而提掇¹⁶⁵⁾之，如寐而喚起，如醉而解醒，水止波靜，鏡明塵去，其非謹獨主一之工夫乎？人之生也，氣質固有清濁粹駁之異，則清粹者，易於爲善，濁駁者，難於復性。故光徹宇宙，上智是也，昏惑終身，下愚是也。是以古聖拈出¹⁶⁶⁾一敬字，作為德門之鑰匙，要在自醒而醒人而已。今南陽洪子（宗善），恬靜¹⁶⁷⁾其性，孝友其行，學有門路，篤於自修，所居小齋，扁曰晚醒，求余文以記之智，余亦蒙庇，而迷方者也，顧何敢剖釋乎？醒心之義也，蓋聞諸先生長者，以爲敬者，正大急而勝百邪，貫動靜而徹始終。及其至也，靈臺¹⁶⁸⁾洞照¹⁶⁹⁾，主人常醒，余明年爲五十歲，人思如伯玉，知非而莫可企及，洪子則年尊德卽，固可謂天民先覺者也，夫奚特晚醒云乎哉？雖孤勤託，姑取持敬之說，奉贊而自勉焉。

만성재기

남편을 대신해 지음

우리 유자（儒者）의 학문은 경（敬）을 위주로 하며, 경은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스스로 씻어내고 바른 것을 택하니,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고, 숙취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물이 고요해져 파도가 잠자고, 먼지를 제거해 거울이 밝아지는 것이, 어찌

164) 쟈타（灑灌）：씻을.

165) 계철（提掇）：바른 것을 선택하다.

166) 염출（拈出）：끄집어내다. 생각해 내다.

167) 염정（恬靜）：편안하고 고요함.

168) 영태（靈臺）：신령스러운 곳, 즉 마음을 알리는 말.

169) 통조（洞照）：관하게 비추다.

흘로 근신하고 한 곳에 전념하는 공부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기질이 깨끗하고 탁하거나 순수하고 잡된 것의 차이가 있으니, 깨끗하고 순수한 자는 쉽게 선(善)을 행하고, 탁하고 잡된 자는 본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주를 훤히 봐들어 보는 자는 상지(上智)가 그러하며, 종신토록 흔미하고 어리석은 것은 하우(下愚)가 그러하다. 이 때문에 옛 성인들은 경(敬)자 하나를 들어 덕(德)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로 삼았으니, 스스로 깨어나 다른 사람을 깨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남양의 흥자(중선)는 성품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효심스럽고 친구간에 우애가 있으며, 배움에 체계가 있고 또 스스로 닦음이 독실한데, 자신이 거쳐하는 작은 집에 '만성(晚醒)'이라는 편액을 걸고는 나에게 글을 부탁했다. 지혜로 말하면 나 역시 우둔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갑히 '마음을 깨운다<醒>'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해 낼 수 있겠는가? 대략 말하자면, 여러 선생이나 어른들로부터 얻어듣는 것을 경(敬)으로 삼고, 생각을 바르고 크게 해백 가지 사사로운 것을 물리치며, 움직이거나 멈추어 있을 때를 막론하고 시종일관하는 것이니,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환하게 빛나 할시 깨어있는 것이다. 내 나이 내년이면 오십이라 사람들은 내가 일가(一家)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 잘못을 알고서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다. 흥자는 연세도 지긋하고 턱이 높아, 참으로 백성들의 선각자라 할 수 있으니, 어찌 '늦게 깨어난다<만성(晚醒)>'고 할 수 있겠는가?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처럼 지경(持敬)의 설을 취해 글을 지어 올리고, 또 스스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坦園記

坦園者，何？坦齋之園也。何云乎坦園？園舊稱徐園，以園主徐姓也，又曰西園，於漢師屬西也。今也，坦齋夫子居之，曷不坦園云乎？鄉公之鄉，高陽之里，蘇之堤，歐之亭，隨其人而名焉。園稱坦園，不其宜乎？坦之號，孰與之？剛齋宋先生與之。坦之義，何？居焉。君子坦蕩蕩。爾嘗試觀乎坦園，則其土確¹⁷⁰，其樹樸¹⁷¹，其屋隘¹⁷²，有隆然高者，俯仰臺，中和壇也。有峯然峙者，起峻文阜也。薰珮¹⁷²逐¹⁷³幽而曲，小崑溪側而折園，不可爲坦矣。然而主人以坦粗心，行坦粗道，荒窮窮谷，不爲險，闢齋¹⁷⁴築戶，不爲阨¹⁷⁵。方將戒珍芻御，直轡平驅乎仁義之城。其視確者，樸者，隆然而峯然者，或幽而或側者，無往而非坦塗也。樸¹⁷⁶石可以爲山，引泉可以爲池，栽花接果，種菜鋤¹⁷⁷藥，可以爲閒中經濟，琴酒圖書之間。日與山朋，野客逍遙自適，皆可以傲公卿，輕爵祿，是則坦園主人之真樂也。被乘肥衣輕，躋康莊而邀嬉者，一遇風波，顛踣¹⁷⁸不振。豈若棲遲¹⁷⁹一園之中，而不失坦坦之地哉？易曰，“履道坦坦”。又曰，“貞于丘園”。坦園主人以之。

170) 確(磧)；자갈땅。

171) 樸(樸)；구불구불함。

172) 峰(峯)；배(峯)와 같은 금자, 노리개。

173) 逐(逐)；소로.

174) 開齋(開齋)；쪽문。

175) 阿(阨)；좁음。

176) 壓(壓)；보게다.

177) 鋤(鋤)；호미.

178) 顛(顛)；넘어지다.

179) 棲遲(棲遲)；유유한 삶결으로 놀며 지내.

탄원기

탄원이란 무엇인가? 탄재의 들이다. 왜 탄원이라 불렀는가? 이 뜰을 옛날에는 서원(徐園)이라 했는데 주인이 서씨였기 때문이다. 또 서원(西園)이라고도 했는데 한문을 가르치던 이 사람이 서인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편인 탄재께서 거처하시니 어찌 탄원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공(鄭公)'의 향, '고양(高陽)'의 리, '소(蘇)'의 계방, '구(厥)'의 정자 등 사람 이름을 따서 칭하니, 이 뜰을 탄원이라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탄이란 호는 누가 붙여 주었는가? 강재 손선생이다. '탄'의 뜻은 무엇인가? 거처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평탄하고 순조롭다. 그대가 시험삼아 탄원을 한 번 본다면, 땅은 자갈밭이요 나무는 구부러지고 집은 좁을 것이다. 크고 높은 곳은 부양대, 중화단이요, 높다랗게 치솟은 곳은 돈대로 쌓은 문부(文阜)이다. 향기로운 산책로는 그윽하고 고불꼬불하며, 작은 개울이 옆으로 흐르다 뜰을 가로지르니, '평탄<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주인은 '평탄한<탄탄>' 마음으로 '평탄한' 도를 행해, 황량하고 궁핍한 계곡을 험하다 여기지 않고, 쪽문과 좁은 출입구를 좁다고 생각치 않으며, 이제 막 달 것을 준비시켜 고삐를 바로잡고 평탄한 인의의 땅을 달리려고 한다. 자갈밭, 구부러진 나무, 좁은 집, 우뚝 솟아 오른 곳, 그윽한 길이나 옆으로 흐르는 시내 등 어디를 가도 평탄하지 않은 곳이 없다. 돌을 쌓으면 산이 될 수 있고, 샘물을 끌어오면 연못이 될 수 있으며, 사이사이 꽃을 심고 과수를 기르며, 채소 씨를 뿌리고 약초를 가꾸면 사이사이에 경제(經濟)행위도 할 수 있다. 거문고와 술, 책 속에서 날마다 산과 친구가 되어 들판을 소요 자적하니, 벼슬과 작록(爵祿)도 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 주인의 전정한 낙

이다. 살찐 말에 가벼운 옷을 걸치고 활기차게 노니는 자들은, 일단 풍파를 만나면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어찌 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평탄한 경지를 않지 않는 것에 비할 수 있으랴? 『역경』에서는, “도를 실천함이 평판하다”고 했고, 또, “공자의 뜰을 치달린다”고 했는데, 바로 탄원 주인이 그러하다.

說

硯說示李童子弗億(改敬鉉)

硯有三德。一曰貞，二曰靜，三曰重。貞則久，靜則專，重則不撓。是以君子貴之。況於先王聖恩，先祖遺澤之所存乎？余聞汝祖考¹⁸⁰杞園公，以校理入侍¹⁸¹時，正廟特賜一硯，且諭曰。“爾是直齋之孫，清寒之家，勉之勉之”。杞園公，常寶用此硯¹⁸²，晚年以付于汝，汝其可不敬歟？汝從學于夫子，既有年矣。夫子近作懷川行，又遊關西，託余數汝。汝年既淺少，家又酷貧，若立志不堅，甘自暴棄，則非但有違先祖之意，亦將上負先王之命。汝須一念觀惕，昕¹⁸³夕孜孜，必以三德爲柯，則介然有常，如硯之貞，密然收斂，如硯之靜，凝然自持，如硯之重。從事於是，進而不已，則庶幾硯田之中，日有獲焉。

180) 조고(祖考): 증은 할아버지.

181) 대법로 들어가 험금을 알현함.

182) 계(洎): 봄을 끗다.

183)昕(昕): 아침.

훈시 이 야기

이불억(경현이라 개명)동자에게 벼루의 설로 훈시함

벼루에는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첫째는 단단함이요, 둘째는 고요함이며, 셋째는 무거움이다. 단단하므로 오래가고, 고요하므로 오로지하며, 무거우므로 훈들리지 않으니, 이 때문에 군자가 귀하게 여긴다. 하물며 선왕의 성은과 선조의 유택이 있음에랴? 내가 듣기로, 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기원공은 교리 때 상감을 알현하자, 상감께서 특별히 벼루 하나를 하사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직제의 후손으로 칭빈한 집안 사람이니, 부디 힘쓰고 또 힘쓰시오”라고 했다고 한다. 기원공은 그 벼루를 항상 보물처럼 아껴 사용하다가 만년에 너에게 물려주었으니, 네가 어찌 불경스러울 수 있겠는가? 네가 바깥어른께서는 근래 회천으로 가는 길에 판서 지방을 유람하시기로 해, 나에게 네 교육을 부탁하셨다. 네 나이도 이제 적지 않고 또 집안도 몹시 가난하니, 만약 뜻을 굳게 세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비단 선조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선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드시 세 가지 덕을 자루로 삼아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벼루의 단단함처럼 항상 기개를 지녀야 하고, 벼루의 고요함처럼 은은히 마음을 수렴하며, 벼루의 무거움처럼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쉽 없이 행한다면 벼루 속에서 나날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題跋¹⁸⁴⁾

제사와 발문

書世牒後

代夫子作

此即我家坡平尹氏直派世孫，而自始祖太師公，至不肖身。凡二十八世，
傍親及嫡庶男女，皆因舊譜而記之。前月，不肖將行懷川，請贊于剛齋
宋夫子為便，師門考見，倩宗叔¹⁸⁵⁾健喆氏，臨¹⁸⁶⁾行書出，歸後始裝池
為冊，請綺園俞公，漢芝篆于卷。噫！祖先之成立者，忠孝勤儉也。子孫
之覆墮者，頗率著微也。苟欲法其成立，而戒其覆墮，舍學何以哉？不
肖年今三十一矣，妄識廊下，聞道甚晚。夙夜憂懼，唯是忝先之戒，而略
其狀于此卷，俾後人之覽此者，有所憲于不肖也。

주제있는 발문

세첩을 쓰고 나서

남편을 대신해 지음

184) 제跋(題跋); 제사와 발문.

185) 종숙(從叔); 아버지의 사촌 형제.

186) 임(臨); 본·때 쓰다.

이는 우리 과평 윤씨 가문의 직파(直派) 세손(世孫)으로서, 시조 태사공으로부터 불초에 이르기까지 모두 28대이다. 방진 및 적서 남녀는 모두 옛 족보에 따라 기록하였다. 지난 달 불초가 회천으로 떠나기 전 강제 송선생께 예물을 드리는 편에 사문(師門)에 부탁을 드렸고, 종숙(從叔) 견철씨께 행서로 다시 쌔 주실 것을 부탁해, 돌아와서는 그것을 꾸며 책으로 만들고, 기원 유공 한지께 표지를 전서로 쌔 줄 것을 청했다. 아! 조상들이 일으켜 세운 것은 충효와 근검이었는데, 자손들이 행한 것이라곤 어리석음과 경술함, 사치와 오만뿐이었다. 진실로 일으켜 세운 것을 본받고 추락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배우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불초는 올해 서른 하나로서 자질도 아는 것도 없어 깨달음도 매우 늦지만, 밤낮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선조의 경계를 덧붙이고자 하여, 이 책 말미에 그 대략을 갖추어 놓았다. 후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무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불초의 몫이다.

書外王父母¹⁸⁷⁾遺事¹⁸⁸⁾後
代夫子作

右我外王父母遺事略也。歲己巳，先妣¹⁸⁹⁾年七十有一矣。自二月寢疾，跨夏漸愆¹⁹⁰⁾，以諱書草此。託于不肖爲眞翻。是年九月，竟見背嗚呼痛矣。庚午辛未兩歲，行先祖考妣，先考妣，伯兄伯姪，三世六位續禮¹⁹¹⁾。

187) 왕부모(王父母); 조부모

188) 유사(遺事); 죽은 사람이 남긴 생전의 사적

189) 선비(先妣); 돌아가신 어머니

190) 침(愆); 깊어지다

仍又蒐摭¹⁹⁰三世遺事間，又立伯兄後事，故多端未能翻譯，去月晦，披閱文字，得先妣遺墨，迄今六年，手澤如新，重疾罔極，遺命之遷延未行，不孝大矣，謹以真翻如右。

돌아가신 외가 조부모께서 남긴 생전의 사적을 번역
하고서

남편을 대신해 지음

이상이 외조부모께서 직접 남긴 본인의 사적에 대한 개략이다. 기사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일흔 하나였다. 2월부터 몸져 눌더니 여름이 지나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한글로 상기 내용을 적으시고는 불초에게 한문으로 번역할 것을 부탁하시고는, 그 해 9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경오년(1811)과 신미년(1812) 두 해 사이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맏형, 맏조카, 세 세대 여섯 분의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례를 치냈으며, 또 삼세의 남긴 사적을 찾아 수집하는 가운데 맏형의 후사를 세웠다.

191) 만례(撫禮): 무덤을 옮겨 장례를 다시 치낸다.

192) 쳐(挫): 줄다.

晉州姜氏大同譜

上系編

一
卷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始祖 譚以式（高句麗兵馬都元帥）遠代孫

啓庸

子昌

二世

子引文

昌平

三世

子師瞻

斗升

四世

子昌富

昌平

五世

子璜寶

二見下

子昌貴

昌平

子君寶

七見下

I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下編

上系

啓庸	大科國子博士 高麗元宗甲戌以通 信使書狀官入日本 還封晉山府院君掛 冠不仕事見遺事基 失傳一九九四年甲 戌大同譜編纂後慶 尚南道陝川郡栗谷 面甲山里村後龍德 山壬坐原設封壇豎 碑	子引文	大科殿中內給事 博士公之入日本也 公從行一二八年 忠烈王辛巳再征以 公曾知道里又舉爲 通信使書狀官赴日 本風濤险難且因兵 交溺於死者眾矣及 還不復仕或子孫勿 棄墓失傳一九九四 年甲戌如上設封壇 四地勝	子師瞻	高麗忠烈王朝殿中 監察御史以孫君寶 貴贈判內議令參理 副使	子昌富	陰精勇衛大將軍封 晉陽君墓失傳設壇 堅碑傍後孫應敎世 白撰壇碑文一九九 四年甲戌如上壇碑 改堅舊碑埋于階下	子璜寶	隆德山壬坐載本郡 栗谷面甲山里村後 龍德山壬坐載本郡 試兵燹失傳一七七 六年丙申後孫設壇 行祀十七世孫應敎 世白撰壇碑文一八〇 一年辛酉從享鳳 基庭淨化壇碑改 多块改豎而舊碑	子昌貴	陰版圖正郎一三四 六年忠穆王丙戌以 鶴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夫門下侍中	子君寶	基陝川郡栗谷面甲 山里村後龍德山壬 坐
配鄭氏父三韓夫人 錦城郡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鄧贈錦城郡夫人 父三韓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配光祿大夫尚書左 僕	永嘉郡夫人安東權 氏父閭門祇侯允保 祖檢校將軍封金紫 光祿大夫尚書左僕	七見下	五見下	二見下							
配鄭氏父三韓夫人 錦城郡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鄧贈錦城郡夫人 父三韓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配光祿大夫尚書左 僕	永嘉郡夫人安東權 氏父閭門祇侯允保 祖檢校將軍封金紫 光祿大夫尚書左僕										
配鄭氏父三韓夫人 錦城郡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鄧贈錦城郡夫人 父三韓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配光祿大夫尚書左 僕	永嘉郡夫人安東權 氏父閭門祇侯允保 祖檢校將軍封金紫 光祿大夫尚書左僕										
配鄭氏父三韓夫人 錦城郡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鄧贈錦城郡夫人 父三韓夫人 人羅州人 大同譜編纂	配光祿大夫尚書左 僕	永嘉郡夫人安東權 氏父閭門祇侯允保 祖檢校將軍封金紫 光祿大夫尚書左僕										

外
庫

七世

八
世

九
世

真堂上標文後孫大
點謹撰

選輿地勝覽事見龍
史名臣列傳孫晉山

密陽人知中樞府事

配貞娘宅主晉州河氏
父晉川君元正公松
軒楫祖精勇衛護軍
直弱曾祖司直保外
祖判密直鐵城君固
城李瑀一三三八年
戊寅生一三九九年
己卯卒享年六十二
墓京畿道坡州郡大
慈庵山麓失傳

選輿地勝覽事見麗
史名臣列傳孫晉山
君希孟遜行狀安東
金潤東撰神道碑銘
金舜東書并篆慶州
(古鶴林)有紀績碑
慶州府尹李敦相撰
銘舊晉州斷俗寺址
有公之子植梅兼政
堂梅閣晉州河龍撰
記河元達書

配東萊郡夫人鄭氏父
蓮原府院君良度公
愚谷良生祖密直蓬
山君瑚曾祖判都津
司事惟義外祖贊咸
文貞公順興安軸一
三九〇年庚午卒墓
臨江縣桃源驛後失
傳後孫暨壇碑公塋
右祭之生三男二女
配贈貞敬夫人星山李
氏父重大匡平壤府
尹星山府院君存性
祖郎將齋曾祖大提
學興安府院君文忠
公仁復外祖侍中月
城府院君忠烈公慶

義盈庫使漢城判官
一四三四年甲寅外宰昌寧縣事官至
朝散大夫一四三九年己未卒于任所享
年五十五邑人如失怙恃爲公服喪墓晉
陽郡晉城面中村里
舊班城縣盤野洞戌坐贈議政府左議政
直提學柳義孫撰墓碑文晉州河東根撰
神道碑銘烏川鄭直贈貞敬夫人載寧李
左右衛中郎將日詳軍小鳳基上下封

女李貴美	德山人	教書并篆	平簡公宣中孫
女鄭祖禹	光州人	氏父知甫州事憲祖 曾祖補祚功臣上護	
掌令之夏子承敬承	生員父		
順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下編

上希

六世 七世 八世 九世

		九	十七	通亭公淮伯第四子 戴慤公碩德派
希顏	九上	十世	十一世	十二世
字景愚號仁齋一 四一八年太宗戊 戌生一四三八年 世宗戊午中新設	女宋胤鍾	女趙仲輝	漢陽人校理父監司璽子光裕司直 光緒進士光震女璽異童叅奉	安山人文校勘父贊成璽子璋副正培璋廉 與籍己卯名賢女李榮衡進士允仁樹川副正字
配貞夫人固城李氏父知通禮谷祖左相 學同外祖司藝江陽李陽明墓碑元育	女金孟剛	女魚孟濂	成從人監察父左相成從君世謙子叔貞 察訪女趙福堅李彦博	陸昌守李元禮
配貞夫人彥陽金氏父主簿仲行相監司 祖少尹順興安處季基公堂下移葬于三位合祔	仁壽府尹文章纂錄 著有著川養花錄一 卒基長湍郡落花倉板院村有碣福昌 文集入箕雅東文選感覽事見名臣錄 岩面下上里文良公堂左龕坐驪與祠配享	真草繪畫獨步一世 一四六年世祖乙酉 君金壽寧撰行狀有 今移葬于始興郡秀容軒原曾祖密直提 容軒原曾祖密直提	陸昌守李元禮	十二世
希孟	九上	子龜孫	子台壽	十三世
字景醇號私淑齋 一四二四年世宗 甲辰正月生一四 六八年世祖戊	銓部集賢殿直提 學官至嘉善大夫 而皆秘而不宣所 著有著川養花錄 卒基長湍郡落花 倉板院村有碣福昌 文集入箕雅東文 選感覽事見名臣錄 岩面下上里文良 公堂左龕坐驪與 祠配享	一四五年世祖乙酉 君金壽寧撰行狀有 今移葬于始興郡秀容軒原曾祖密直提 容軒原曾祖密直提	副正	十四世
希孟	九上	子復	子克誠	子先慶
字用休一四五〇 年世宗庚午生一 四七九年成宗 己亥生一五〇一	字景初一五〇八 年中宗戊辰生 順副尉忠佐衛	字伯實號醉竹 五二六年中宗丙 戌生一五四六年	字伯實號醉竹 子宗慶	子先慶 見一一卷

四一年辛酉生員	子進士一四七九
七年丁卯親試壯	年己亥別試鄭光
元直集賢殿知製	世榜以經歷登第
教兼帶經筵賜暇	官至大匡輔國崇
書堂以進貢使朝	祿大夫議政府右
京世祖丙戌登拔	講政兼領經筵春
英試同年登俊試	秋館觀象監事世
判禮刑曹撰五禮	子傅晉原君公於
儀經國大典睿宗	燕山時爲相尚有
朝策推忠定難翊	廢昏立明之意嘗
戴功臣封晉山君	密議于領相繼守
成宗朝策純誠明	勤適作朝京之行
亮佐理功臣修兩	日夜憂國疽發背
朝實錄撰東文選	而卒于道一五〇
輿地勝覽歷判吏	配淑夫人延日鄭氏
兵曹官至崇政大	見遺事榜後孫正
夫議政府左贊成	熙書并篆
兼知經筵春秋館	父直提學淮祖府
事五衛都摠府都	尹自濟曾祖兵判
摠管世子貳師一	府使接嶺外祖松
四八年成宗癸卯	左贊成文敬公安
贈大匡輔國崇祿	國祖參奉璽曾祖
大夫議政府領議	六年丙子卒贈通
館觀象監事世秋	六年丙子卒贈通
春秋館	提學基文良公塋
事見國史戊午士	七年丁卯生一五
道碑恩津宋朝彬	七〇年庚午九月
肇右麓中坐有神	十四日卒墓附
碑於盧出濯纓傳	配安東人
基安山職串里先	女李用澤
薨右麓中坐有神	司果子鍵武科錄
禍金濯纓相孫等	生員
察陽川許岩九日	義郎守子惟弘副
卒墓附	提學
井篆後孫正熙書	子世慶見一一卷
錫	女李廷弼
副司勇穎秀絕人	丙午增廣生員進
居喪哀毀一五二	士具中一五五三
九年己丑卒得年	年癸丑別試金慶
二十二基先塋同	元榜登第八輪苑
原百坐有表石男	以奉教登重試乙
應教克誠撰墓碣	年癸丑別試金慶
館及墓誌銘榜後	金州人司評子惟
孫正熙墓碣銘書	弘副
事見遺事	科歷南庠舍人入
配安人義城金氏父	湖堂忤胃城者官
熙書并篆	止道訓大夫弘文
見遺事榜後孫正	館應教知製教兼
熙書并篆	經筵侍講官春秋
父直提學淮祖府	館記注官一五七
尹自濟曾祖兵判	六年丙子卒贈通
府使接嶺外祖松	六年丙子卒贈通
左贊成文敬公安	提學基文良公塋
國祖參奉璽曾祖	七年丁卯生一五
六年丙子卒贈通	七〇年庚午九月
提學基文良公塋	十四日卒墓附
后中坐有表石古	配安東人
阜季壽源撰榜後	女李用澤
孫正熙書并篆文	司果子鍵武科錄
行狀玄孫知製教	生員
錫主撰家狀有文	義郎守子惟弘副
雅國朝詩圖皇明	提學
採風錄有遺事	子世慶見一一卷
雅父府使謹知	女李廷弼
教寧平安公世明	司果子鍵武科錄
曾祖文衡文安公	生員
外祖判書坡平	義郎守子惟弘副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一
卷

下編

通亭公派

坐子孫始居康津
配貞夫人昌寧成氏
父府使正換祖敦
寧平安公世來基
雙墳

義兵將剛庚番起	基敦津
聞姜公希悅倡義	
於光陽時與子主	
薄承勸募娶兵糧	
數百名數百石性	
從于晉州丹城石	
柱之戰斬獲甚多	
六月與主將同赴	
金健齊義慕亦多	
有協贊之功事聞	
除訓練院僉正	
賜宣武原從功臣	
錄奉事戴湖南節	
義錄己酉正月一	
日卒享年八十一	
墓樂安西面珠接	
村塋山西坐	
配陽川許氏父縣監	
澄忌九月九日墓	
子縉	子縉
武科	武科
子鎮海	子鎮海
字子繼號月波辛	字子繼號月波辛
未十月十五日生	未十月十五日生
判官乙卯四月八	判官乙卯四月八

子翼姬見二
子熙龍見一
三二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下編

通亭公譜

十世十一世十二世十三世十四世

子亨壽		子昇		子崇發		子德鵬	
士	字子二一四七 尚成宗丙 參選院別堂 提中特以生 差文隆六	女奇	字性遜官至龍驤 衛副護軍墓海南 水營將大街索山 子坐	配	公基同時移葬相 右公墓同時移葬相 興父贈贊成義祖 君孝曾正月十 日卒墓廣明里 葬雙墳	配	公墓同時移葬相 右公墓同時移葬相 興父贈贊成義祖 君孝曾正月十 日卒墓廣明里 葬雙墳
稱善士	字元佑號西峰 生質直慷慨世 人稱士	進	配海南尹氏墓 同原	父縣令恩恭祖 母陽川許氏	同原與公同時移 葬左	夫夫人陽川許氏	同原與公同時移 葬左
副司 累天性 忠根佐 孝衛生	字而直號甲隨 二年壬午一 子	子克溫	大升人奉父應教 大司憲大憲公大 將軍墓先塋原	將軍墓先塋原	子春華官至榮海 密陽朴氏墓同原	子春華官至榮海 密陽朴氏墓同原	子春華官至榮海 密陽朴氏墓同原
宣 將軍 軍	字而直號甲隨 二年壬午一 子	子子涵	子子淵	坐	坐	坐	坐
司 累天性 忠根佐 孝衛生	字而直號甲隨 二年壬午一 子	子源	子源	子大福參奉	子大福參奉	子大福參奉	子大福參奉
五見 三一 一卷	四見 九一 一卷	四見 八一 一卷	四見 七一 一卷	四見 一 一卷	四見 一 一卷	四見 一 一卷	四見 一 一卷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下

通亭公派

書狀官從內舅中
相國大敬公用擬
朝皇京所著詩文
大爲華士推獎及
還遣痘卒于中道
義州一五〇三年
癸亥八月六日也
得年二十八墓京
畿光明市光明七
洞青龍壠索山巽
坐有短碣失傳七
世孫蘭鼎尋得墓
所經由事曰篤於
經學遂入南館與
韓愈奉聖拜虛上
舍述同時居館一
日問曰君鄉有道
德山乎曰廣明里
主山是也因說先
祖別提公基失傳
二人乃誦其碑文
曰無奈是耶備往
奉審改莎省持而
歸韓參奉詩云利
落答碑尚辨真緣
莎重映白楊春枕
誠既篤修先墳草
木今無愧後人塗

將軍忠佐衛副導
軍一五六四年甲子十月十二日卒享年六十二墓郡南二十里佛甲面西峰艮坐孫流撰行狀知製教崔呢撰墓碣銘后孫大正獨改謹豎

兄弟友愛一家和睦鄉里欽仰墓壇光郡佛甲面西峰壬坐后孫大正謹豎一九九四年甲戌二月十七日移葬于靈岩郡始終而夙果里書堂左麓癸坐有碣后孫大正主組中改堅學文精粹士林矜式儒林建祠宇鄉儒萬享竹山祠宜人成平李氏父正繼貞曾祖萬戶彝華外祖南平文命良李友堂惜后墓雙兆夫位共移葬于合塋

女羅炯文 澄子
羅州人，奉子吉允變
女崔峻極 澄子
五見一
六一
一卷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道瀛湖千里烟斷續百年新潤香
孫瓊律爭追步微
代孫得三撰行中六
舊碑字多缺憾故
代孫秀撰碑十
之招發失察郡二贈奉宣令銘三
墓魂丑傳山北十
合二第一道三日
空月九一內
葬十七峰立基
于六三年石
公日年坐村
人清州韓氏
務郎祚同祖
基蓋七石
尹恭父
公年坐村
人清州韓氏
務郎祚同祖
基蓋七石
尹恭父

子克儉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字而素號夢梧	配令人光山金氏坐驥興	先塋東麓乙亥七月日卒基靈	副司果一五七	義衛歷定略將軍忠	正志節清高早承峻	字而用號呂興堂	丙戌生公器局峻	丙戌生公器局峻	子克恭子	配淑人全州李氏墓	配淑人錦城鄭氏墓	配淑人全州李氏墓
通無近名生利除忠佐	自九年中相國	基有碣石	年十月九日父	庭訓篤學力行	宗正	字而用號呂興堂	正志節清高早承峻	正志節清高早承峻	子克恭子	坐	坐	坐
不就忠利除忠佐	利除忠佐	基有碣石	日父	副司果一五七	正志節清高早承峻	字而用號呂興堂	丙戌生公器局峻	丙戌生公器局峻	子克恭子	坐	坐	坐
辭源擬除忠佐	利除忠佐	基有碣石	日父	副司果一五七	正志節清高早承峻	字而用號呂興堂	丙戌生公器局峻	丙戌生公器局峻	子克恭子	坐	坐	坐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海州人子時寫

司果一六一五年	乙卯二月一日卒	享年八十七基西	先塋右丑坐大	崇峯
提學文貞公鄭弘	深作傳文而祭之	七世孫昌煥	撰碑	記
君璣曾祖戶參鑑	成外祖金克仁	金克仁一五八〇	庚辰辛上	字而避一五三一
縣監銘城	年庚辰辛上	庚辰辛上	庚辰辛上	年中宗辛卯生一
配令入永同金氏父	悉奉善孫祖密城	金克仁一五八〇	庚辰辛上	五年中宗辛卯生一
子克讓	子	子	子	字而避一五三一
女沈禹民	女	女	女	字而避一五三一
青松人子吉	青松人子吉	青松人子吉	青松人子吉	尤明於禮鄉里之名學亥
禮后西麓龕里間	尤明於禮鄉里之名學亥	尤明於禮鄉里之名學亥	尤明於禮鄉里之名學亥	尤明於禮鄉里之名學亥
六年丙申十二月九至蔭	六年丙申十二月九至蔭	六年丙申十二月九至蔭	六年丙申十二月九至蔭	六年丙申十二月九至蔭
教勇校尉忠義衛	教勇校尉忠義衛	教勇校尉忠義衛	教勇校尉忠義衛	教勇校尉忠義衛
尤坐良面月岩光	尤坐良面月岩光	尤坐良面月岩光	尤坐良面月岩光	尤坐良面月岩光
為已壘	為已壘	為已壘	為已壘	為已壘
於禮鄉里之名學亥	於禮鄉里之名學亥	於禮鄉里之名學亥	於禮鄉里之名學亥	於禮鄉里之名學亥
女丁鍵	女丁鍵	女丁鍵	女丁鍵	女丁鍵
靈光人子濟元	靈光人子濟元	靈光人子濟元	靈光人子濟元	靈光人子濟元
女	子	子	子	子
潔	淑	渭		
八見一 七 一 毛	八見一 六 一 毛	八見一 三 一 毛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十四世

配宜人竹山朴氏父
其里曰閭禮十代
孫永熙建齋開全代
龍漢外祖府使光秀立
州李承達墓表
年丁巳九月十一
山金璇一六一
日卒墓雙兆二七
將軍副司直中宗
字而信號月星軒
一五三三年中
癸巳生官至宣略
年〇五年乙巳卒
聯老坐公齊峰三
大履床鷄接山號
人前之四家靈基
平三宅園大訓龜亭
申半昭五篤浮洞佛
氏月詳常寶井名遜
父完朝莫踐曰世乙
令在案大履床鷄接山號
人前之四家靈基
平三宅園大訓龜亭
申半昭五篤浮洞佛
氏月詳常寶井名遜

子克忠

予
汝

八見
八一
一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卷

下編

通亭公派

直長充智恭相有
床望石十二代孫
大撤堅子克孝
字而順號碧流亭
一五三五年中宗
乙未生宣祖壬辰
倡義時成子曰國
勢如此正士君子
報國之秋也況吾
家累世厚蒙國恩
豈無張良奮推義
乎即與二子同守
城募集義衆付義
轂將奇孝曾潛納
行在募兵五百人
領付高齊峯軍人
服其忠義縗忠佐
衛司直一六一
二年壬子卒享年
七十二墓驥興先
塋左麓乙坐有舊
碣而甲辰冬十代
孫永南改整後孫
大充撰續記事載
節義錄與邑誌
令人光山金氏父

子子子子子

冽 洛 濂 洒 淚

一見 九見 九見 九見 九見
○一 八一 六一 一一 ○一
九一 一 一 一 一
卷 卷 卷 卷 卷

十世十一世十二世十三世十四世

貞後忌十二月二十一日基雙兆

女李宏中
慶州人子山斗

子台壽
系伯父后

子思晉

子克養

子淑

域柱得興愛常驚常年成宗辛丑生自號靜軒一云自彦字子彥一云自彦
淨時失山先動特異氣骨俊秀才德年中宗丙子生進士相退號靜養堂
化慕傳後學研文至經歷掛冠不仕士忌十月十五日
篤誠巨宗探道高名學文官士謙字就仲一五一六年中宗丙子生進士
立金塋尊廟修卯驅特章十四日卒墓昇州丁巳生進士一五
碑

子思義
子思義
配金州李氏父守宇
基同原坐
雙岩面江介島艮

子致誠
配全州李氏父士謙
生忌七月二十五日基光州瑞坊而壯士忌十月十五日
貞夫人昌原黃氏十月二十七日卒

子昌仁
日基雙兆有墓碑
父碩基合兆
墓先塋原子坐

晉州姜氏大同譜

戴通亭公派
懋公編

二卷

十五世十六世十七世

十六世

十七

十八世

十九世

子弼煥	子心煥	子在洙	女李雋	子永殷
字弼 正月九日生 金南面 群里虎	字惺甫 丙午生 水洞 外祖昌原 生正月 六日	字士元 乙卯生 水洞 外祖李氏 生平 二月	字說如 十二月二十一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功微號自然堂 生辛丑五月一日卒 博大湖先塋子坐 配成平尹氏父義 成生庚申二月十日卒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英廟乙未生 五月十五日 同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昌原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字汝成 生壬子 汝成生 汝成生 正月九日生 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子在祥	子時會	子日會	子李雋	子永殷
字在祥 正月九日生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字聖仲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昌原 生平 二月	字說如正廟 生甲戌 十二月二十一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永令純 辛未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功微號自然堂 生辛丑五月一日卒 博大湖先塋子坐 配成平尹氏父義 成生庚申二月十日卒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英廟乙未生 五月十五日 同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字汝成 生壬子 汝成生 汝成生 正月九日生 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子鐸會	子尹光演	子時會	子日會	子永殷
字鐸 正月九日生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字聖仲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昌原 生平 二月	字說如正廟 生甲戌 十二月二十一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永令純 辛未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功微號自然堂 生辛丑五月一日卒 博大湖先塋子坐 配成平尹氏父義 成生庚申二月十日卒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英廟乙未生 五月十五日 同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字汝成 生壬子 汝成生 汝成生 正月九日生 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子永碩	子永泰	子申錫朝	子晉秀	子辰秀
字永碩 正月九日生 里虎	字聖仲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昌原 生平 二月	字說如正廟 生甲戌 十二月二十一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永令純 辛未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功微號自然堂 生辛丑五月一日卒 博大湖先塋子坐 配成平尹氏父義 成生庚申二月十日卒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英廟乙未生 五月十五日 同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字汝成 生壬子 汝成生 汝成生 正月九日生 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子載秀	子琪秀	子謙秀	子晉秀	子辰秀
字載秀 正月九日生 里虎	字聖仲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昌原 生平 二月	字說如正廟 生甲戌 十二月二十一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永令純 辛未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字功微號自然堂 生辛丑五月一日卒 博大湖先塋子坐 配成平尹氏父義 成生庚申二月十日卒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英廟乙未生 五月十五日 同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字汝成 生壬子 汝成生 汝成生 正月九日生 里虎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初詳在周 里德谷西坐 生丙子平 河東	坐 坐 坐 坐 坐	正月十五日生 水洞 外祖周氏父 生平 二月	正月十五日生 寺洞子坐 安東趙氏父 延生 十一月十三日卒	同上

晉州姜氏大同譜

通亭公派
戴慤公編

一三卷

		辰秀	
		列于 十一卷 一九六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配海平尹博大洞先登 外祖曾氏父准妻祖 母玄烈祖
		卒于 辛酉博大洞先登 丁丑相会知相祖 一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女尹寅普	女李俊龍
子大仟	士子九月二十一日生	子大億	子大震
		配昌原黃氏父範秀祖 牛革元丁亥三日生	配昌原黃氏父範秀祖 牛革元丁亥三日生
女壽遠	三九年己卯十二月二日生	子英遠	女宋殷圭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女允淑	七三年癸丑四月二十八日生	女承研	女洪淳義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子豪遠	二九年己卯四月十日生	子聲雄	子聲佑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女守研	六八年庚戌申六月二十六日生	女慧真	女聲庚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女承研	七一年辛亥七月二十三日生	女承研	女承研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生父永善字致明庚 辰戌子六月七日生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二卷

府使公(台壽)編

子秀 生于一九一九年十一月廿五日 配南陽洪氏父源雙封 日辛未生 月十二年半 壬辰望	子大應 叫喜 生于一九二〇年正月廿二日 配清州韓氏父源仁 己酉年正月五日 月五日 月半生	子南遠 叫明 生于一九二一年二月七日 宜清州韓英淑五年乙未 七月七日生	子東遠 叫忍 生于一九二二年二月二十六日 宜平尹京淑五年壬辰 二月二十六日生
女甲遠 夫魏翼亨寧人 生父大壯字汝已亥生 壬辰四月三日辛未江西 里食水洞生	女光子 夫林慶培平澤人 生父仁顯父祖籍 曾根平澤人	子仁遠 叫廷 夫卓光洙延安人 生父大壯字汝已亥生 壬辰四月三日辛未江西 里食水洞生	子鎮泰 叫明 生于一九二八年八月八日 子鎮龜 叫明 生于一九二八年八月八日
子聲俊 叫忠 生于一九二九年二月二十六日 配星州李氏己巳生丁巳十 月四日年庚附	子命求 叫子 生于一九三〇年二月十三日 二八年戊辰二月十三日 生六二五戰亂時志武銀 金善全彩移父用澤三五 星勳拿與	子秉哲 九六九 見下	
子完求 生于一九三一年二月二十四日 三五年乙亥六月 日生 宜慶州崔福仙父在敏四五 月八月十三日生	子秉錫 叫子 生于一九三一年十月十七日 六八年一月十七日 六九年八月十七日	子尚希 叫子 夫李在甲	
女敗珠 叫子 生于一九三一年十月十三日			

晉州姜氏博士公派大同譜 一二卷

府使公(台毒)編

子聖求	聖子	四一年辛巳十一月三十日生
子秉秀	聖子	七〇年十月十五日生
子秉希	聖子	七七年二月十八日生
子秉昊	聖子	七三年五月七日生
子聲龍	聖德	一〇年庚戌十二月十八日生
子弘求	大野學經濱人	三六年丙子十二月三十日生
子好求	喜子	堂全相季貞烈三七年丁丑二月二十六日生
子秉敦	明冬	七二年五月二十五日生
子秉豪	明生	六七年七月十五日生
子賢求	朝子	四一年辛巳四月二十日生
子冕求	昭子	三五年乙亥一月三十日生
子秉郁	昭哥	七〇年八月二十五日生
子秉善	昭叔	七四年九月二十八日生
子秉天	昭叔	七二年四月二十日生
女秉順	夫趙俊 董媒人	六七年七月十五日生
女秉順	夫趙俊 董媒人	六七年七月十五日生
女秉妙	夫金潤石 金潤人好	溫陽人
女秉妙	夫金潤石 金潤人好	溫陽人
子聲律	昌臺	癸丑生戊午二月六日卒
子聲律	昌臺	配羅川宋氏戊申生己亥十
子聲律	昌臺	月十八日卒傷食水洞生
子聲律	昌臺	坐
子聲律	昌臺	配羅川宋氏戊申生己亥十
子聲律	昌臺	月十八日卒傷食水洞生
子聲律	昌臺	坐
子聲律	昌臺	配羅川宋氏戊申生己亥十
子聲律	昌臺	月十八日卒傷食水洞生
子聲律	昌臺	坐
子聲律	昌臺	配羅川宋氏戊申生己亥十
子聲律	昌臺	月十八日卒傷食水洞生
子聲律	昌臺	坐

卷

이정도물구수류一洞

子萬求	妙子	生	五日生	子秉男	明昌	生	七九年六月十六日
四〇年十一月十六日生	室全所季亨家父康周四八	年一月八日生	四五年一月二日生	女秉祕	妙璫	生	八一年九月十三日
空品寧吉子父世娘四五	年二月七日生	子信求	妙子	子秉美	妙明	生	七二年九月七日生
七三年十月二日生	六八年五月六日生	女允政	奇詒	女希周	容範	生	七四年甲寅四月二
七〇年庚戌八月二十三日生	七一年五月十一日	女秀政	李詒	女希周	夫尚山金	十	三年三日生
六六年丙午二月二十五日生	七三年十月二日生	子相哲	晉聖	子秉寬	妙善	生	七四年甲寅四月二
七〇年庚戌八月二十三日生	七一年五月十一日	子明浩	妙生	子秉寬	妙善	生	七四年甲寅四月二
六〇年庚子二月十三日生	七一年五月十一日	子昌淳	晉聖	女秀政	李詒	生	七四年甲寅四月二

觀秀			
字典瑞	乙未生	壬午十一 一九六〇年	
子大俊	女李任相		
系譜書后	金州人		
女浩順	子吉遠	子志遠	二十五世
女日順	子聲建	子聲建	二十六世
女明姬	女明淑	子建求	二十七世
女知延	子秉佑	女浩順	二十八世
子秉珍	子秉佑	女日順	二十九世
子秉珍	子秉佑	子建求	
子秉佑	子秉佑	女明姬	
子秉佑	子秉佑	女明淑	
子秉佑	子秉佑	子聲建	
子秉佑	子秉佑	子吉遠	
子秉佑	子秉佑	子大俊	

二十一世

二十二世

二十三世

二十四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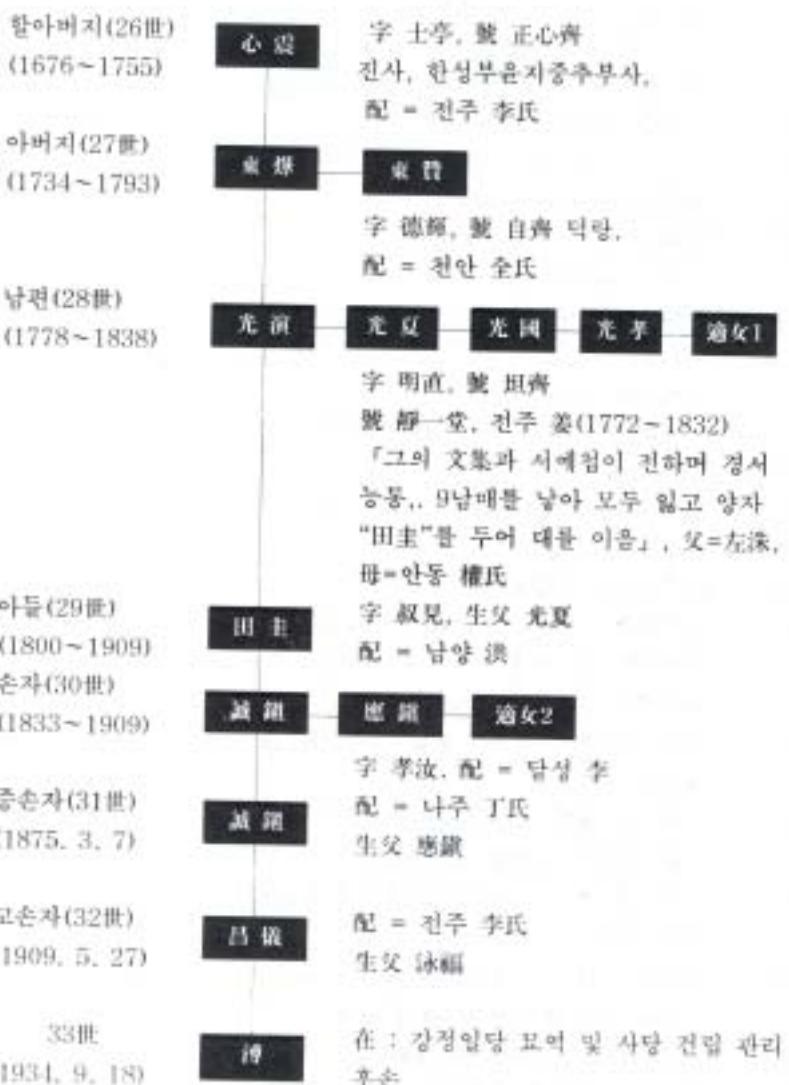
二十五世

祖母
室丹陽高氏父炳奎六〇年
庚子八月六日生

女京妙
母
八五年六月二十六日生

子仁鑄	男主	女敬子	夫金海金寔祥大卒
字仁村三一年辛未十一月十六日生大卒歸馬長	辛未十一月十五日生	女貴禮	夫靈山卒鍾賢工大卒
室全州李淳子父炳奎三八年戊寅五月十五日生	壬子	女珠禮	夫金州崔大中大卒
室忠陽朴慶故父良浩四六年丙戌二月四日生	癸丑	女泰求	夫金海金思烈
事主姓王父求延五二年九月己丑三月四日生	甲寅	子尚求	夫金海金寔祥大卒
子貞鑄	男主	女銀美	夫金海金學用大卒
字貞熙明一年辛巳一月五日生大學會長代理事長	乙卯	子敏求	夫子
室忠陽朴慶故父良浩四六年丙戌二月四日生	丙辰	女會真	夫金海金學用大卒
事主姓王父求延五二年九月己丑三月四日生	丁巳	子東求	夫子
子濟鑄	男主	子孟求	夫子
字濟明一年辛酉五月六日生	戊午	女民貞	夫子
事主姓王父求延五二年九月己丑三月四日生	己未	七五年乙卯二月十二日生	七三年癸丑十二月二日生
女文珠	女	子孟求	女
八一年辛酉五月六日生	壬子	七五年乙卯二月十二日生	壬子

◆파평윤씨 세계(世系)



◆ 강정일당의 생애(연대발췌)

- 1772 (壬辰) 음 10월 15일, 충북
제천군 근우면 신촌에서 父 在洙, 母
안동 權씨의 2남 1녀중 외동딸로 태어남.
- 1778 친아버지(姜在洙) 사망.
- 1791 (19세) 尹光演 결혼후 3년 동안 친정에서 기거.
- 1793 시아버지(尹東燁) 사망.
- 1794 시댁으로 거처 옮겨 살림 시작.
- 1795 첫 아들 태어남
- 1797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며 詩文으로 和答,
시문창작에 관심이 크기 시작.
- 1798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
- 1802 문장을 짓는 일에도 그 실력이 알려져
行狀 엮음.
- 1809 시어머니 천안 全씨(號 只一堂) 사망.
- 1814 아홉째 딸 출생.
- 1815 친정어머니 행장을 지음.
- 1822 혀약하여 3일동안 혼절하다가 회복
- 1832 (壬辰) 음 9월 14일 서울 악현(현재의 中林洞)
에서 사망. 豐子 田圭 임적.
- 1833 남편 尹光演이 아내의 문필·서첩 출간을
서두를
- 1836 「靜一堂 遺稿」(한문본) 초간본이 尹光演의
스승 송치규 선생에 의해 발행
- 1926 「靜一堂 遺稿」 중간본이 金哲坤에 의해
다시 발행
- 1982 국역본 「靜一堂 遺稿」 정일당 서거후
150년 만에 姜周鑄 에 의해 발행
- 1983 성남문화원 조명천원장 자료수집
- 1986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정일당 묘소와

- 유고가 지정 받음. (성남문화원 발의)
- 1989 후손 尹溥에 의해 정일당 祠堂이 10평
크기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금토동)
662번지에 건립.
- 1991 강정일당 연구 논문 발표(한춘섭)
- 1992 성남시민의 날(19회)을 기해
제1회 「姜靜一堂 姑婦實」 제정
으뜸 시어머니, 으뜸 며느리를 매년 시상
- 1992 <여류문인 姜靜一堂> (100쪽)발행
- 1996 <여류문인 姜靜一堂> (80쪽)발행
- 1998 국역, 「靜一堂 遺稿」 신원봉·한춘섭 국역 편찬
'향토인물 연구' 학술회의 개최

(1 9 6 2)

1962	4 ± 1.0	↑	/
승차기 관리			

在塵篋中者始發於其夫子之手不能使後人獲覩其全帙豈不大可惜而重爲之悲哉今以宗謹深知直今爲其孺人遺稿之刊行不能無言略記見聞文右崇禎後丙午季夏下澗坡平尹守慶謹跋

靜一堂遺稿跋終

靜一堂遺稿跋

吾宗坦齋王人明直篤行士也爲學蓋自有傳授淵源而其早年志學晚來切磨實賴閨閣中賢師友觀於孺人靜一堂遺稿一編槩可知也孺人以天挺才識本之以德行凡爲文辭絕無浮靡華艷之態而慥慥乎修身窮理之說博學宿儒莫或能過雖然果於韜晦未有聞於生前亦不可因以泯始有傳於身後兼以數字心畫如鐵索銀鉤印之於編末使觀者不覺歛衽起故吁亦感矣但其平生之述殆至數十編之多而以無一箇血屬之故而零散已盡纔以略于詩文尺牘雜著亂草之

稿余非其人而老病濱死久廢筆研且洪汎馬克乃爲作墓誌敘述甚詳而編爲附錄余又何以贅焉第念吾入晉山大姓其內外世德宜其有孺人而閨閣中希聖之工可以愧世之爲丈夫而無立志者矣然則斯稿之刊固知非孺人之意而其可終已耶但孺人多舉而不育紹述無人是可悲也明直倘能不以衰耗自沮而務進德學母負其平日期望則所以慰泉下之心豈不有大於刊斯稿耶幸須勉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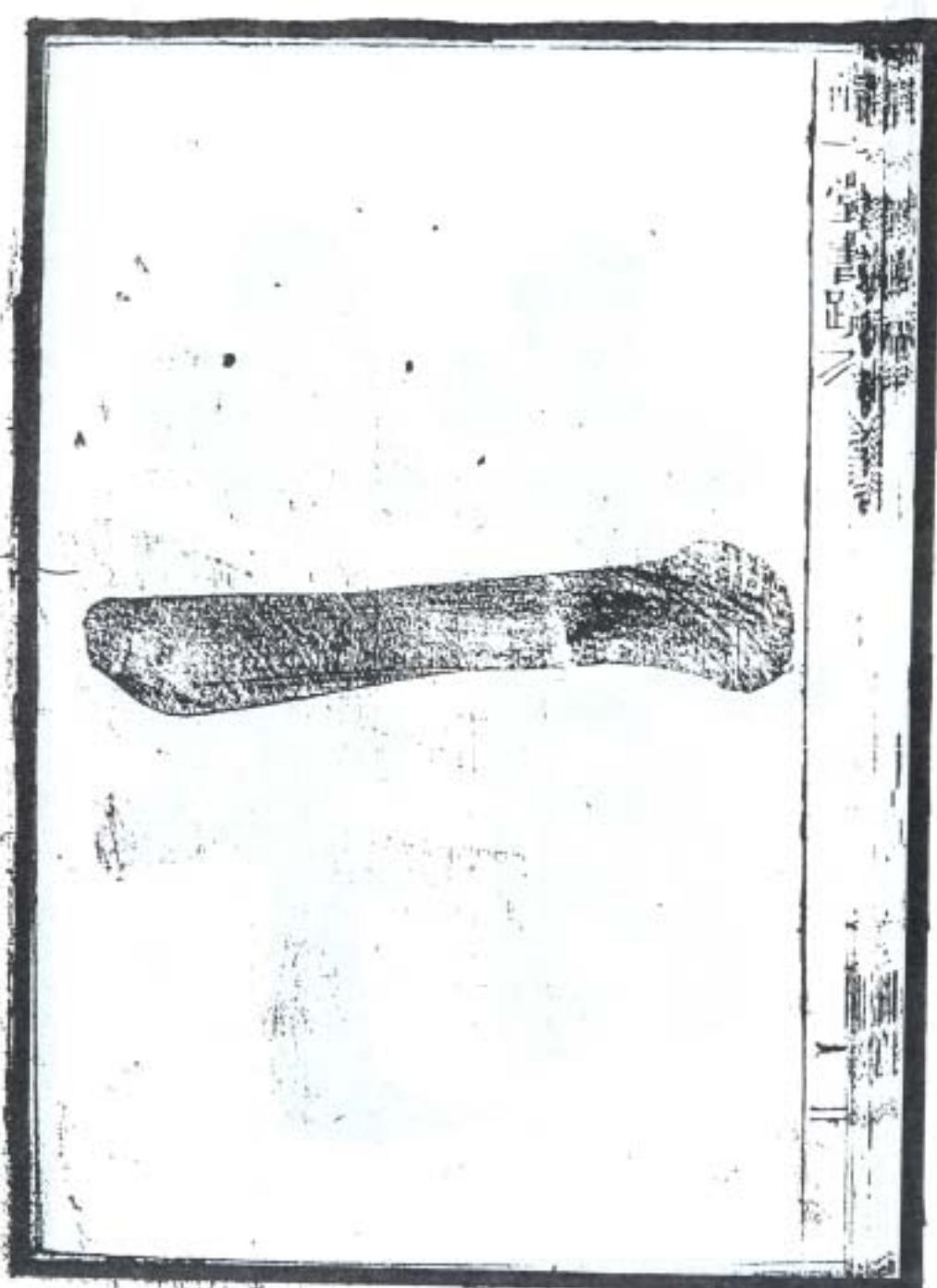
崇禎四丙申季秋日恩津宋樞圭書

書靜一堂姜氏遺稿後

嗚呼此靜一堂遺稿者坡平尹光演明直內子孺人姜氏所著也自古固多有女士之稱而女紅之暇潛心研究乎聖賢經傳其論說操心脩身之要處事接物之方不失儒家正路如孺人者蓋所未聞况其貧病平生實有人不能堪者耶苟非靜一之至何以有是所謂尺牘皆所以勸勉戒勗於其夫子者而溫柔之中又甚正直使讀之者自不覺其肅然明直之明師畏友豈待也求此明直所以叩盆已有年而悲慟不能已者也明直示余曰不忍使之泯沒以活字印出願得一言以爲重









輯遺稿將以付梓又收筆蹟帖而粧之欲壽其傳余寧願載名於末謹書如右

剛齋宋先生覆書略二度

癸巳八月
乙未三月

送示諸紙強病一閱不覺斂衽又知益友之失不獨喪配而已重爲之嗟傷也文字之示顧何可辭云云

賢閣遺事奉閱再三不覺起欽宜乎座下之悼惜久愈不能已也文字之托實非陋劣所可堪亦不敢以是爲

辭云云孺人行蹟不忍泯滅演再請文字於師門師門下書如此而踐疾頻作未遑躬謁刊役將訖書中大略錄于篇末

靜一堂遺稿終

問訊謬字端好詞理懇到於是默有所推想者焉既而
舍伯父誦孺人二詩且爲之跋余遂得見其詩而筆則
未也歲壬辰孺人下世坦齋丈乃以孺人墨蹟示余字
畫勁正純古絕無柔媚之態余不覺凜然起敬如童年
拜孺人時也又觀遺稿其詩文皆從義理性命中出鑿
鑿如五穀淡淡如玄酒大羹令人充然有得於是益知
孺人天姿之高學力之深而其文詞筆法有所自而然
也孺人備經艱楚素多疾病又無血嗣天之報施一何
舛也然嘗其祿于身而昌其名于後亦理也以天地之
久而視百年猶一瞥也其得失孰多少哉坦齋丈方搜

者如此不可與尋常有名稱婦女同日而語矣孟子以不愧不怍爲一樂明直方以是自勵之又與孺人討論琢磨有文會輔仁之益於舉案奉櫛之間不佞以爲明直有二樂茲於二詩謹書其後而賀之

靜一堂筆帖跋

癸巳

花山權用正

余於孺人爲外族始拜孺人于藥硯第見其斂襟危坐氣容靜肅如對神明問余所讀何書又曰此兒有心余時雖幼猶竦異之及歸問于蒙夫人乃知孺人德行實安中君子也其後又聞孺人善文章重楷書而秘不示人余思欲一覽而不得然先妣與孺人相善數數致書

應謂鴻儒是碩媛

延安金

鑑洗

猗歟姜氏姊閨範出天貞進學箴夫子安貧邁古人文
章亦非小誠正已能臻懿蹟從傳後千秋可質神

文章班氏姊筆法衛家娘閨閣貞儒在于秋靜一堂

戚弟安東權國仁

士進

鮮矣吾儒閨學工況於閨閣孰能通堂名可以知其德
我用爲唖女士風

豐川任翼常

監役

學透天人理德全性命真一片閨中月千秋不染塵

安東權敬仁

讀書一室遺稿附錄

惜不爲男子深悲有誄詞斯文何寂寞非一門私

識坦齋爲有志之士一日過訪其讀書寓榻出示其人姜氏小集曰亡妻少好學有遺稿幾數十卷不幸佚只此斷簡殘編掇拾於枯箱糊壁之間不忍泯棄其詩文極著凡若干首一字一句無非名言格論而其尺牘之爲夫子隨事箴規者尤見其躬行心得之實始知坦齋之學實資於夫人開發之益雖謂之妻而師可也嗚乎其肆矣古之以女士名者或以德行或以文章或以詩詞書畫奇姿絕藝蓋可指數而其保存省察動循規矩之宜叅究會通深造性命之微則求之儒門亦夫易得矧在門庭曷不君子私親扶德之言人無可問名儒誌幽之銘文足有徵後之覽斯集者亦必有爲立傳者矣坦齋其淡之顧余謾諭不足副教而感歎於是焉爾歸人號靜一堂未嘗其自號而其妻子因

學究天人性命源短章追字摠嘉言千秋形史書其事

宣城李宜鉉監

完山李觀夏

役

時人皆仰地翁儀不譖 坦翁自有師泣說孺人姜氏德
非徒百事室家宜

歷數人間女士誰班家續史謝家詩藻華不過閨房秀
心性那曾道一辭

隋城白東奎

校理

古來多女士遺逸播芬芳學造精微域今聞靜一堂
探赜天人際研窮性命源却將吾道重一筆狀閨門
雖驗吾心體能於未發時偉哉力尺上存養以爲期
出玉猶爲寶遺珠幸有餘欲識矯人者須看半卷書
六十窮而獨担齋太數奇最憐閨壻裏永失一良師

詩一堂遺利勝錄

久稱揚

以下追挽

完山李晉淵

承旨

閨門千古集羣芳道學文章靜一堂發揮性命人傳誦
自我先君起敬長

杞溪俞晦柱

良史如椽筆能書靜一堂篤工惟聖學餘事是文章夫
婦兼師友豆邊間几床古今卿士宅芳響較誰長

坡平尹顯商

君子修身士平生師其婦几案間氣俎與謨雜醺韭道
義相磨濯文章相括垢其樂忘軒駟一朝葬草莽秋山
爲余道聽之還嗟吁聘仰鬲冢臺悲風來颶颶至行神
可證余言豈不朽聊慰尹子惠佛頭甘露醜

作善竟無報彼天何蒼茫生來多疾病身後見文章古
井幽泉咽虛帷缺月涼空留伯鸞在白首淚盈

安東權用正奉

吾黨明直叟尙志坦園圃嚴棲安淡泊瓢飲味潔芳雖
資師友益抑賴女士良老屋三間繞和瑟半生強韻粥
從內漱裘葛辨中藏奉先邊承實留客藿在塲一介審
辭受百爲謹權量人人所畏難事事必亭當最是閨閣
裏誰識道義最天明恆若臨經言每在傍定靜走一地
褰帷自直友室家宜肅雍鄰羈敬端莊莫匪維有孚潛
德乃含章玉蘿幽吐輝蘭幽谷生香寂寥追挽字慚愧

傍照古鍵捷靡不窮餘事文辭妙平生學問功千百編
盡閱一五機已通非特宜閨範優復入儒叢著述三十
卷惜哉付虛空餘吸有髮鬚覽者必激衷愧我男子身
讓與繼家風

族從姜昌會士

我昔升堂拜曾瞻淑慎儀閨中存宿學林下得嚴師切
責常行處虛明未發時菜妻與歎母同傳亦應宜
名門女士在納粹得太企欲識孺人德能令夫子賢古
經勤講確良友勉周旋只此一誠字行之四十年

守信堅如石發言溫若春謂宜貽福祿胡乃備酸辛瘦
竹秋無子飢鴻爭滿身悲靜二字蓋鑑鑑中鑒鑑

裁針寒燭伴書床筆拙王趙存心畫詩帶醉程玩理章
若置吾家男子列優看世稿更添光

城南有女士堂靜座無塵模範三千禮算飄四十春明
誠快地步恩愛重人倫埋沒竟何故青溪暮色頻
三從之親一甲年孺人才德我知專拙篇猶不能摸寫
矧可區區諂九泉

寄語坦園子如何失良友收拾遺文墨永言圖不朽

古來列女傳孰與我妹同役爨勤婦道鬻錢巧女紅早
年勸夫子從師俾發蒙懇懇規勉語累累足牘中績燈

述之責者亦無幾又何使孺人不爲吾家之丈夫而只爲明直之一良友也此明直之幸而吾家之不幸也吾安得不爲之悲且盡也蓋孺人卽我再從叔諱在仁之女也系之以辭曰嗟孺人兮靜而一冰玉之質存中發外晦而覺學問之功嗟孺人兮仁且孝舅曰賢婦攝去土墻引正路夫曰良友嗟孺人兮備嘗艱奈何乎天君子之速合兩美永言不朽是年冬十月下朔三從姜元會揮淚而書

挽章

齊閭周堯必稱姜靜一孺人集衆芳奉櫛良箴來正路

之步吾知其向上之功平生著述不爲不多而不使人
知如經書劄記序記箴銘之類隨錄隨註擲地金聲盡
歸烏有惟若干篇留落篋笥一翻全鼎其在斯歟奈之
何以孺人之才之德喫盡艱難一朝示越而又無一箇
血胤扶將於死生之際安得不爲之悲且唏也吾將以
任姒之德獻與孺人則固知孺人之讓而不居如世所
稱曹大家之英才亦孺人之所不屑也一言以蔽之曰
才德兼備謂之君子宅曰女史之爲孺人立傳者其唯
曰女中之君子乎抑余有私切悲于中者文學乃吾家
之青檀也顧余顓蒙到老無成門內弟兄其能據負繼

專精研究終始四十年之間除了供祭祀接賓客針線
繡等憂懼疾病等事如十三經是孺人之菜飯而舜之
說心湯之說性處靡不據其精微之蘊蓄愛看周公爾
雅左氏春秋近思錄擊蒙訣諸書而閭巷謬稗一不經
眼此豈非孺人之自得於天理之粹然者乎倘使孺人
而爲男子身則可以置經幄而進善納規可以莅函席
而牖蒙瞽俗其爲有補於世道者何如而惟天之子齒
去角其理則然尙何怨哉嗚呼性情之正得於關雎明
誠之學得於中庸安於貧則不愧乎簞瓢之樂發於詩
則可參乎濂洛之什銀鈎之畫吾知其直內之敬尺筆

哭而慟曰天奪我良友而令而後吾不復有爲矣第念
知孺人莫如我詳爲挽詩律絕四首而歸之遂續爲之
誄曰婦人之有才者未必有德有德者未必有才世或
有中才小德之兼而有者則猶可爲女中之士而我未
之聞也今孺人以絕人之才曠世之德未笄而有窈窕
之稱旣嫁而有涵養之實閨門之內肅然若朝廷之儀
而永夜寒燈孺人持針夫子讀繡其讀皆爲斯文之名
儒者實孺人開發之力也使夫子不以貧寒亂心而惟
學是勉則夫婦相戒之意有足以感神明而明直之爲
之也亦可謂勇往直前者矣孺人於是或從傍涉獵或
靜一堂遺稿附錄《謀文》

竊欲從事於是孜孜不懈閉戶讀書以終餘年而顧此寸進尺退前亡後遺作一天地間無用之物他日終君於泉下安得不汗顏哉嗚呼君之云逝人或勸余繼室又或使余卜姓而余既不能遵先訓奉師教從賢妻之戒則此心誠不忍一日安養祇欲自苦以死而但念血屬無遺重得罪於祖先是以晝宵悲歎罔知措身之地嗚呼嗚呼夫復何言日月周朞靈床烽撤從今以後雖欲有言告訴無處茲陳一觴聲淚俱迸嗚呼哀哉尚饗

孺人清一堂姜氏誄文

歲壬辰之月日坦齊尹明直喪其配孺人靜一堂姜氏

日甚兒孫盡散婢僕不智唯吾欝然一身履穿揭弊呻
飢呼寒卧起於荒園破茅之中一何身世之孤苦耶歲
值饑荒人心不臧盜及於庭几之物變出於情想之外
橫來之辱無從之毀繹繳其身拂亂其心而曾無寧靜
之日又何命途之巔巇耶是吾平日未能遵先人之訓
奉尊師之教從孺人之戒以至於此耶以吾師太賢之
德曾被毀辱於人而猶曰吾有自修之實則人言豈至
斯哉然則若余之言行謾淺未孚於人者宜其遭此矣
嗚呼生考嘗有訓矣忠孝節義是已吾師嘗有教矣克
復誠敬是已孺人嘗有戒矣存省之工中和之德是已

日辛未天尹光演哭告于亡室靜一堂姜氏靈筵曰嗚呼今日我生之辰余早失祜悲慟在身先妣憇我期我成人矣當此時截髮爲饌饋及同志輒設講席非要樂康實爲音益若繼妣志勸我麗座何有何仁平生殫力君今逝矣誰復繼之我獨斯存感舊悲時二三子來備壺傳觴觸物傷懷有淚滂滂君頻入夢執策問義或告休咎指以趨避謂靈昧昧胡能如斯我分斯酒侑君一酌知君有心爲我惻惻嗚呼慟哉尙其歌格

維崇禎後四年己重陽日丙子夫尹光演謹以卮酒哭告于靜一堂靈筵曰嗚呼君沒未幾疾病日侵窮蹇

戚戚吾時進食君又曰願慎飲食屢顧新婦意不能忘
又欲向吾有言吾曰勿勞也凡事吾已有講磨者當自
處之耳無何君遂冥然而寐蘧然而化其於臨卒之際
氣貌一容言辭周詳十如平日略無顛倒錯亂之舉亦
豈非大過於人者歟嗚呼痛哉自君之逝吾不能不過
哀或謂余曰甚矣子之哀也無乃自念夫鰥居孤處身
世鴻涼而然歟抑亦自傷夫單寒窮窶殯葬饋奠無以
如禮而然歟何其異乎人之喪之也吾曰否否子安知
我之心哉生老病死卽理之常長貧固窮乃士之分吾
何爲甚哀但念吾室人之亡吾有所疑誰其釋之吾欲

則易于改則難承順者多勸戒者少惟若之於吾行人之所辦得人之所少見吾有一善則非徒喜之又加勉焉見吾有愆尤非徒憂之又從以責焉必使吾立於中正之域爲天地間無過之人雖吾闇劣未能悉從然嘉言格論終身服膺所以夫婦之間嚴若尊師肅肅祇祇罔或有忽每與君坐如對神明每與君語如眼眠眩自今以後斯人也不可得而復見嗚呼痛哉君素嬰沈痼老而尤劇長在枕席迨至今秋數旬少間吾私自喜幸謂可以及見辰忽於一朝炳燭方其未沒吾入而視之君見我泫然泣下旣而正色曰死生命也何庸

理既知其當行則行之可也而必有師友之資然後所
行者不至於過差願夫子從師取友以自益焉吾又惶
然開悟自是就師門請業又從諸君守游用主於踐履
省察不敢自懈行年六旬迄無所成然比之少日猖狂
妄率亦自不同君又平日研窮性命之源探赜精一之
要常於應事接物之際凡然端坐體認未發自言每有
疾恙輒收斂端坐覩得誠明之界自然神氣和平不知
疾之去體也吾聞之甚喜遂勉而學之雖未敢自謂有
得而此心終不放肆以至于今日微君之言吾未知其
爲何狀人也嗚呼痛哉吾嘗謂婦人之事丈夫也相愛

夫某長不愚駢親齡漸高家計剝落役於營生奔走東西將不能保有恆心君嘗泣而勉余曰人而不學失其所以爲人與其棄義而謀生不若聞道而安貧且一飲一啄元自有定不可力求惟當脩吾本分以俟天命吾雖不才終不以衣食累夫子之心須以讀書爲念以副吾仰望之誠吾始感君一言奮發磨礪取四書及程朱書閉戶課讀頗致勤苦每展卷咿唔君執女工隅坐而傍聽吾讀未熟君已闡誦吾疑未解君已融會往復問難咸得領要如是五六年君又曰學而不思與不學同思而不行與不思同凡書中聖賢訓誥是當行底道

僕依之室無升斗之儲而奉祭祀罔或有缺囊罄鑑銖
之資而接賓客必盡其歡信於踐言及期則一刻不宿
明於辭受非義則一介不取急於周濟節於自奉嚴於
律已寬於責人舉九男女不苟而心無怨焉歷三晝夜
絕粒而容無戚焉字畫足以勒金石而傍人未嘗見焉
文辭可以侔鉅工而親戚不之知焉炎暘雖酷畫必掩
門而坐階庭雖近夜必秉燭而行聲音不出中閨足跡
不及外戶飲膳極其潔針線極其精此雖出於天稟之
卓異而蓋亦得力於經傳者多確有操守動成模楷類
皆如是斯豈人人之所可能也哉且不唯是也吾幼而

已夫尹光演因朝奠哭告于亡室孺人靜一堂姜氏靈
筵曰嗚呼今日是君回庚之日也使君而猶在則皤皤
然老夫妻相對雖粟飯藜羹啜菜飲水其樂亦足而胡
爲今日徒見有我不見有君素帷風淒木榻塵凝只留
殘稿剩墨散亂於空箱破篋之中觸目淒慘而已嗚呼
痛哉君之入吾室終始四十餘年其間同憂共戚食貧
攻苦之事追而思之無一非痛哭處也而惟君至仁至
厚至誠至正可師而可法可敬而可重者非但尋常婦
女之所不可及雖成德君子亦有所難者吾於是愈爲
之悲傷焉君之子歸父母安之娣姒宜之宗黨稱之婢

非孺人所自號而乃所願在茲云銘曰

猗嗟碩媛名閥肖子維德之符具茲四美敦悅詩禮循
蹈繩軌動靜無違行已有恥環佩瓊琚翼翼靡靡象服
是宜不徒簪珥好學善道是安素履天授慧識洞窮衆
理鷄鳴昧朝以勗夫子寤寐羹牆卽古莘摶弗篤弗措
死而後已清溪漣漪遁山崩嵒永安且固以藏女士德
音孔嘉昭示無止我銘不朽敬告彤史

崇禎紀元後四乙未閏六月上澣唐城洪直弼撰

祭亡室孺人姜氏文三篇

維 崇禎紀元後歲次壬辰十月癸卯朔十五日丁

公固窮勉學而得於內助者爲多云孺人九舉不育爲之畜妾視遇如子女而曰妬之爲惡當居七去之首繼子欽圭欽圭子九鎮嗚呼古先王施教初無男女之別而女子不就傳詩之所誠只在無非無儀惟酒食是議以故簪珥中雖有英姿朗識未嘗以道學自勗苟有一言可採聖人不棄此衛莊姜許穆夫人之詩所以見列於國風也詩猶不刪况專於學而窮天人性命之原者哉今讀孺人文其教學問禪世程者近古閨閣中一人非特婦人之能言者也余謂明道孺人君之師君更讀十年書可以知孺人之德明道笑曰子之言是也靜

又舉戒懼俾學者先知下手處非懸空說了又曰沃地
萬物與我一體苟未格一物之理則妄知自棄才
萬象以至經史百家日用所疑罔不鑽研錄爲三編多
精義名論竟缺不傳惜哉筆法一出心盡嘗不作閒言
語或爲君子代斷或爲箴戒發者偶被人見實自是繡
加韜晦以訥其出焉及疾革無怛化意見明直泣正色
曰死生命也何憾之有願夫子勉旃竟以壬辰九月十
四日卒距其生甲子一周也鄰里如喪親戚明直學徒
升堂而拜者皆素帶號哭十月葬于廣州道退里壬坐
從先兆也明直名光演城平人世襲文行服事鰲村宋

不知有饑寒疾病每聽晨夕鐘聲默驗心體存否如朱先生同安時書童擊水杓爲戲孺人令均其節以櫛揅舍之頃又紉針期以從此至彼不易此心竟賴存養之力始患浮揚漸底凝定焉好學如渴遍讀十二經沈潛闡繹窮晝夜罔倦博通六籍古今治亂人物臧否燦然若指掌嘗云五倫五常之理也皆人心所自然非勉強又曰身爲萬事之本敬爲一身之主敬身一篇是小學總會又曰學莫先於格致今人不能修齊由不能用工於格致又曰性命之微一貫之妙無徒作一場空說先從人事上求之又曰天命之性卽子思極言道之本原

嘗云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厭貧而至於訟泣非人道也苟其非義死且不可受況不必死而可以貨取乎善者治之源利者亂之極以故遇物先求義之當否苟有以利來者守正以遠之居恆無疾言遽色呵叱不及僕隸晝不窺戶夜不下堂臨財先人而後已分飪先死而後生善則歸人不善則歸已慥慥乎隱惡揚善曰不治已過而先言人過可乎有毀明直者勸其加厚曰盡已而已嘗云天命之性初無男女之殊婦人不以姪姒自期者是自棄也專於內脩動靜如一常服祫衣隨明直晨謁家廟退必端拱跪坐體認未發境界神氣和平

固陋穢從師友以自廣俾盡生三事之一義明直家益落不莫厥居僑寓窮山虎豹縱橫累日絕火又罹鴟鴞而孺人猶寬明直曰守正邪自遠矣脩短自有定命饑困尤當忍性悲未盡在我夫何怨尤明直有過失必重警不休雖在外堂出片幅止之有憫明直之貧操千金于囑者孺人勸其勿受曰詎可以千金而易吾之操明直亦嘗喪財孺人曰得失關數母少介懷明直赤手舉三世緬襄爲親族繼絕者近十人且營辦昏喪咸賴孺人之力明直好賓客戶屢常繕孺人極意供歡人詣其能孺人曰是婦道之疎節而猶不能則焉用婦人爲

靜端一足不蹈閭外處士公寄之曰山水軒從兄嘗稱汝母爲吾宗第一婦女汝其趾矣仍受女誠罔或少違及嫁舅宜其言行曰吾家其復興乎事尊章至孝定省必拜及喪哀毀幾不全時廡薄饑家聲銖粒而竭力終事體瘠駁瘃而不知勞致敬君子出行必拜勸其居業曰人而不學無以爲人與其棄義而營生不若聞道而安貧妾雖不才粗解針縫當襟體窮頹讀聖賢書無以家務累心明直感其言讀四子及程朱書孺人每手執刃尺隅坐而聽遂卽闇誦數帙突厥復勉明直從師曰學而不行與不學同竇知經訓之當然後可行獨學則

崇禎後四年己亥九月下澣三從姜元會撰

孺人晉州姜氏墓誌銘

坦園尹明直過余江漢之上示其內子姜孺人所著靜一堂遺稿要一言發其潛幽余曰婦人之德含章而不外見且竊讀其狀仁義忠信不離於心欲以文辭圖不朽者恐乖孺人素志曰無已則盍爲誌用壽厥傳余曰是不可以已也遂按而叙之孺人晉州人以高句麗兵馬元帥以式爲鼻祖奕世圭組名德輩出爲左海名族不須譜也考諱在洙妣安東權氏處士瑞應女寒水先生從玄孫也權孺人有異夢而舉孺人因夢而名性貞

曹大家孟德曜賢則賢矣吾未覩其聞道也否乎孺人
生于文獻故家端莊其氣貌簡正其言辭斐詳其動止
行足以標準一世文足以步驟鴻臚噫其盛矣且超逸
之才或久於涵養光明之德易蔽於氣慾知之不至以
其無講學明理之功也行之不力以其無誠意正心之
實也惟才德兼備知行交須者余於孺人見之然則如
孺人者奚止爲女中之君子實女史中所未有也余豈
或阿其親而溢美乎哉坦齋袖遺事一編泣而曰知吾
內莫如子詳盍爲狀余曰旣輓之又誅之若其狀德文
字又烏可以拙辭也謹掇梗槩以俟他日立言者

情良石既乎孺人舉五男四女不育取宗人光周子欽
主爲后娶韓山李文在女生一男九鎮幼孺人天姿絕
高地步醇深天人性命王霸邪正靡不潮流而窮源加
以存省之工中和之德發爲詞翰猶祥鸞瑞鷺光采爛
然而常自謙虛韜晦若無所有人亦罕有知者坦齋亦
搜輯遺稿將以入梓零金碎玉猶足以知其所存則一
齋全鼎其在斯歟嗚呼天地醇元之氣醞釀而賦人在
男子則爲堯爲舜在婦人則爲任爲姒繼堯舜而作者
文武周孔也繼周孔而作者程朱也前聖後賢統緒相
承吾道如日星于天而若夫繼任姒而作者果誰歟如

大勳封鈴平伯文康公諱彥頤以文學名父子俱見寵
史九世而昭靖公諱坤叅佐理勳封坡平君官吏判三
世而諱興商號永隱官都正值昏朝棄官隱 贈吏判
諱傳號九思掌令諱在莘號樵漁薦學行由洗馬正縣
令諱枚號浦隱 贈吏叅諱二星號克齋師尤庵先生
郡守 贈戶判諱心震號正心齋知樞諱東燁號自齋
早游渼湖之門有文行卽其十世九世若七世六世而
曾王考王考考也妣天安全氏生員汝忠女也號只一
堂其行蹟有剛齋語坦齋篤學四十年內有良箴外有
賢師苑爲儒門之望而遽失閨中切磋之益其悲哀之

錄以爲楷模壬午七月孺人得危疾氣絕三日而蘇答問編言行錄并見闕失孺人歎曰平生精力盡歸烏有矣壬辰秋疾革屬纊前一日坦齋入見泣下孺人正色曰死生命也何戚之有顧夫子慎旃是年九月十四日卒于漢師藥峴里坦園第享年六十一隣里老少聞孺人之歿皆失聲哭學徒之在門而或自幼被養或升堂拜見者數十人亦皆帶素號哭以十月三十日葬于廣州清溪東大匯而遁退里壬坐之原從先兆也尹子名光演字明直師剛齋宋先生剛齋命其號曰坦齋其上祖諱莘達佐麗祖官太師玄孫文肅公諱瓘討女真有

用功也又曰性命之微一貫之妙無徒作一場空說話
須先從人事上篤實求之又曰天命之性自是子思極
言道之本原又指示戒懼使學者先知下工夫處非懸
空說了又曰天命之性初無男女之殊婦人而不以任
奴自期者是亦自棄也又曰天地萬物與我一體也苟
未格一物之理則欠吾一知自天地鬼神卦象井田以
至昆蟲草木與夫經史難義日用所疑一一條列以質
于坦齋坦齋隨知隨答所不知者問于師友而答之坦
齋又或設疑問難則孺人盡其意而答焉遂錄其問答
爲二編以爲體行之資人有一言一行之善則聞輒入

坦齋者而未及酬應則孺人或代撰而曰此非婦人事也或恐人之見知也已未秋坦齋拜中洲李尙書丈直輔詩次偶及戊午一絕李公極加歎賞曰賢夫婦相戒之辭孺人聞之媿自是益加韜晦片言隻字絕不示人至辛巳除夕始見一詩蓋知坦齋之益謹於言也嘗言至倫五常之理也皆是人心自然處非勉強也又曰師者雖非天屬然生三而一事之故有心喪三年之制而今人不知有此顧夫子克從古道論小學則曰身爲萬事之本敬爲一身之主故敬身一篇乃是摠會論大學則曰學莫先於格致今人多不能脩齊由其不能格致上

又嘗見朱夫子在同安聞鐘一聲未絕此心已自走作
之語每當昏曉鐘時默默體驗書童擊水杓爲戲疏數
無節孺人令勾其聲以驗此心操捨之頃又或持針紉
線期以從此至彼不場此心自言始患浮撓漸至融習
泊晚年表裏泰然矣遍讀十三經沉潛紬繹每獨處吟
誦又博觀典籍古今治亂之迹瞭如指掌舊作字書常
於燈下運毫迺逸楷正模寫尊王舅正心齋筆法及黃
道谷都正運洪艮齋校理儀權天游進士復書亦學心
齊性澤號剛齋半行而銀鉤鐵索一出心畫工於詩律不
甚用功而自然成章文則三十後始爲之人有謁文於

來說者但當守正以遠之耳平居無疾言遽色呵叱不及於僕隸音樂侵虧喧闐外庭而夫婦窺戶夜不秉燭則未嘗下堂用財則先人而後已分飪則先死而後生善則歸美於人過則歸咎於己揚人之善唯恐不及掩己之能唯恐有知惡而謂其善愛而知其過然未嘗言人之過曰不治己過而先言人過可乎人有毀己者勸夫子加厚曰盡己而已平生篤學探赜天人之際研窮性命之源致力於存養省察敬義交須勤靜如一小時讀中庸戒慎章剖析精義闡合紫陽之旨閑居無事闔戶端坐體認未發自言神氣和平渾忘飢寒疾病之苦

遠近接濟未嘗或闕坦齋性喜賓客戶屢常滿孺人從其志每客來極意營辦雖疏食菜羹薄酒寸肴必致精潔使客忘其貧而盡其歡人或謂其難能孺人曰是婦道之小節也此猶不能則焉用婦人爲哉嘗曰不能一炊而屢年拮据得數十緝成人大事終絕口不伐已功有所假貸於人則指日以償雖典賣裙釵不踰其期嘗曰人之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每有厭貧之心至於怨舅姑訕夫子是非人道也又曰非義之物死且不可受况在不必死之地而可以貨取乎故見一物則必先求義之當否又曰善者治之源利者亂之樞若有以利

命自有定分皆不必憂但患在已之道未能自盡夫何怨尤乎坦齋偶有過失則必申申勉戒在外堂處事又或不中則以片紙急報止之一宰臣問坦齋之貧時有操千金而干囑者宰臣書於坦齋曰事直矣君其以書告我我其成之孺人曰以千金而易吾之操可乎勸夫子報書以辭又嘗失數百金坦齋有憂色孺人曰得喪關數何必芥懷况皇姑之言曰甑已破視何益丈夫不當憂此等小事耳坦齋素無甌石而行三世七位緬葬於千里之地爲兄弟親族立后者七八人營辦婚喪亦多且數從師友於遠道而孺人能以死守家治規井井

人每手執刀尺隅坐而聽或問字畫或問音義諦視其過遂卽闇誦又解奧旨坦齋大加驚異遂相與講確日聞所不聞後數年又曰學而不行與不學同凡聖賢謨訓旣知其當然則可以行之然獨學而無師友則不免固陋願夫子從師取友以自益焉坦齋益自奮勵就師門請業多從諸君子游學業大進坦齋嘗寒餓日夕廻作遠行孺人奉以一絕叙臨別之懷且勉以物理循環不足欣戚之意戊午僑居果川借人空舍虎豹晝嗥夔魈夜啼滿目淒荒且七時絕粒間遭兒憾孺人猶能寬慰曰夫子守正邪自遠矣飢困之時尤當忍性脩短之

夫子每出行經宿以上則必拜歸如之閨門之內肅若朝廷有丈夫第二人友愛篤至自失所怙益加撫恤癸丑日會負笈京師從我先人卒爲謹飭之士孺人志也見人薄於夫之兄弟則甚非之曰知愛其夫子而薄其兄弟是不體舅姑均視之意也尊舅喪後家計益剝落夫兄肅庵公光就屋數楹身親鄙事猶不贍於奉養坦齋亦曳縗奔走於湖嶺之間孺人泣勉曰人而不學無以爲人與其棄義而營生不若聞道而安貧婦雖不才粗解針績當日夜孜孜以具醴粥願夫子讀聖賢書無以家務關心坦齋感其言取四書及程朱書讀之孺

興乎癸丑尊舅下世甲寅夏孺人始自清江舟行母夫人戒之曰善事尊姑無違夫子娣姒親黨之間須盡吾實心貧者常也一任命數慎勿戚戚孺人承聆而退終身不忘雖於無人之地昏夜之中言不敢不謹行不敢不徐夙興夜寐極其孝敬定省必拜得一味則必藏儲以爲供親奉先之需尊姑愛之甚然不敢恃此而少有怠忽終尊姑之身十六年如一日已巳尊姑之喪哀毀甚切晨夕之哭上食之節盡其誠禮時值荒年冬且寒嚴家罄銖粒而竭力營葬每事必親手足皲瘃人或言其太勞孺人曰是何言也吾不爲而誰爲之乎致敬於

過人善女紅不教而能灑掃應對恰齊家訓兄嘗謂其母曰
以爲天人清江公奇愛之曰山水從兄嘗言汝妹爲不
權第一婦女汝其趾矣八歲先府君誦無非無儀夜行
以燭等語以訓之孺人俛首聽從固或有違親有疾撫
研寒盛暑不承衣不交睫藥餌食飲必躬親之戊申增
外艱哀毀踰制幾至傷孝家甚貧從母夫人針線紡績
達宵不寐母夫人憫其勞令暫休孺人對以不勞且無
睡意以安母氏心婢僕輩莫進魚果之屬雖甚飢必奉
手母夫人辛亥歸于坦齋尹子兩家俱貧未卽裝行翌
年尊舅臨見留十數日察其言行甚宜之曰吾家甚復

濟溥號無有堂通德郎以文行三登銓列終屈於命曾祖諱杜字號就將齋中景宗癸卯司馬疏伸尹公志述冤大忤一邊人遂終身坎坷有遺集藏于家祖諱心煥考諱在沫俱有篤行蚤世不振妣安東權氏清江處士瑞應之女玉所山人燮之曾孫遂庵先生仲弟叅判尙明之玄孫也孺人以英宗壬辰十月十五日生于堤川近右面新村第先是母夫人有娠夢兩聖妣降其室指侍者一人曰此有至德今以付汝既而孺人生母夫人心異之遂因夢而名焉性貞靜端一喜怒不形於色自幼不與羣兒戲足不履闔外雖清瘦多疾而精力

卒知敦寧府事謚戴敏諱希孟號私淑齋三登巍科再
捷勳盈封晉山君卒左贊成謚文良俱見名臣傳皆有
集曰晉山世稿諱龜孫文科右議政謚肅憲肅憲之曾
孫諱克誠號醉竹校文科舍人 賜暇湖堂諱宗慶號梅
墅文科薦史局未及補而卒 贈都承旨諱晉暉號壺
溪 肅宗寢郎牛溪先生嘗許以吾道有托不幸早殤
亦皆有集曰續世稿取第生員諱晉昇仲子爲嗣諱德
後號愚谷著訓子格言 贈春曹亞卿諱錫圭號聾牙
齋文科擢於貴北謫東遷十年而宥又以文章忤權戚
官止軍資監正知製 教寔孺人之五世祖也高祖諱

附錄

行狀

孺人姓姜氏號靜一堂系出晉州隋煬帝東伐高句麗時兵馬元帥諱以武大破隋師名震三國是其鼻祖也奕世蟬聯爲東方名族有諱啓庸文科以國子博士佐金方慶征日本有大勳封晉山府院君歷三世諱君寶文科門下侍中鳳山君諡文敬諱馨號養真堂文科三重大匡門下贊成事晉山府院君諡恭穆事在麗史諱淮伯號通寧文科政堂文學諱碩德號玩易齋以隱逸進長國守憲府亞東鑑南宮事我英陵贊修五禮儀

幼遺稿之嘗刊詩傳誠出孝思而紹述言行尤大於此所當夙夜自勉而文字剞劂家既窮窶末由強就則姑爲精寫數帙以待事力之稍裕似無害於孝道矣先稿刊役夫子必欲成之而東伯參判及西河倅大計濟弘既有惠助親戚知舊之出力者頗多今宜卽速始役不可遲延遷就或至乾沒自速大戾矣

洪洗馬直云以實心行實事今士友中能如是者幾人苟有實心實事則必能終始如一表裏相合斯可以知其人矣

靜一堂遺稿拾遺錄

此是嘗所暢然者今承勉勵敢不服膺

君子非禮不言怪力亂神子所不語近聞門下少輩說利談怪漫浪度日何不嚴責使之正容讀書點檢他入曾傳云有諸已而後求諸人敢以是仰勉

海石金相公嘗謂夫子曰某在山亭終日只對坦園見屋上烟生則想醴粥之炊否見學徒出入則知教授之多少此固出於相愛之意然又安知非戒夫子以固窮樂道篤學誨人耶每思其言深覺感荷

通次兒枉所講何書所質何義必多耳聞幸望錄示
下示李英陽丈建所教條條皆是深用欵歎但夫祭妻子讀祝一段與先賢說有異同蓋於洪斯文雖就質焉尹尚書光來示其是非吟是非何日定何人定是非是
一日非是非每相違誰決是非訟永罷是非固爲可感但詩中是非渾無指的恐未可輒和姑以請辭如何

下示一絕五韻吾願學姪姒子故朝暮時莊誦無已人莫不知人性之善莫不知聖人之盡性而苟不知如何性善立志不堅作轂無常一日二日年光流邁竟未免齒豁

園中平穩臺李洗馬燮名之其地犧確不平而名曰平
穩似有所取義更逢時問之如何

凡民俊秀三古之所不棄也今書童中盧龜詳明李嚴
敦厚劉喆孝謹皆可教也請勿以卑幼而忽之莫不
族姪濬永待其從兄允若同已且睦于親戚能承先父

兄之篤行甚可嘉也

從舅東洲公字畫正直文軒叔挺士光義
初名光載筆法逾敏今
篋中唯有數行請分送于禮山叔光及學
勤使之謹
守以存典刑焉

沈恩津文虛顧可歎任牧使
魯李馨郡守兩賢及沈上翁弘
模

讀一書遺稿

下教水能潤物而粘石不潤此似爲下愚而發然如使聖人當之則安知或因其一端而化之也竊願不患其不潤而患不能潤

李承宣晋庸學劄疑聞是與洪尙書夷講辨者其義周詳又其所著山野間答淹博綜數可爲世用云從近借示甚好耳

先祖愚谷公訓子格言鶴谷族兄昌方付梓而將分送于親戚云幸須托于三洲兄元受一秩以來如何夫子嘗言德雖小宜思報向賴崔上舍漢綺借乘得遂懷鄉宣城之行良非小德曷不思報耶

靜一堂遺稿拾遺

詩

奉寄宗人東伯

聲大代夫子作

辛卯正月

言議常存長者風句宣東道誦治功棠軒無事吟詩處
嶺月川雲似畫中

尺牘

從孫鑑之女今四歲穎悟有心地苟隨事循循提誨導
之以誠正則庶幾他日進就婦德矣

晝寢則氣昏志墮多言則怨生謗興過飲酒則戕性而
喪德多吸咽則損神而長傲俱宜戒之

靜一堂遺稿

存乎余聞汝祖考杞闢公以校理入侍時正廟特賜
一硯日諭曰爾是直齋之孫清寒之家勉之勉之杞園
公常寶用此硯洎晚年以付于汝汝其可不敬歟汝從
學于夫子既有年矣夫子近作懷川行又遊關西托余
教汝汝年既淺少家又酷貧若立志不堅甘自暴棄則
非但有違先祖之意亦將上負先王之命汝須一念
兢惕昕夕孜孜必以三德爲柯則介然有常如硯之貞
密然收斂如硯之靜凝然自持如硯之重從斯於是進
而不已則庶幾硯田之中日有穫焉

靜一堂遺稿

終

略齋送以伸私情

以上余所聞見

古之人事死如事生故齋之日思其居處笑語志意所樂及其所嗜然貧家祭需當先期營辦若待齋日而思之則每多不及之歎况禮相助奠是婦人之職則尤是余勉力處苟見一物之合於祀用及先世嗜好者誠心藏儲及期而用可也余故錄此以備忽忘且令兒輩常目於是以盡報本追遠之誠云爾

硯說示李童子弗億

敬鑑
兒名

硯有三德一曰貞二曰靜三曰重貞則久靜則專重則不撓是以君子貴之况於先王盛恩先祖遺澤之所

無所欲但此時新稻未作酒飯肥牛肉作臉炙則佳耳
公計辰適八月九日也先舅常曰子孫雖貧唯是因者
此時不甚難辦苟有誠意極力爲之可也以上開
諸夫子

祖姑貞夫人李氏嗜肉贈先舅姑臨祭必具

先舅自齋公嗜硬物先姑只一齋嗜潔膳先姑嘗謂余
曰先夫子喜食乾匏吉叟豆卷菜故辰十六月二以此
爲需季兒亦同嗜而其生日後先夫子八日故儲餘菜
以食之喪後則忌辰亦用此物吾最喜精繫白飯及乾
石魚新婦亦然父子姑婦之同嗜亦奇矣

吾先父母嗜乾魚肉先姑有時命送近因夫子之教略

松翁其諱辰雖在冬月十一月會祖舅必具松餅松酒盛以松盆櫻薦之洎祖舅晚年猶不廢以上家

庭傳聞

曾祖舅判書公喜詩酒嘗曰先祖忘世公德行何敢企及唯此二者其庶幾乎其在茌邑時值荒年急於賙民常啜粥而賑之又性至儉衣服器皿稍華則必嚴責之唯酒醪之需雖或過費無責焉客至必設酒數巡肴用脯果菜菽而已飲雖多常自溫克不至於亂時有親友謂公曰子以克號雖出於克已之克其亦溫克之謂也公笑曰溫克不亦克已之一端乎

祖舅知樞公嘗於旅館值仲秋先舅請問所欲公曰別

隱堂又於粉土山下築一堂扁曰白直齋日與學子討論經史或琴酒自娛

八世祖舅忘世軒公性喜詩酒嘗曰詩不必巧言志而已酒不可亂浹洽而止以上見家世故事

六世祖舅浦隱公好讀書夜分方寢鷄鳴卽起常節飲膳不多食夫人沈氏甚有婦德平日誦論語小學以爲脩檢之方每夜深以小盃斟酒和蜜或桂糖之屬進之因講問經義

高祖舅大憲公性愛松几杖器用皆以松飲松筍酒服松葉屑凡松之姿狀臭味與其節操靡不好焉故人稱

硯匣銘

鈍爲體藏之密須點檢無汙缺

扇銘

月在手風滿袖

木鳥銘

是何鳥坦園隅

雜著

思嗜錄

十一世祖舅議政公少時被酒睡於花樹下

十二世祖舅判書公南歸後建書齋於飛鳳山下扁曰永

淨一堂遺稿

銘

雜著

三十九

靜一堂遺稿

祭留取子金公允歎文

代夫子作

維崇禎紀元後四庚辰二月丁亥朔十八日甲辰坡平
尹光演竊聞留取金先生繩行將向黃驪力疾而來謹
以卮酒楪菓哭訣曰嗚呼志尙三英颯爽倜儻欲學未
究晚陪餽杖益部耆舊衰俗興想嗚呼哀哉尙饗

銘

筆筒銘

達零鵠皮文房良友贈篤不怠

案銘

肘不離此功以歲計如對嚴師終日敬畏

靜一堂遺稿

維歲次甲戌二月壬辰朔一日癸巳族從某謹用酒果
之奠使從遊生韓洪基哭告于聖寔靈筵曰嗚呼今日
卽君之終祥也星霜屢易筵凡將徹鶴髮之二親冤號
伶傳之彌孤茹痛君其冥漠而不知耶抑長往而不顧
耶嗚呼性行之慈仁宜享厚福而夭其天年詞翰之精
妙可振衰門而未成一名此何理也同人之諉由前篤
矣而自君之弟光學后吾叔父情之密而愛之摯期以長
途托以平生者今焉已矣去年湖行歷入一哭結轎之
懷未盡杼寫沮以山川間濶疾病纏身操故一醉亦未
能躬將嗚呼聖寔諒此情而歎茲卮也尚饗

崇禎紀元後四戊辰八月甲午朔二十九日壬戌坡平
尹某謹以菲薄之奠哭告于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
五衛都總府都總管無心翁洪公靈筵曰恬靜廉介維
公常德肅整精白居家之則施政湖邑民歌惠績歸棲
南郭安于家食壽由稟厚從以人爵天褒有輝匪頌繼
侈允耋八座蔭途罕覲晚忝鄰契獲侍座右不以鄙幼
實荷提誘公少許可於我特厚勉以大節曰忠與孝大
字書贈梓紳銘鏤奄悼登化祥替且邇迫於憂病未即
往謀摹負夙昔如轡如噎薄醪短辭敢陳斯義尙饗

祭族弟聖寬

光德文氏作

年戊辰十月始如其請計令已于五年顧余淺陋何足以爲人師第念恭人眷眷之意積年勤摯令人感歎而欽服豈敢以存沒而有間乎取和立心持身粗知其方可謂不負義方之訓矣雖以箕裘之業從事弓馬而觀其貌聽其言儘是謹飭儒士也余於恭人之狀不敢辭而爲之者以此然其淑德懿行之可書者甚衆今略存梗槩以俟後之立言者云爾崇禎後四年孟夏下浣坡山尹某謹狀

祭文

崇禎祭無心翁洪公

絲絰文氏缺

上祖諱興光以新羅憲康王第二子知宗國將亂遯于
光山子孫因以爲鄉貫蕃昌赫奕爲東方大姓入本
朝有諱成玉文科大司成五世有諱浹科校理又三
世有諱孝信始以武進官止訓諫都正錄原從動自是
世登武科冠冕相繼四世有宣傳官贈左承旨諱
漢明宣傳官贈參判諱聖弼同中樞諱得衍是其曾
王考王考考也初娶延安金氏載厚女無育恭人其繼
配也育一男卽最和辛巳登武科娶司果李時祥女二
女幼金公爲人濶達信厚庚申夏余始識面一見輒以
托子爲言余辭不敢當且余間多棲胥未暇及此越三

必求良工人欲學必求賢師聞尹子賢者地盍使兒子就學古有二遷之教又有千里從師者况在同城而憚遷徙之勞乎夫子從其言命取和來學於余乙丑冬因婉後餘症徑年沈篤語家人曰吾知此病終不可起脩短在天復何怨乎但恨未及見吾兒之將就又得娶婦以承先幹蠱也丙寅十月之望疾革猶命取和出就書齋行數百武兒忽心驚而身慄仍還歸扶侍是夜恭人謂之曰夫子適出外吾病殆不救是吾憾也吾歿後爾無虛送歲月從師善學以慰吾九原也翌曉遂終某月某日葬于高陽元堂面木稀里某坐原金公字永之其

焉寧可不惕念加勉乎未嘗言人短處不對人詈罵不與人強辨恆云雖有譽我者我無善不足喜也雖有毀我者我無過不足愠也財物取予之際分數甚明有所貸用於人者則記其月日及期必償喜施恤貧寒者衣之飢者食之無少愴惜教一子有法度恆云人孰不愛其子善教者是真愛子也若溺於情而不知教則是禽獣也其所以愛之適足爲害矣兒子幼時惰遊不讀則反覆戒之曰所貴乎人者行也欲明其行要在讀書吾聞讀書次第莫先於小學爾須受讀而體行之兒子或有過則必告夫子訶責而憂楚之請於夫子曰器欲成

夫子事無鉅細惟夫子是從或值其怒則惴然不敢出一言嘗謂人曰家長過致恚怒雖或不當於理在我之道只當遜順承受而已雖惑於女色亦宜勿姑以遵婦道也見人家婦女之妬悍及肆於言而湎於酒者恥其所爲而深戒之每早盥櫛掃除室堂終日孜孜而語音不出於閨門足跡不及於外舍膳羞必要精潔裁縫必要端正夫子喜客過從者多孺人殫心力以接待之恒云吾家男子出則爲他家客他家男子來則爲吾家客當以誠待不可疎慢况接賓之禮次於奉先而爲主人者每多不誠內間婦女尤爲忽略至於婢僕從而倍甚

副護軍道章之女

英宗壬辰六月初六日生恭人性

質溫和慈諒辭氣寬緩詳明白幼以孝友見稱於宗鄰及歸夫家事尊章致其誠敬每旦夙興同寢夜分俟定乃退習以爲常久而不少懈朝夕之供極其滋味有疾則藥湯糜躬自煮和適其溫冷以進未嘗卸衣就使處復常然後乃止每事先意承順雖細微未敢專舅姑極加愛之常撫背曰吾家賢婦也嘗抄女戒三綱等書以諺字翻寫記誦而慕效焉見人之不孝於親者歎曰何其爲人反不若禽鳥之反哺乎考妣旣歿庶母靡所依託請于夫子率來同居終始二十年恩義如一敬事

恭人李氏行狀

代大
子傳

景賢窩金公命運與不佞有三十年之舊其子叢和以親命來且受書由是益知其世德之有淵源而家範之多可傳久矣今叢和以其大人命記其先恭人遺事袖致而泣請爲狀追念契分之深厚烏可終辭乎謹按恭人姓李氏譜派也成宗大王子景明君諱忱卽其鼻祖而其子曰安南君諱壽鍊安南生錦川君諱甫錦川生昌原正齊衡寔恭人六世若五世祖也高祖諱生寅進士曾祖諱端錫官吏曹叅判贈吏曹判書祖諱克淵通德郎考諱台秀訓鍊院僉正妣淑夫人晉州柳氏

世俗簪珥之則也不妄始拜於甥館也庸駁無似孺人
問所讀書對以四書小學孺人謂曰若不體行便是虛
讀當日唯唯而已追思始知針砭之切也繼而承誨者
不一二事親飭行之要治心向學之方片言提撕簡而不
不煩尤信乎所存之實含章而益光也日會有志無年
家庭事行之紀述闕如也時會懼其久而無傳以狀文
屬諸不佞既於外舅言行忘僭而述之又略取室人所
錄孺人遺事及時會之逮於耳目者參互而刪補以備
立言者之採擇焉歲乙亥臘月下浣外甥坡平尹光演

譯狀

疚因以成疾終制後數年移往清風甲寅命長子日會
往漢師及連鄉爲其受學也日會以遠離病視辭孺人
勗之曰汝旣稍長吾病非朝夕危者往須讀書修行無
廢先人遺教以重吾罪也越明年冬疾革從裝還堤鄉
舊居遂以十一月廿三日卒享年五十六丙辰二月十
五日葬祔夫子墓一男日會時會一女婿尹光演卽不
佞日會娶金煥參女生一男祈永一女俱幼時會娶李
載萬女生一女亦幼於乎孺人行誼淳備才識超詣處
窮鄉食苦貧凡其遭值多人所難然孺人處之沛然而
順穆如而定門戶得以維持劬先而盡後者俱可以爲

曰婦人順從爲務貞慤爲首聲音須低緩動作必有常
嫁之曰戒曰孝於姑敬夫子和妯娌是吾願也爾能如
此則養志之孝孰大於是貧富自有定分寒士之妻昧
於此義每存厭貧之意亦何益哉壬辰祖姑捐世越五
年又遭尊姑喪終事如禮哀毀踰制處士公無子取從
子中實爲后公既於癸巳喪其配李夫人因就中實居
于堤鄉孺人與之隔牆便於溫清致其誠孝者凡八年
及公疾篤三朔侍湯不暫離側及卒致其哀慕戊申秋
夫子暴疾不起殯葬畢矢不欲生念孤嗣幼而靡托強
自支延以育以誨自爲未亡人未嘗輒見天日積傷悲

其後子孫蕃昌圭組相望在我。睿成兩廟有諱城策
翊戴佐理功封花川君謚襄平歷六世執義公諱格以
直節著名生三子畏遂庵先生諱尙夏傳宋子道德之
統寔爲儒宗次諱尙明有志行早世。贈吏曹參判季
判書諱尙游以德業顯參判公卽孺人高祖考也曾祖
諱燮號玉所山人行該高善文章隱德不仕以壽階至
同樞祖考諱初性通德郎考諱瑞應修潔好古後人稱
爲清江處士妣延安李氏學生齊哲女。英宗庚申四
月十日孺人生于清風黃江里第性端莊貞潔聰明絕
人自幼事父母能以至誠晨夕行定省禮婉容怡聲於

歸我家不過四稔壽僅二十一歲其閨範女行固不可以詳悉而壬寅往寓時雖值窮匱倉卒孝敬勤敏之節彰然自著余時五歲兒也孺人常抱負育養恩義甚摯今尙宛然可記其他可稱之行先妣在時每舉以語不肖者也其敢忘諸噫孺人乃心夫家以未及子歸爲恨竟夭逝於本第翳然孤塋寄在湖鄉其爲存沒無窮之感當如何哉余庸是結轎于中跋涉遠道奉櫬移葬以祔于亡兄幽宅者成孺人之志也辛未冬夫弟某謹狀

外姑孺人安東權氏行狀

代夫子作

外姑孺人權氏籍安東始祖諱辛佐命麗太祖官太師

意奉奉洞屬惟一終致感回而愛重之事夫子敬而無
違凡事罔敢自專夫子或以窮悴發於憂歎則輒以理
寬譬每日鷄鳴而興整理家務夜分就息或徹曉方作
不以爲勞常以婦女惰容嬉遊爲戒平居覩默端坐則
雖親戚婦人不敢穠言哄笑於其側其律已而孚人有
如此者奉先甚虔遇可於祭需者必儲而待習於薦享
辨具親黨有事咨孺人而後行族父山水軒先生震應
亟稱孝敬之篤女工之善曰吾族婦女罕有其比教子
女常謂爲母者溺愛護過不使父知是長其惡也吾所
深戒由是在膝下者無敢爲非正送事詔室人之訓有

側使親心悅豫敏於女紅精於治膳紡織裁縫擣熨之
法烹飪芼擇調和之節必於親便體而適口也鉅萬之
數能屈指而計之不差跨贏握算者莫能及讀列女傳
婦訓女誠等書及觀古孝子烈女事潛心慕效焉與姊
妹篤於恩愛親有疾達宵不卸衣煎藥煮粥必躬執之
其在童年行純德美已如此蓋由處士公教導之正而
出於天得不待矯勉者多焉年二十及于姜氏名族也
夫子諱在洙賢有志操孺人之始歸也家道杌樞生業
凋零上有繼祖姑及尊姑無以爲養乃殫誠竭力以供
菽水冬月手足皺瘃不見辛楚色祖姑性嚴難事而先

往依孺人本家越一年更移他所孺人未及從常歎曰
婦人有從夫之義適人固當于歸而吾則未能深可恨
也性誠勤柔順早孤而事母氏盡其孝撫弟妹極其恩
愛及嫁事舅姑暨夫子誠敬備至夫之弟妹亦接以友
睦舅姑夫子或有不悅之甚未敢少有怫然之色終以
婉順解之紡紝之工惟日孳孳家人罕見其滅燭休息
治膳羞執縫紉皆精好有法度 正宗甲辰九月十六
日卒于青陽本家是年某月某日葬于本縣南上面防
築村辛坐之原 當宁辛未三月十二日改葬于廣州
大旺面遁退里金谷亥坐之原合窆于夫子墓孺人之

內制減毀過程慰親鰥苦夙宵營營蒲博之費稗官之
誦招延拮据以寫愁寂勸弟從師躬給衣食交人不妄
言必敦倫婦曰禹氏嫗德述仁侍疾尊章誠恪聞隣鳴
呼斯人生而窮貧歿不得年一孤繼天報施理舛奈何
蒼昊載此銘辭以詔來後無或耕犁永綏斯兆

行狀

前嫂孺人柳氏家狀代夫子作

孺人姓柳氏系出文化曾祖諱應壽僉樞祖諱英縣監
考諱遠大妣漢陽趙氏生員位復女生于英宗甲申
年十八歸于我伯兄是辛丑歲也翌年壬寅吾家流寓

始泉處士全義李公德來與某相善久歲玄默敦牂之
仲夏訪余居泣而諗曰長子元培以時年八月廿五日
死距其生癸丑十月四日僅廿九稔也權瘞平延曙驛
新寺洞又將移襄于楊州四派其妣李氏山下艮原噫
元培孝子也宗鄰鄰戚罔有異辭且獲遊於吾子之門
吾子亦嘗以孝稱之銘其墓而徵於後非吾子而誰托
敢以爲請某聞而悲之略掇其言而爲之銘曰天畀秉
彝孰充厥類李氏之子伯仁其字粵白髫龀孝敬克備
溫靖以時便適親體就養百方務悅心志必有酒肉供
以滋味客至欣接益酌不罄親或出遊資斧常贏及遺

病固也家素貧歲且大飢親朋之知其情者欲助而全之其勢難繼及病泄甚投之藥幸或愈涉月竟不救死之日乙亥正月初四計其歲未朞也廣陵有家吁力不能致淺埋于村南坼峯之右麓厥十四日因其地完墜焉嗚呼物之有血氣者生則有終莫非命也或養之失其宜不得全其性者亦可謂命耶如此兒之夭椓其生亦由命之固然而不責乎人事之失宜乎悲悲而不能捨從以文而誌之無乃過於情歟庶幾後人之諒此而勿使畔輿之及而壞夷之也父坡平尹光演明直父識

孝子李君壙銘代夫

此辭於幽墟庶幾更百世而勿侵夷

殤女瘞誌

代夫子作

嗚呼此坡平尹光演殤女之藏也其名季淑母曰姜氏
甲戌八月二十九日兒生于藥峴坦園之第形端正內
明慧三四朔能辨其父母顏雖啼號見父母輒止其聲
近之則孩笑遠則流睨朱夫子所謂無知之兒見父則
笑者耶前此舉五男三女俱未言而夭父母未聞呼父
母聲兒最後生冀其長而寄懷愛之同男子子母素患
乳無漚兒纔生七日襁抱就乳於他處所丐涓滴以活
寒暑遠近不暇顧間以糜粥哺之外氣侵而中胃傷受

長子而無或白遂卒于當寧癸酉二月二十一日越
三月二十八日窓于報恩外北而禮同里德加覲坐已
之原新兆也林叟公諱命祖慶州人前娶江陵崔氏育
一女適柳明孺人繼配也舉三男長致遠娶金振光女
次致道娶陳亮女次致達娶孫奭女致遠三女致道一
子璟俱幼致達持狀纍然而至托余以埋銘固辭非其
人而泣請不已念昔同閭也吾先妣疾病賴孺人佽助
獲以濟焉吾先妣亦嘗慕其義而稱之曰賢今忍以不
文而終默而已乎謹擬其梗槧銘而系之曰和足以宜
一室而默能以應萬爲允叶乎含章之貞閨樞之葬列

此辭於幽墟庶幾更百世而勿侵夷

殤女瘞誌代夫子作

嗚呼此坡平尹光演殤女之藏也其名季淑母曰姜氏
甲戌八月二十九日兒生于藥峴坦園之第形端正內
明慧三四朔能辨其父母顏雖啼號見父母輒止其聲
近之則孩笑遠則流睨朱夫子所謂無知之兒見父則
笑者耶前此舉五男二女俱未育而夭父母未聞呼父
母聲兒最後生冀其長而寄懷愛之同男子子母素患
乳無漚兒纔生七日襁抱就乳於他人所丐涓滴以活
寒暑遠近不暇顧間以糜粥哺之外氣侵而中胃傷受

長子而無或自遂卒于當寧癸酉二月二十二日越

三月二十八日窆于報恩外北而禮同里德加硯塋已
之原新兆也林叟公諱命祖慶州人前娶江陵崔氏育
一女適柳明孺人繼配也舉三男長致遠娶金振光女
次致道娶陳亮女次致達娶孫奭女致遠二女致道一
子璟俱幼致達持狀橐然而至托余以埋銘固辭非其
人而泣請不已念昔同閨也吾先妣疾病賴孺人佽助
獲以濟焉吾先妣亦嘗慕其義而稱之曰賢今忍以不
文而終默而已乎謹掇其梗槩銘而系之曰和足以宜
一室而默能以應萬爲允叶乎含章之貞閨樞之葬列

孝於尊姑而敬夫子無違在膳羞適溫清未嘗少懈值
不安節躬執湯藥累夜不卸衣尊姑感其誠嘗曰願吾
子孫皆如新婦也夫子或有過從容辨析引而當道有
憂戚則輒以理寬譬母夫人年老窮獨孺人焉依孺人
奉而致其養暨終事無憾一弟早逝而有遺孤俾成立
而奉其祀持家勤敏早作晏息執女紅節冗費而至於
周人之急無所憊惜合於祭品者則預儲以須茲事宿
齋致潔與妯娌恩愛篤至御家衆簡而恕平居沈默慈
諒罕見其疾言遽色宗鄰鄰里一辭稱譽焉訓諸子以
孝爲先而戒其溺愛於子女及稱未亡人家事一聽於

不肖子某泣血嘆書

墓誌銘

孺人金氏墓誌銘

代夫
子作

林叟金公嘗僑居南郭與余爲鄰並而詔三子來問字於余由是習於公之質直好義而又以知壺範之懿也公之配曰金氏其先金海人也入我朝有諱始榮登武科官刑曹判書諱履行官水使憲孺人十一世若七世祖也高祖諱秉道武府使曾祖諱啓祖諱應海僉中樞考諱光時贈參判妣全州李氏學生時暉女英宗甲戌十二月十四日孺人生幼有德性和惠端靜

覽此者有所痛懲于不肖也

崇禎百八十年九月十九日不肖孫某謹識

書外王考妣遺事後代夫子作

右我外王考妣遺事略也歲已巳先妣年七十有一矣自二月寢疾跨夏漸餞以諺書草此托于不肖爲眞翻是年九月竟見背嗚呼痛矣庚午辛未兩歲行先祖考妣先考妣伯兄伯嫂三世六位緬禮仍又蒐摭三世遺事間又立伯兄後事故多端未能翻謄去月晦披閱文字得先妣遺墨迄今六年手澤如新垂淚罔極遺命之遷延未行不孝大矣謹以眞翻如右甲戌九月十二日

題跋

世牒後代夫子作

此卽我家坡平尹氏直派世系而自始祖太師公至不
肖身凡二十八世傍親及適庶男女皆因舊譜而記之
前月不肖將行懷川請贊于剛齋宋夫子爲便師門考
見倩宗叔健誥氏臨行書出歸後始粧池爲冊請綺園
俞公漢芝篆于卷噫祖先之成立者忠孝勤儉也子孫
之覆墮者頑率邪傲也苟欲法其成立而戒其覆墮捨
學何以哉不肖年今三十一矣姿識庸下聞道甚晚夙
夜憂懼唯是忝先之戒而略其狀于此卷俾後人之

崑溪側而折園不可謂坦矣然而主人以坦坦心行坦
坦道荒谿窮谷不爲嶮圭竇草戶不爲阨方將戒珍駕
馭直轡平驅乎仁義之域其視確者謬者隘者隆然而
舉然者或幽而或側者無往而非坦塗也疊石可以爲
山引泉可以爲池栽花接果種菜鋤藥可以爲閑中經
濟琴酒圖書之間日與山朋野客逍遙自適皆可以傲
公卿輕爵祿是則坦園主人之貞樂也彼乘肥衣輕躡
康莊而遨嬉者一遇風波顛踣不振豈若棲遲一園之
中而不失坦坦之地哉易曰履道坦坦又曰賁于邱園
坦園主人以之

夫奚特晚醒云乎哉姑孤勤托姑取持敬之說奉贈而自勉焉

坦園記

坦園者何坦齋之園也何云乎坦園園舊稱徐園以園主徐姓也又曰西園於漢師屬西也今也坦齋夫子居之曷不坦園云乎鄭公之鄉高陽之里蘇之堤歐之亭隨其人而名焉園稱坦園不其宜乎坦之號孰與之剛齋宋先生與之坦之義何居焉君子坦蕩蕩爾嘗試觀乎坦園則其土確其樹樛其屋隘有隆然高者俯仰臺中和壇也有峩然峙者起徵文阜也薰珮逕幽而曲小

本生舅姑服大功禮律同然且有沙翁定論恐當遵行
爲本生舅姑大功則當時服玉色衣裙尤翁說有之

記

先祖永隱公塋墓記

代夫子作

先祖敦寧府都正 贈吏曹判書永隱公先祖妣 贈
貞夫人金氏先祖妣 贈貞夫人金氏三位合祔塋墓
在於涼畿安城郡東十里加註面九士谷粉土山東麓
辛坐之原術士稱卧牛形居民傳謂尹某陵而失傳者
四十有四年矣 正宗戊午公之後配親家後孫金麗
淳來告于光演曰有姜一文者碎公墓碑而埋之墓田

抄飯依陶庵說三年內則行之而世有一抄者有二抄者何者爲得敢乞下教

謂齊答曰抄飯禮所不言而鄙家未嘗行之一抄三抄之得失

何敢質言上全

上食或以粥則拔匙何以爲之耶

剛齋答曰上食用粥則置匙于粥器上而

西柄無方耶
右辛未

荅金富平

欒別紙代夫子作丁亥

本生喪葬前所后忌祭使人代奠只入哭而退南溪說可考

本生喪中入所后廟服色遂庵曰孝巾布深衣陶庵云孝巾加以平涼子可遵而行也

附別紙

師門往復別紙代夫作

深衣通吉凶之服則弔哭亦當服深衣耶

剛齋命曰深衣弔哭恐似不穩未見明據何取質言性澤答曰深衣之著凡於吉凶何所不可

右癸亥

戒慎恐懼朱子謂常存敬畏則是通動靜言也又以存

養省察言則戒懼似是專屬靜如何看得而適從耶

剛齋

答曰戒懼對慎獨言則固屬靜而章句中常存二字誠如來示故沙溪先生兼動靜看而吾先子以爲不可不分中又有不可分者須仔細體驗方可見得

右戊辰

題主通德郎之妻或書恭人或書孺人未知何者爲得

剛齋答曰婦人題主從夫實職則以有郎陪而書恭人似是俗例之誤也才而已

爭一堂遺稿

別紙

苦難行ノ事也

陶庵詩曰壯年易失難重得須作超凡入聖人陶庵教少年猶以易失壯年爲戒矧失壯年者豈可不下百倍之功乎請夫子勉之

妾是一箇婦人身鎖閨闥無聞無識。猶於針線灑掃之隙覽古經籍窮其理而效其行思欲與前修同歸。矧夫子以大丈夫立心求道從師取友孜孜進益則何所學而不能何所講而不明何所行而不達由仁義立中正成聖成賢誰能禦之聖賢丈夫也吾亦丈夫也何畏而不爲哉萬乞夫子日新其德必以聖賢爲期

人之壽夭窮達有命焉爲父母者信世俗之語以教子女讀書爲大忌故婦女往往全不識義理甚可笑也允摯堂曰我雖婦人而所受之性初無男女之殊又曰婦人而不以任姒自期者皆自棄也然則雖婦人而能有爲則亦可至於聖人未審夫子以爲如何

允摯堂曰孝者百行之源既失於本源則雖盡天下之賢能餘不足道也又曰未有不孝於親而能盡忠於君者此誠確論

尹宅鎮鶴鎮旣與夫子爲同人而聞其資質純實又能贊見誠意可尙宜隨其人之可及者而教之則似無厭

從頗多損友又或論人過失似與前日所教不同果何故耶願聞其義

門生家或有饋獻則必稟于夫子而後辭受之或有不請而直辭之者獨於近日不請而受者有一一則金元伯孟漏眼鏡一則黃義卿敬饋肉也兩生俱自幼來學而金則誠悶眼昏黃則誠念無饋以親命而來俱是情貺夫子似亦不辭故不及請而受之未知如何

君子之爲道修己治人而已日夜孜孜猶恐不及夫奚暇於閑思慮閑言語閑酬應閑出入以自損乎任重致遠之志哉講夫子戒之勉之

弱不好弄微讀專篤其文行可尚謐卿

用正

晉見其爲人

則端厚和易外沈內明藝而不輕智而不駁敦乎倫而博乎文守其家訓綽有成規當爲外族中第一人黃生鍾雖未親見而其在外堂未嘗聞喧語飲食之餘整而不亂足跡不到裏閨中侍坐聽講竟日寂然如無人其心必無出入當有成就願夫子與若而人周旋或相提誨或相切磨則庶有資益矣

夫子嘗言求婦必於其類取友必於勝已又曰金茂朱
丈載汎論人過失而曰反而思之則却是說已病闌來不勝警發也今某人爲失類之婚而夫子不戒近者相

必體養。村先生誠敬之訓終歸于至善則豈不美哉。
無所爲而爲者循天理之君子也。有所爲而爲者徇人
欲之小人也。誠能反諸已而求之明乎斯而由乎斯則
坦然夷塗直轡無礙矣。

謠云三歲之心八十猶在此言氣質之難化也。氣質之
高者易與爲善氣質之下者難於入道教人者亦當隨
其人之高下而善導之也。親黨中惟弟日會自孩提時
有懷橘讓梨之事。課讀勤孜不貽長者憂及其長也。孝
友敦睦人無異辭。見解超卓庶乎進就不幸而夭族姪
勳永容止安靜且好讀書。厥有可望外親中上舍從仁

下示爲善最樂其言固甚大但於事事物物上必先推究其所以爲善之理明知其當然然後一於善而實踐之則可見最樂之效也

金上舍歸羣從兄弟時時來顧且乘軒之客自遠委訪者亦多固爲可憐然但盡吾爲主人之道而遇卿大夫則以待卿大夫之禮待之遇士則以待士之禮待之不以位勢之有無有所輕重則此心常正而無侮辱之招矣客之來見以夫子有爲己之道也性潭宋贊成
煥箕號曰讀書窮理自明其道而已海石相公曰爲忠孝求道德皆是自己分內事也此皆格至之論願以足孜孜自勉而

新來入郊此正燈火可親之時也望須接客應事不得已之外專意讀書焉妾亦針線饋食之暇中夜下帷之際看字理會爲計矣向讀四書而孟子下三篇尙未訖然不久當訖擬自今冬從夫子講易而客若久留則不可爲矣從近裁書于金洗馬鑄許詩書大全借示伏望淇洗馬贈夫子詩云母經未成頭髮白百年虛作丈夫身令人警惕請夫子益懋新德進進不已

眼患屢日未瘳伏切悶慮願瞑目端坐息却閑思慮平心下氣存養方寸財非但調病之方而已亦於寧德性之工似有益矣

大於此者哉

願夫子有善忘善無過思過見善如已出見惡如已病君子不可無義理之勇不可有血氣之怒今聞夫子責人過於聲色然則大有損於修身之道請戒之

不炊今三朝矣書童適捲南瓜蔓以歸搜得其實如奉者數枚切而爲羹謀一盃酒不得只以羹獻不任惶歎德固不可一日而不修學亦不可一日而不講講學又莫先於讀書竊聞夫子方讀易而李銀河子英來留過冬此自少經學之儒也相與講磨甚好願以日日討論者錄于片紙下示則幸甚幸甚

夫子之私之也假使夫子一有所私而損於德業則妾雖富貴寧逸不若窮餓而死請夫子勉之每書字錄呈直觸不遜殊失妻婦之道然而沈思軒丈師東嘗謂夫子有虛受之量且妾嘗承隨事直言之教故不敢不盡言耳若聞過而少或吝改改或貳之則終無由進德請夫子益勉益勉

貧者士之分也儉者物之本也安分守本而從吾所好樂莫大焉雖三公之貴萬鍾之富苟非其道願勿掛念不有孔夫子之言乎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李某炳升木其妻警諫以爲失士夫之體此甚欽歎况

利說恐門生小子習聞其言浸浸然入於其中夫子何不早遠此人遠之之道在乎不惡而嚴當正衣冠尊瞻視可無非禮之言動則彼自遠矣

人之有仁義猶四時之有春秋言仁禮在其中言義智在其中恐不必疑

師者道之所在與君父一體尋師之行與省親無異則何可以賤疾停驂也今病雖甚未必死如夫子聞道則雖死猶榮願趣駕戒程焉

事親而私妻子則孝不篤事君而私妻子則忠不盡事師而私妻子則學不誠推之事事皆然妾雖不敏不願

論一
卷之三
十六
僅是夫子之德至於垢汚而未澣綻裂而未補妾之罪也謹和灰糲針以俟敢請

花卉宜植於園中而不宜植於內庭移植于東巖月潭之間宜好而屬仙花所以染指甲者也妾性不喜此并爲移出如何

某兒家聞四不舉火吾家則三不炊此兒所饋不可受况非其親之意而渠私自持來雖是升米分銅之小義則未安若向來金童之饋則雖是石米之多與受既合情誼又以覲命爲之不宜辭也

義者治之源也利者亂之樞也聞或人日來外舍多言

菱山黃正言基天號文詞之高妙綺園俞永漢芝號篆棟之精孰果
如下矣而但夫子多病年晚經禮之學尙未融貫何暇
學此耶惟望實心自勉探赜六籍之蘊奧追步聖賢之
闡域夙夜孜孜無負當年志願千萬千萬

時弟時會早孤失學然能自力於奉先睦族愛兄子如已
子誠心教導不幸無年無兒今似聞祈求求族子爲之
后此姪自來誠心在此竟能成之奇幸奇幸伏願因徐
一心輔便書探于上舍族兄昌從近詳聞而教導所后
之兒同於祈求使之守家千萬幸甚

文中子之服儉而潔今夫子之服儉則儉矣潔則未也

獻故受置矣今出而視之栗則半爲鼠耗肉則敗矣刀括水洗煖燶于爐火仍以紙價兩葉銅沽酒而溫之以進此物雖細無忘所由來之艱如何少若瘳飢旋卽開卷無或流失光陰千萬伏祝

謹孫雖質勝而久於中行然猶勝於文勝而減質矣此兒口有所諾必踐其言奉先守家可恃此兒而堂內無出其右者矣幸望引而教之使得成就焉且此兒幼而失母祖母又性嚴常視夫子與我猶其父母十里江郊不避風雨寒暑身齋糗糧夙宵來侍念其形容番番零涕矣此兒小或有過詳細開諭切勿外觀如何如何

之際最爲緊要處近日衰症轉甚精神益耗未及於他
江決而惟用力於此不無微效亦願夫子實心認取
年前李梧軒吳進善愚在燕行時托于王太子夫子固辭因推
讓于老湖熙常田昨數十章甫由鄉赴舉聞夫子之
名相率贊見且饋遺甚多夫子堅讓不受右數事果皆
善處矣一則吾無及人之德而不可遽承盛托一則末
譖誠意之如何而不可遽受腴幣此雖與前日仰達者
有若矛盾而但於事理有彼此之殊耳前日仰達指張良
次下宋條也伏問宵回愆度若何風雪嚴凝冷如冰恐致添患矣
月前謹鎖拾園栗揀其大者升許及切肉數片持而來

恐食不穩之教耶

幅_早非古制而朱子著于家禮則臨祭之着似愈於笠子_却

祫衣士妻之服而其色純黑忌祀時着此似未穩姑從魯庵_{其齊}號家素祫衣之制而但未有所考慮如何

華冠者言華人之冠也古無是名 大明革世後宮人之避難來東者著此冠東人指以名之然考見禮十五而笄註婦人無冠以簪固其髻而已竊恐冠之一字似未安請易以笄字何如

戒燿是未發時工夫而慎之於已發而人不知已獨知

益爲交勉訖成友道之美

李明夫炳居在鄉谷雖傍無師友而猶自篤學每見其上夫子書味學之實藹然溢於辭表殊甚欽歎請謁意答之使得益勉進就也

父子一體也父當慈兩子當孝請夫子之於欽圭更加慈愛弟子之於師視之猶父師之於弟子視之猶子古道也請夫子雖泛愛而擇其誠心向上者加愛而篤教俾有成就如何

深衣雖是通吉凶之服而弔時古有弔服今有素服則不必着黑緣采帶而弔之故剛齋先生有此深衣弔哭

何

婦人之嫉妬甚者至於亡人家而絕人嗣此不惟不識
義理亦不知利害也夫之子卽已之子若子姓蕃衍則
爲幸何如哉女宗言七去之道曰妬正爲首淫泆竊盜
張舌驕侮無子惡病皆在其後然則罪莫大乎嫉妬矣
竊聞夫子欲作女戒以示子孫婦女請編入妬忌一章
使讀者有所痛懲而進於婦德如何如何

某富人而勸酒二盃無乃過歟鈴原尹叅判行直老矣湯羹
間未及接待似爲久事此雖小節不可不葺處也

李雅

著

之保族守家奉先接賓各有次第其如下示請

下示或說云云謹悉蓋畫像與神主不同不必宗子主之爲子孫者皆當守之苟有德而人所瞻仰者則門生後學亦當奉安而以時瞻謁况其承孫乎金富平素以純孝之姿出后於宗家而不得主祀於本生父則終天之痛無地可寓故奉文忠公畫像於別齋每於文忠眸辰設恭禮省謁以寓孺慕之誠此實所謂於情安於義無損者也

宋木川欽剛齊之胤金上舍炳渼湖之孫屢次見訪在夫子固當極意接待而每緣艱乏不能從心豈勝歎喟竊聞兩賢並端厚愷悌請相對切偲以爲交勉之地如

君子處世消長之理。事物之變所當推究者也。山天齋

金監役
相岳號之易學。八年堂沈處士號之數論。其義精。其說詳。

苟能善學。則斯可知要矣。鶴山公伊舉號詩韻清穩。青

翰子李監役
觀夏號文辭贍博。夫陶情抒感。達意導志。是亦儒

者之所不可無也。請於究會六經之暇。時時從事焉。

權童子用鋗從兄櫻用弟之來。果有項針之教耶。來者固不

當拒。况其父兄有勤托。自家有實心者耶。且隨其人而

教之。如洪三隱義慶號。趙子安仁號。有誠孝之心。則易教以

事親之道。張仲深淵號。有仁厚之姿。則易就其及人之善。舉此二者。餘皆可推矣。

可以一善一不善而知其人哉書曰知人則哲惟帝其
難之况識鑒之不及聖人者哉望須視所以觀所由察
所安如孔夫子之教而徐徐參驗庶可知矣且夫求爲
人師則妄矣若格致誠正之工日新於已而自然及人
非我求之童蒙求我則亦何嫌於好爲人師耶愚見如
是請更剖示

我有實德人雖不知何損焉我無實德雖有虛譽何益
焉有玉於此人謂之石而無損於玉有石於此人謂之
玉而無益於石願夫子務實德上不愧乎天下不怍乎
地無恤乎人之知不知也

靜一堂遺稿

卷之二

十一

敢聞命無任悚惶

益齋黃潤鍾號自幼不入酒肆夫子極稱其士夫之一節而屢坐於某家何也似違言行相顧之意請更勉之

伏承下示有曰豈敢曰知人豈敢曰爲人師也但以目下來從而相守者言之各有取焉如孔胤錫古聖之裔而有純實之資趙仁錫松山之後而有孝友之行朴秉殷樸實而好古林道詰和樂而愛倫黃浩淳緒于秋浦芝所之忠孝李敬鉉裔于龜川直齋之道學權道仁姜祈永因其親姻之好林達潤金應洙難孤遠來之誠云云竊念夫子或以一善而輒許之一不善而過乎責豈

人時頗少溫和之氣敢以仰告

一不

而

四

今朝客

李上
遠重

舍去何不挽留耶衆人猶不可然况賢者

乎想必以賤恙中恐致勞動而然也然瓶中尙餘升許
之未且病症較昨稍愈豈可憚乎婦人之勞而敗夫子
之家規乎接賓之禮次於奉先人家之大事也切不可
少忽耳

日會衝寒早來故悶其勞瘁而有此作飯之教耶禮山
叔孰之來此今既近旬而彌歟或闕今日遽爲日弟作
飯非但力不贍以夫子而言之則妻兒弟親於己族以
妾而言之則私兄弟重於夫黨此雖小事於義未安不

心行實事之語相爲表裏而李養寫義勝戒子書善莫大於改過惡莫大於欺心養福莫如寬速禍莫如忿四句不但戒子而已實君子所當警省者願夫子益自勉戒

俞參議

漢禹著庵號

李都正

廷仁四事堂號

俱以八耋長老遠地屢

顧此豈爲尋常顏分而然哉愛夫子之學行而有所期待也願修吾之實而副人之望

日昏不可行夫子何不思朴其齋綜言乎傳

易曰節飲食酒是飲食中一大端願夫子節飲而慎德俄暝荷蓆切責甚然或不幾於過中之責耶聲色言語君子之尤當用意處詩云溫溫恭人惟德之基夫子責

有沾惠之嫌故如是處之未知如何
俄者似聞自城內還駕歷入某家果然否此雖士夫家
今方賓酒夫子之與客歷訪固出偶然而安知外人不
謂沾飲也古人詩云君子防未然不處嫌疑間可不警
惕耶

今將進飯願不介意而盡之也今日家衆所食均贍請
無慮焉設或不瞻君子不必屑屑於飯匙間事也
俄聞夫子責人聲氣過厲此非中道也如是而設或正
其人已先未正其河乎願加審思

李紳庵晉右心不放循理無違八字與洪洗馬直以實

心所好不合天理之謂禮著天理之節文必先明其何者禮何者非禮然後勇斷已私一從天理則可至於道矣敢以此仰勉餘在拜時續稟不備

附尺牘并上
夫子

今朝一老婆來獻斗米斤肉問其故對曰向出郊外被敵於無賴漢適值夫子之過泣訴馬前夫子嚴辭諭之遂得免焉感恩實深故獻此表誠云云時聞外堂有客不敢煩達自內還授則老婆執堅不肯故謂之曰夫子嘗七日絕粒而却千金之貲今豈受汝之物乎老婆歎息方持米肉還去耳彼雖以誠意來獻而我若受之則

伏問夜間慎候比昨何如自懷還次後竊欲從頌有所
仰達而非但賤疾纔甦神精眩瞀慮撼頓之餘致有
勞損且鎮日客撓未暇稟質今朝則身恙稍聞賓客已
散適有酒饌恭俟晨謁後仍爲進饋隨卽拜陳矣日已
晌午尙無沃盤之命伏想體內愆和猶未復常伏慮萬
萬竊聞今番師門之行受來非禮勿視聽言動字將以
刻揭書室伏切喜幸此四句孔聖所以答顏子而顏子
所以終身講事進於聖人者也且王舅府君嘗書此自
勉以教後人伏願夫子仰孔顏傳受之董念先世箴戒
之至承歸門慾勵之意日夜靡懈常目在是夫已者吾

以柒強壯完厚之質以叔主慈諒深仁之德未蒙其澤
有此夢外之變疊出於一朞之內不知者壽也亦理也
召禍之存酷胡至於斯連年遭變雖家計之稍饑者似
無宿疣之需而况絕峽窮家初終襄禮其何以及期捨
据喪威之餘凡百必無統緒且叔主頻見此不忍見之
境自愛保重之道應失其宜念至於斯節節悲結而釀
淚矣甥女身病漸痼外庭亦以宿症長時久衍其他計
活之艱去而益甚月前遭兒懼侍下情理何忍提達疊
疊所懷殊不此此而書不敢盡伏祝氣體萬安不備白

上夫子書

庚寅

備伏惟亮照甲申端月念日宗末某拜

上舅氏權烏齋

中實書
子季秋

凝

便稀路遠音候漠然常用慕鬱昨日就如回伏承覆杜始聞叔母主下世之報驚慟何言春秋殊不至篤老平時筋力亦云康旺私情冀望必躋遐壽之城豈意今者遽承凶音耶伏想叔主摧拆悲痛之懷必難寬抑兒小失恃呼號之狀有若目睹尤覺慘毒不忍忘食息之間矣雖欲專人唁俟以伸舅甥至切之情而近來殘疾殆無暇日且拘於形勢之不逮若視越人每切自訟而未勝悲念之枕夏初因致興繼聞第三從喪報慘矣慘矣

日計之成服雖後月計數月之後亦不可據此爲斷先正說既如是明白遵用似無疑矣餘不備疏儀丙子二月廿五日宗末某拜

與豐川宗人澤霖

代夫子作

一

歲換適半信息仍阻悵併懷思曷惟其已此際漸熟書中動用諸節一向晏童遠溯不容區區宗末宿病頻作振利無期自顧闕憐每念僉宗氏相愛之誼一次委進穀叙情話兼仰名區壯遊之舉初擬今春發程矣身恙馬瘡此計竟違更以秋冬間退期而仲秋科時那中少年如有入洛之便相報動靜如何餘官號甚謹始此不

蟄吟疴頓無好况。况紙用自憐。尊三世文字今始構呈而不但非其人而已。體製蕭拙不能發揮幽光。第難於違孤盛意。有此僭妄之舉。悚愧交中。無以爲喻。餘病倩不宣書儀範。希照亮乙亥臘日。宗宋某拜。

與宗人釜山之謙

仁夫子作

省禮頃者半晌晉晤。迄庸伏慰襄奉。聞已過行仰惟孝思靡逮之痛。何以堪。抑積日勞攘之餘風。日又此愆。常哀棣倚。冀動立支衛。遡念不能暫弛。宗末宿疾添感。日事呻卧。悶苦何喻。下詢禮疑。歸考尤翁說則。聞訃在亡月。則只計月數。而子練祥於亡日。又曰喪服當從聞訃。

故六子恩津宗人多至行者來見屢次自願於修單之存故信而無疑矣。每持單本序文與若干單子而去。數月後始聞之則以自印出故推見其所謂印本則昭穆紊亂姑庶混淆其他詐誤無所不至此不過渠以鄉曲無識者濫生冒托之心有此罔測之舉今番譜役又恐此人來參致有見欺之弊若然則宗中嚴斥勿受且懲前罪至節臣仰先事之慮有不敢不然者委此書告耳餘不備伏惟僉下察甲戌菊月望日宗下某拜

林本與宗人光周書

代夫子作

歲暮雪深瞻造良勤卽惟啓予清重慰溯無已宗未坏

長可幸而蒙養之功效不失義方否須及時勉誨無至
扞格之患如何令二從氏參奉皇會及雲會昆季素知孝友敦

睦迥殊凡人則爲人大節不出此箇道理不必遠求師
資而使胤兒日夕薰習於其間則豈非便近而切實乎
抄秋有歷枉之期云奉企奉企餘手溢信書不備儀戊
辰七月十九日弟某拜

與宗中書代夫子作

霜寒比緊伏惟僉體俟萬衛伏溯無任區區宗下身恙
經秋尚不得夬蘇私悶何狀就白宗下家曾修本族譜
牒祖先事蹟及子孫名錄十分詳細經始有年矣甲子
爭一堂遺高書

非誠曷有非敬神而唯斯二者入道之門

謹次王舅戒吸烟告語

惡草小宜吸於古未謂名矧余王舅訓垂後甚分明

偶吟

斷斷先生志唯期學古聖有知行必踐應物身先正

書

與姜就如

日會書代夫子作

令季氏來訪袖傳惠札披讀之餘從審新涼靜履茲衛
慰荷無比第聞間遭功服之喪兼以天慘驚愕何喻弟
省狀如依而身恙空蕩去益沈痼悶不可狀聞胤兒書

萬理原天地一心統性情若非敬爲主安能駕遠程

聽秋蟬

仰孔夫子

萬木迎秋氣蟬聲亂夕陽沈吟感物性林下獨彷徨

大哉夫子德滄海浩無邊嗟爾則蠡者安知納百川

客來

遠人慕夫子云自北關來家貧曷飲食唯有酒三杯

坦園前路通乎康莊

哀哉叔李世幾人迷迷程坦坦吾家路願言直轡行

誠敬吟

人苟未聞道不死亦非慶惟尊夫子訓一心盡誠敬

除庭草

小鋤理荒穢快雨灑塵埃縱愧濂翁意山茅舊徑開
示誠圭姪

先生知爾孝以爾承兄後願爾事先生一如事父母

壬午冬夫子示余五絕一首勉志業之進就余未及仰和矣忽於昨夜夢中追次前韵既寤而猶記

遂錄以存之

壬辰卽屬
續前三日

餘生只三日讀負聖賢期想慕曾夫子正終易簣時

主敬

以下年條未考

除夜

古聖傳斯道人人所共由心月印寒水精光炯千秋相
傳一敬字關鍵孰能拙鷺遠徒虛勞力進須近求終身
宜自強望道敢遲智

贈安公才駿甲兼示高信義

廷植代夫子作

聖道如大路古今之所由學問非別致向上須探求卷
中指南術歷歷在前脩勉哉駕直轡道域偕優遊

呈夫子

昔從艮齋日求道斷無他于今三十載造詣果如何

元朝敬呈夫子

庚寅

靜一堂遺稿

詩

從往叩履茲中正坦平其道

景仄虞淵冰雪磋峨秣馬脂韁前路云遐僕弱難馭登
頓于嗟遭此晚暮憂傷如何

鳥嚶求羣魚沫逐隊節舒陽和其樂自在胡爲索居終
罕朋輩願言三益勤箴吾過

謹次丈席沼灘詩韵代夫子作

寧陵追泣宋夫子中夜悲歌當日詩後生莊誦春秋義
感淚頻添白髮垂

勉誦童

汝須勤讀書毋失少壯時豈徒記誦已宜與聖賢期

奉獻青翰子

李夏觀
夏觀

尊大人回田壽席

孫作
孫

養德北山下潛光道益尊鶴聲清和子筠影綠生孫弧
矢方回甲賓朋共侑樽餘寐曾未艾車駟寧容門

贈朴仲輅

秉殷代
夫子作

志行雖貴勤門路須尋正可久終成功爲山與鑿井

示同庚諸友

代夫
子作

五旬荒鈍只依前尤悔如山孰可鵠諸子從今相佽助
願資麗澤送餘年

坦園三章

代夫
子作

林居谷飲抱書自好前脩有心庶幾窺奧羣疑廓塞孰

爭一毫覓高

詩

能存戒慎終可致中和達道關三德誠哉理孰加

示從孫謹鎮婦

崔氏權氏

貞慤首矣順從務焉是婦道也爾須勉旃

夜坐

癸未

夜久羣動息庭空皓月明方寸清如洗豁然見性情

坦園

甲申

坦園幽且靜端合至人居獨探千古籍高卧數椽廬

謝海石金相公

載秦惠貺新曆

戊夫子丙戌

蓂莢陽生惠及隣山家從此記冬春只憂時月悠悠過

誦服良箴企日新

除夕感吟

無爲虛送好光陰，五十一年眠。空慙中宵悲歎，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已。

病後注許

一疾幾危今幸差，清秋開戶余心快。調濟豈專藜术功，
伊來體認誠明界。

偶吟

我乏三年艾沈疴，苦未醫及命猶不蓄。他日悔何追，

讀中庸

一編忠聖傳千載，繼開多體國無偏倚。用篤不謬差，始

山中君子宅讀書對明牕有客從遠至柴門吠老厖

自勵

休令好日月游浪斷送虛宜鑑不學者枯落歎窮廬
性善

人性本堪善盡之爲聖人欲仁仁在此門理以誠身

呈夫子

妾愧無才德幼年學線針眞工須自勉衣食莫關心

敬呈夫子行駕

清晨灑泣送君子去去湖山應不忘臨行惟有一言告
世事循環如彼蒼

靜一堂遺稿

卷一

七

詩

敬次尊姑只一堂韵

丁巳

下學須敦倫慈幼且安老直轡從此行自是坦坦道

原詒
春來花正盛歲去人漸老歎息將何爲只要一善道

始課

戊午

三十始課讀於學迷西東及今頃努力庶期古人同

見書童被撻

爾能謹而慎過罪何處從自今便有悔誠心復正容

山家

七言一堂遺稿

附錄

行狀

墓誌銘

祭文

誄文

輓詩

詩跋

筆帖跋

鰲村宋先生書略

靜一堂書蹟

遺稿跋

靜一堂遺稿目錄終

靜一堂遺稿

目錄

詩

三十七

書

七

尺牘

六十二

別紙

九條

記

三

題跋

二

墓誌銘

三

行狀

三

祭文

三

銘

五

雜著

一

拾遺

詩

尺牘

二十

青一雪遺稿

尤豈不絕異矣乎古昔哲婦賢媛之名於後世者或以孝烈德行言語一節之美焜耀人耳目何限而至於義理之精解學力之深造如此卷者豈易得於閨閣之内也其視兄弟之聯芳朋友之唱酬其難易得失果何如也明直之圖所以不朽永作貽後之樞範惡得已乎明直甫以余有同人之好要一言以識之不欲言外竊不揆僭妄而樂爲之書時

崇禎紀元後四甲午九月戊子通政大夫前大司諫坡平尹濟弘識

巾箱中者嘗自謂文章非婦人事未或出於藏其人雖歿不欲傷平日志然亦終有所不忍湮沒者其爲詩尤少而要皆學者自警之言其文又非華靡藻飾無非饒嬉於不佞身心上論學則主誠敬謙工謀則斷斷乎格致與踐履條條自合於經旨者蓋其常時治紅之暇潛心古經必有慧識妙悟而其用工之淺深見處之多桷爲其夫者亦未能盡知然而使其夫浸浸然變其氣質從師就友能免於大罪過者嘗婦人賜也余竦然聞之如焉擊節興歎終焉斂膝起敬而曰噫余之於子重之異之者其有驗矣其有資於簪珥之警茶飯之益也是

靜一堂遺稿序

庚辰年十月十五日丙辰七七二節

人有兄弟而埙篪相和有朋友而鐘呂相合是皆人倫中至樂而自古人之有此樂者絕難得而或有之况乎家室之內夫婦相得簪珥之警不絕於燕閑茶飯之說皆足以資益則其爲樂何如也吾宗坦園明直甫少好氣節所行者不能無得失自勝冠稍稍嚮道遂就正於剛齋先生門固有讀書篤志矯行余嘗重之年來其窮益甚又喪其眸體身計之淒廓殆人所不堪猶尚益奮勵不渝初志余益異之忽一日袖出一小冊子題曰靜一堂遺稿泣謂余曰此吾亡妻所著文字之收拾於

詩
家
通
稿
全

部	廣	言
類	別	集
番號	五	一



部	集	部
類	別	集
序號	176	
頁數	1	
首		